

2024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대회

글로벌 격동기 유라시아 연구

- 일시: 2024년 12월 7일(토), 13:30 ~ 17:30
- 장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
- 주최: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4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대회 프로그램

- ◆ 일시: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13:30~17:30
- ◆ 장소: 한양대학교 국제관
- ◆ 주제: 글로벌 격동기 유라시아 연구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정치경제 분과 (6층 스마트컨퍼런스홀)	분과주제: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제	사회: 우준모 (선문대)
	13:30~14:05 발표주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러시아 넷트제로 전략과의 협력 가능성 연구 발표자: 김선래 (한국외대)	토론: 윤영민 (한양대)
	14:05~14:40 발표주제: How Did the Authoritarian-Bureaucrats in Russia Transform the Institution into Personal Power 발표자: 연담린 (한신대)	토론: 이주연 (동북아역사재단)
	14:40~15:15 발표주제: 한-러 임업협력과 한계점 발표자: 김정환(한국외대)	토론: 김유정 (한국외대)
정치역사 분과 (6층 스마트컨퍼런스홀)	분과주제: 중앙아시아의 정치, 역사 문제	사회: 김병호 (매일경제)
	15:30~16:05 발표주제: 키르기스스탄의 불안정한 정치현상 이해: 정치문화와 씨족정치를 중심으로 발표자: 성동기 (인하대)	토론: 박상운 (한신대)
	16:05~16:40 발표주제: 19세기 '그레이트 게임' 속의 잊혀진 영웅,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의 중재자 아이토프 연구 발표자: 곽성웅 (배재대)	토론: 신보람 (전북대)
문학 분과 (352호)	분과주제: 러시아 영화, 소설, 희곡 연구	사회: 최정현 (고려대)
	13:30~14:05 발표주제: 러시아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길을 떠났다> 연구 발표자: 홍상우 (경상대), 박교림 (경상대)	토론: 황기은 (서울대)
	14:05~14:40 발표주제: 아쿠닌의 횡단: 과거와 현재, 러시아와 일본 발표자: 윤새라 (UNIST)	토론: 이형숙 (고려대)
	14:40~15:15 발표주제: 안드레예프 희곡에 나타난 '의식적 맹안' 고찰: 『스토리친 교수』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선진 (계명대)	토론: 조혜경 (대구대)

어학 분과 (352호)	분과주제: 러시아어를 통해 본 갈등과 교육		사회: 한만춘 (상명대)
	15:30 16:05	발표주제: 언어게임 기제 연구를 통한 러시아어 교육 재고 발표자: 김성완 (계명대)	토론: 이새봄 (중앙대)
	16:05 16:40	발표주제: Лекс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эвфемизации в контексте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язык, формирующий восприятие концепта «во йна» 발표자: De, Eduard (계명대)	토론: Pospelova Marina (수원대)
차세대 분과 (451호)	분과주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회: 변현섭 (계명대)
	15:00~ 15:35	발표주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 연구: 헌법의 한계와 정치 동기를 중심으로 발표자: 허재용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토론: 박찬현 (안양대)
	15:35 16:10	발표주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유라시아주의의 강화 발표자: 문승원(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토론: 장하영 (경북대)
	16:10 16:45	발표주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으 로서 신유라시아주의 강화에 관한 분석: 나치주의 미화 방지 결의안을 중심으로 발표자: 장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토론: 조정원 (원광대)
총회 (6층 스마트컨 퍼런스홀)	총회		사회: 변현섭 (계명대)
	17:00~ 17:30	2024년도 학회장 인사말 2026년도(차차기) 회장 선출 및 인사말 2025년도 학회장 인사말	
	17:40~ 19:20	만찬	

목 차

제1분과 정치/경제 분과

김선래(한국외대) 13:30~14:05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러시아 넷제로 전략과의 협력 가능성 연구	5
연담린(한신대) 14:05~14:40	How did the Authoritarian-Bureaucrats in Russia Transform the Institution into Personal Power	19
김정환(한국외대) 14:40~15:15	한-러 임업협력과 한계점	41

제2분과 정치/역사 분과

성동기(인하대) 15:30~16:05	키르기스스탄의 불안정한 정치현상 이해: 정치문화와 씨족정치를 중심으로	49
곽성웅(배재대) 16:05~16:40	19세기 '그레이트 게임' 속의 잊혀진 영웅,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의 중재자 아이토프 연구	65

제3분과 문학 분과

홍상우(경상대) 박교림(경상대) 13:30~14:05	러시아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길을 떠났다> 연구	79
윤새라(UNIST) 14:05~14:40	아쿠닌의 횡단: 과거와 현재, 러시아와 일본	99
박선진(계명대) 14:40~15:15	안드레예프 희곡에 나타난 '의식적 맹안' 고찰: 『스토리친 교수』를 중심으로	103

제4분과 어학 분과

김성완(계명대) 15:30~16:05	언어게임 기제 연구를 통한 러시아어 교육 재고	115
De, Eduard(계명대) 16:05~16:40	Лекс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эвфемизации в контексте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язык, формирующий восприятие концепта «война»	127

제5분과 차세대 분과

허재용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15:00~15:35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 연구: 헌법의 한계와 정치 동기를 중심으로	139
문승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15:35~16:10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유라시아주의의 강화	149
장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16:10~16:45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입장과 대응	163

■ 제1분과 정치/경제 분과 (13:30-15:15):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제

사회 우준모(선문대)

김선래(한국외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러시아
네트제로 전략과의 협력 가능성 연구

발표 연담린(한신대) How did the Authoritarian-Bureaucrats
in Russia Transform the Institution
into Personal Power

김정환(한국외대) 한-러 임업협력과 한계점

토론 윤영민(한양대), 이주연(동북아역사재단), 김유정(한국외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러시아 넷제로(Net-Zero) 전략과의 협력 가능성 연구

김선래(한국외대)

I 서론

재생에너지 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정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결정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친환경 정책에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으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보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하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감소될 수 있으나 미국 내 투자 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4. 5. 16.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태양광 확산을 위한 주요 입지와 공급망 강화, 시장별 강점 극대화를 위한 RPS/PPA 관련 제도 개편 등을 통한 시장의 강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현 정부 들어와 다소 주춤했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중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 태양광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70%에 해당하는 주요 에너지 원이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두었던 부분이 법령개정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우 정부가 해상풍력에 대한 육성정책을 발표하여 향후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금리의 상승은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운영비용을 증대시키거나 유가 상승은 재생에너지로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이 단순히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내용도 있지만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서 에너지 패권 장악이라는 측면도 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업종이 높은 관계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육성해야 한다.

2019년 이래 유럽에서 강조한 넷제로(Net-Zero) 정책은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무역장벽을 설정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보호무역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11월 30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8)에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 점검, 화석연료 전환 합의, 손실 및 피해 기금조성, 기후 재원 목표 수립 노력, 파리협정 제6조 탄소시장, 투명성 보고 등이 의제로 올랐다. 각국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온도 제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에 43%, 2035년에 60%를 감축하고 배출 정점은 2025년에 2050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이 이러한 추세를 확인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넷제로 선언은 에너지 청정 기술로 에너지 효율에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에너지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이 담겨있다.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아 전체수입액 중 에너지 자원이 25%를 차지하고 있다.¹⁾ 특히 비철 금속, 철강, 화학 등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한국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략적 강화와 경쟁력을 확보하여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러시아의 넷 제로 전략과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 러시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연구해본다.

II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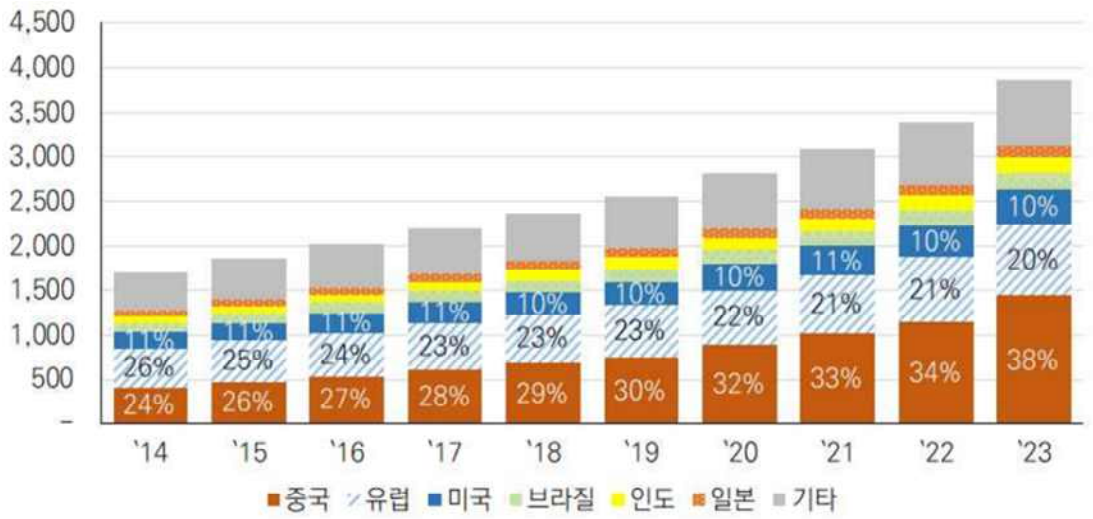
1. 한국의 RE100 전략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전체 전력믹스의 9.64%로 이는 전 세계 평균 30.25%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타국에 비해 15년이나 뒤쳐져 있다는 의미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가입하는 이유는 수출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산업 수출 감소가 자동차 15%, 반도체 31%, 디스플레이 패널 4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RE100에 가입한 기업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428개에 달하며,

1) 길은선·송영진(2020),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 성장의 관계: 사업체 모 집단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11.

미국의 거대 IT 기업인 구글(Google)의 경우 2017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으며 한국의 경우 2020년에 SK그룹의 기업들이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은 총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지목되어,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애 요소 및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림 1>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추이 (단위:GW)



주: 그래프 안의 숫자는 세계 발전용량 대비 국가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IRENA(2024), "Renewable Energy Capacity Statistic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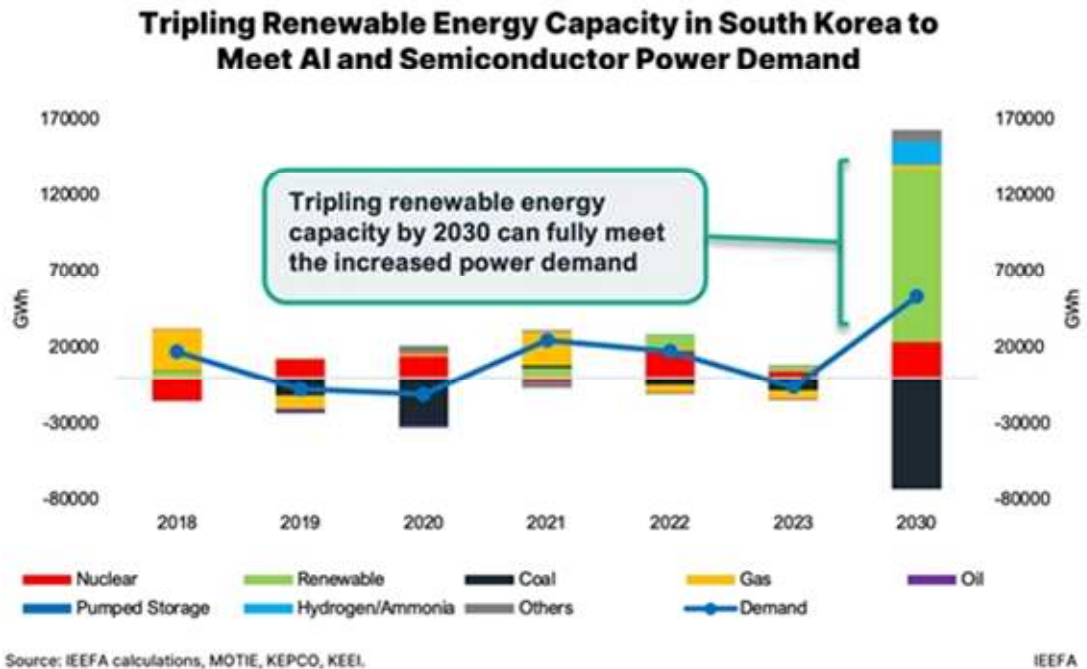
2024년 5월 산업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전력믹스의 21.6%, 2038년까지 32.9%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다. 여기에서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을 지양하고 재생 발전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²⁾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재생 전력을 사용하지 않아 탄소집약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며, 향후 LNG에 부과될 탄소세는 LNG 기반 전력생산 및 구매 비용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LNG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도입될 지속 가능한 회계기준(IFRS S2)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국은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트와 AI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되는 전력이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생성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³⁾ 특히 공급망 및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배출을 공시해야 하는

2) "IEEFA, 韓 재생에너지 격차 심각... "반도체·AI 성장에 따른 보급 전략 나와야"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68> (검색일: 2024.11.01).

3)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규 전력을 자회사인

직간접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3)이 확대될 경우, 다운스트림 반도체 구매 업체는 물론 업스트림 원료 공급업체들까지 고탄소 배출 한국 반도체 기업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그림 2]에서 보듯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추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유럽연합의 NZIA(넷제로 산업특별법)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림 2>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주: AI·반도체 전력수요 충족을 위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전망 [자료=IEEFA]

한국은 2005년 EU에서 최초로 출범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인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를 통해 정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규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기업(또는 기관)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기반 접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국가 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K-ETS를 2015년에 시행하여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을 통해 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다.⁴⁾

RE100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며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한다.

SK E&S의 LNG 발전을 통해 공급받는다라는 계획을 세웠다. LNG 연료 기반 전력을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것은 SK하이닉스의 RE100 달성뿐 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위험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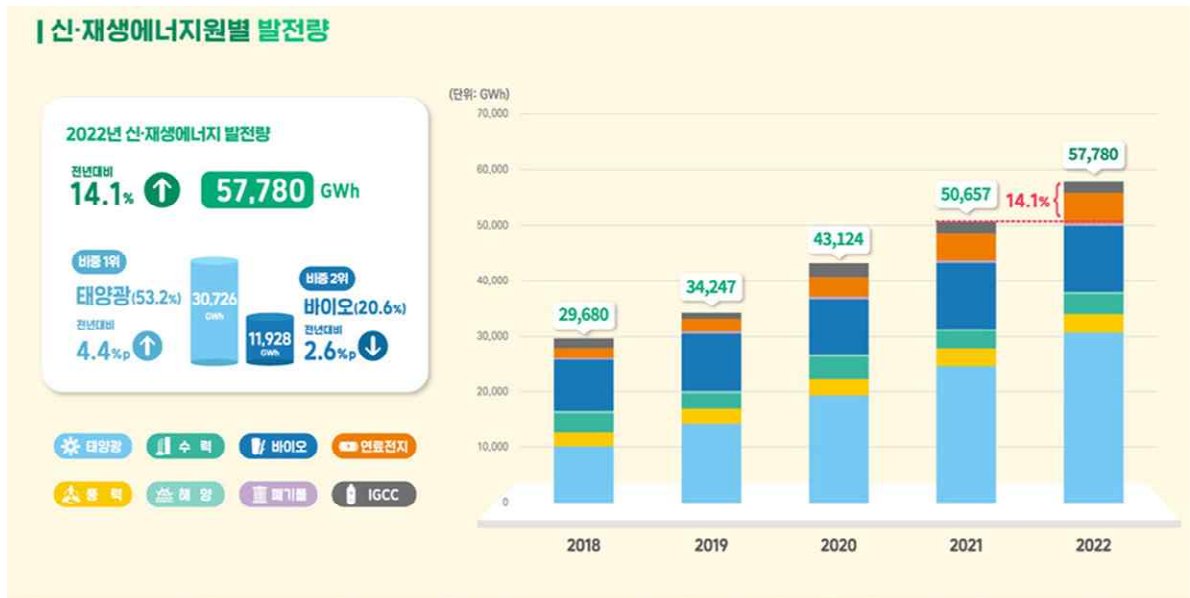
4)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https://ets.krx.co.kr/main/main.jsp>)

한국의 RE100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거나 주요 다국적 기업(Fortune 1000*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인 경우와 해당 산업 및 RE100 대상 부문에서 핵심 기업으로 활동 중인 경우, RE100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기타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 연간 전력 소비량이 최소 100GWh 이상일 경우 회원 자격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표 1> RE100 참여 기업 수 상위 5개국 및 가입 증가율⁵⁾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대만
'21년 12월	85개사	56개사	44개사	9개사	10개사
'24년 4월	98개사	87개사	47개사	36개사	32개사
증가율	115%	155%	107%	400%	320%

<그림 3> 2022년 재생에너지별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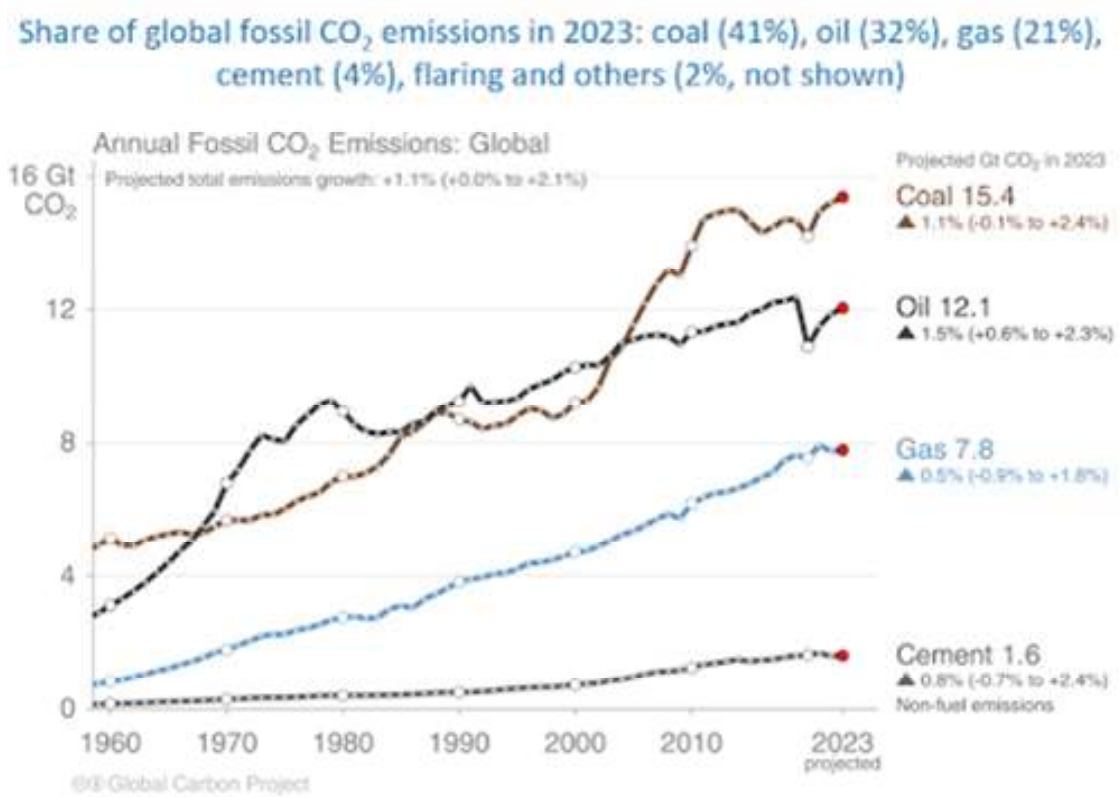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재생에너지보급통계

5) 녹색산업 인사이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업협력 이니셔티브, RE100 현황 및 전망”file:///C:/Users/user/Desktop/%EC%8B%A0%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2024_%EB%85%B9%EC%83%89%EC%82%B0%EC%97%85_%EC%9D%B8%EC%82%AC%EC%9D%B4%ED%8A%B8_-_ (Issue_Paper)_%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_%EC%A0%84%ED%99%98%EC%9D%84_%EC%9C%84%ED%95%9C_%EA%B8%B0%EC%97%85%ED%98%91%EB%A0%A5_%EC%9D%B4%EB%8B%88%EC%85%94%ED%8B%B0%EB%8%8C,_RE100_%ED%98%84%ED%99%A9_%EB%B0%8F_%EC%A0%84%EB%A7%9D.pdf

2. 한국의 넷제로(Net-Zero) 전략

2023년 11월 30일 개최됐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140여개 이상의 국가가 탄소중립 선언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다시 세우도록 요구받았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각 국가들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온도 제한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에 43%, 2035년에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COP28 보고서는 2023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409억 톤으로 추산했다. [표 2]에 의하면 전년 대비 석탄(1.1%), 석유(1.5%), 가스(0.5%)의 글로벌 배출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표 2> 세계 탄소 배출량 비중⁶⁾



6) <https://globalcarbonbudget.org/> 2023년 탄소 배출량 비중에서 석탄(Coal), 석유(Oil), 가스(Gas)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아닌 탈화석 연료 전환(transition away)을 선택했다. 전환은 퇴출보다는 완화된 표현으로 10년 안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산유국의 반대가 작용했다. 한국을 비롯한 123개국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서약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개선하는 데는 합의했다. COP28 합의안은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은 2024년부터 격년마다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달성 경과 등의 정보가 담겨져있다. 2024년 12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당사국이 첫 번째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국내 최대의 넷제로 정보 플랫폼인 ‘넷제로 코리아’를 출시했다. 이 플랫폼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배출량, 이니셔티브, 추가행동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재는 넷제로 목표 달성 시한을 101개 금융기관 및 기업 중 약 60%(61곳)가 2050년으로 삼았다. 일부 기업은 목표 달성 연도를 2050년보다 더 이른 시점으로 설정했다. 아모레퍼시픽과 SK 스페셜티는 2030년, 2035년부터 2039년 사이로 설정한 기업은 4곳으로 삼성SDS, SK가스, SK디스커버리,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다.

III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넷제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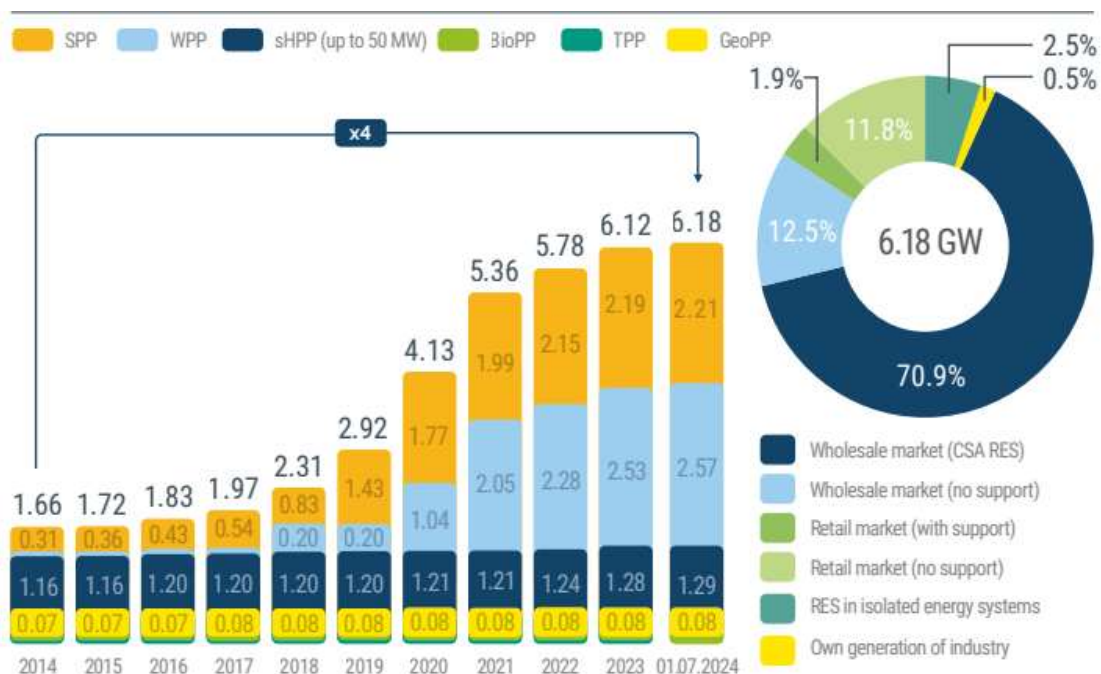
1.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러시아는 넓은 영토만큼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에 머물고 있으나 2030년까지 4.9%까지 확대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전통적 에너지인 원유와 가스, 우라늄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이 발전해 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 구조 전환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2024년 10월 1일 기준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총 용량은 6,23MW로 러시아 연방 전체 100개의 발전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 태양력 발전-2,3MW(70개 시설), 풍력 발전단지-2,60MW(25개 시설), 소규모 수력 발전단지-1.3GW(5개 소)이며, 설치 용량 기준으로는 스타브로폴 지역이 선두이다. 2024년 10월 현재 러시아 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6.23GW이다. 풍력(2.6GW), 태양력(2.3GW), 소규모 수력(1.3GW), 2022년 현재 러시아 UES의

전력 소비량에서 RES CSA(ДПМ ВИЭ)의 틀 내에서 태양열, 풍력 및 소규모 수력발전 시설의 점유율은 1.72%이다. 2024년 1월~10월까지 RES CSA 프레임워크 내에 구축된 RES 발전 시설을 통한 전력생산은 52억 kWh이며 러시아 UES의 총 전력 소비량에서 RES CSA가 차지하는 비중은 0.80%이다. 발전소의 평균 설비용량 활용률(IUR)은 태양력 발전-16.4%, 풍력 발전단지-31.0%, 소규모 수력발전단지-51.7%이다. 이외에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조력 에너지, 지열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발전소가 있으며 총 설비용량은 100MW이다.⁷⁾

<표 3> 2024년 러시아 재생에너지(CSA RES)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 설비용량(GW)⁸⁾



Source: RREDA, SO UPS JSC, NP Market Council, Association "Hydropower of Russia".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발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수력발전 협회(International Hydropower Association)는 러시아의 수력발전 경제적 잠재력이 852TWh로 세계 2위의 수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에 비하여 약 20%만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수력자원의 80%가 전기수요가 적은 시베리아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과 기존의 수력발전소 현대화 작업을 통하여 발전용량을 증대하고 있다.

7) “Статистика ВИЭ”, Ассоциация развития возобновляемой энергетики(АРВЭ), <https://rreda.ru/industry/statistics/> (검색일: 2023.09.20).

8) “RUSSIAN RENEWABLE ENERGY MARKET.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ROSPECTS”(2024), p. 8. https://rreda.ru/upload/iblock/6d8/80xgeyx59j8o4hjeup6uchvstbqdimew/202408_RREDA_annual_RES_report_EN.pdf (검색일: 2024.11.20).

바이오 에너지 분야는 러시아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우드펠릿 등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러시아의 우드펠릿은 연간 약 300만 톤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스크 시가 생산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2. 러시아의 넷제로 전략

2021년 러시아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사회경제발전전략을 승인했다. 목표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수준보다 60%, 1990년 수준보다 80% 감축할 것을 가정하여 저탄소 개발전략을 기획했으며, 이 계획대로라면 2060년 러시아는 넷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 계획 달성을 위하여 2022~2030년까지 GDP의 약 1%, 2031~2050년까지 GDP의 최대 1.5%~2%를 투자한다. 러시아 경제의 탈탄소 조치로 저탄소 혹은 무탄소 기술의 도입과 2차 에너지 자원 사용 촉진, 세금, 관세, 예산정책 변경이 담겨있으며, 녹색금융과 산림 및 기타 생태계의 탄소 흡수능력, 온실가스 포집, 이용, 재활용 기술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⁹⁾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하여 2021년 10월 정부의 승인을 받은 러시아 사회경제발전 전략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을 2019년 대비 2.5배인 6억 3천만 톤을 줄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경제개발부 제1차관 Ilya Torosov는 전략이 수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방 저탄소 기술로 러시아의 접근이 방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개발부는 중국과 인도와 함께 기후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⁰⁾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국장인 Irina Petrunina는 세계 숲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기후 조절에서 산림의 역할"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는 2050년까지 저탄소 개발전략을 위하여 산림 흡수 능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¹¹⁾

러시아는 기후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산림의 흡수 능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산림자원의 20%가 러시아에 있으며 이는 국가 기후 자산이다. 숲은 온실가스 배출을 흡수함과 동시에 적응 효과, 생물다양성 보전, 토지 황폐화 방지에 기여한다.

온실가스 균형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러시아 산림의 흡수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계산이 필요하다. 2022년에는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감독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러시아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기본 임무는

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твердило долгосрочную стратегию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https://xn--80aapampemcchfmo7a3c9ehj.xn--plai/news/pravitelstvo-utverdilo-dolgosrochnuyu-strategiyu-nizkouglerodnogo-razvitiya-rossii/> (검색일: 2024.12.01).

10) "Стратегия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будет пересмотрена из-за санкций" <https://www.kommersant.ru/doc/5839349> (검색일: 2024.11.10).

11)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поглощающая способ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лесов поможет достичь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https://economy.gov.ru/material/news/minekonomrazvitiya_pogloshchayushchaya_sposobnost_rossiyskih_lesov_pomozhet_dostich_uglerodnoy_neytralnosti.html (검색일: 2024.11.10).

러시아 지구 기후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며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 무엇보다도 지역적 기후 변화, 세계 해양 주요 지역의 기후 특성, 러시아 생태계의 흡수 능력을 포함한 육상 생태계의 온실가스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러시아는 이 시스템을 통해 2022년 러시아 생태계 CO₂ 흡수량이 7억 2,220만 톤이며 2021년에 비해 2022년 CO₂ 배출량이 8억 3,680만 톤으로 예상보다 51% 적다고 밝혔다.¹²⁾

과학 컨소시엄 "RHYTHM Carbon"은 "러시아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6개 컨소시엄 중 하나이며 RITM Carbon 컨소시엄은 숲, 툰드라, 대초원, 초원, 습지, 농경지 및 수역을 포함하는 육상 생태계의 탄소 저장고와 온실가스 흐름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지상 측정, 원격 감지 및 수학적 모델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컨소시엄 과학자들은 러시아 육상 생태계의 탄소 저장소와 온실가스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및 분석하기 위한 통합 정보 및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실험 재료 과학 센터 소장 Natalya Lukina가 강조했다.¹³⁾

2023년에는 '러시아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 창설의 일환으로 지구의 기후 모델을 개선하고,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계절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모델 블록을 개발했으며, 5개 지역에 영구 동토층 관측 지점을 개설했다. 러시아 연방의, 러시아 건조 지역의 사막화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 시작되었다 (14개 지역에 테스트 사이트 생성).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테스트 사이트와 150개 모니터링 시험 플롯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산림 및 기타 육상 생태계의 탄소 저장량 및 온실가스 흡수 평가.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5~2030년 프로젝트 시행 2단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가 현재와 같이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유 가스 중심의 에너지 개발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은 원유나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 개발의 보완적 개념이다. 현재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은 러시아 에너지 관련 메인스트림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에너지 전략 2035' 등에 나타난 러시아의 중기 에너지 전략의 기조를 보면 여전히 전통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 전략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대에 머물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를 4.9%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생산 잠재력인 1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¹⁴⁾

12)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бизнес у нас в стране работает осознанно,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https://mustread.kept.ru/interviews/my-ishkhodim-iz-togo-chto-biznes-u-nas-v-strane-rabotaet-osoznanno-s-ponimaniem-otvetstvennosti/>

13) 위의 글

IV 한국과 러시아 간 넷제로 협력

1.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시장

한국과 러시아와의 넷제로 전략에서 가장 유용한 부분이 탄소권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의무 감축국들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토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 메커니즘은 탄소배출권거래(ET, Emissions Trading),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행위이다. 여기서 탄소배출권은 할당량과 크레딧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럽연합 지역은 할당량(EUA)과 크레딧(CER/ERU)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BAU, Business-As-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¹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 약 109억 달러에 달했으며, 연평균 108% 수준의 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에는 1,437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배출총량은 다시 각 의무 감축 대상(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게 할당량(allowance) 형태로 무상 지급 또는 경매되며, 각 의무 감축 주체는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기간 말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allowance)을 국가에 제출(surrender)한다. 각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며,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다음 해 사용을 위해 예치(banking)할 수 있다. 만일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초과 배출량 1톤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 거래 중개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 사이에 거래되는데, 이러한 거래 시장을 할당량 시장이라 한다. 크레딧 시장은 할당량 시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할당량 시장에 할당량과 같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크레딧 시장은 베이스라인 및 크레딧(baseline-and-credit)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특별한 노력 없이 현재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BAU) 예상되는 베이스라인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때, 이 저감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크레딧을 발행해 주는 방식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및 탄소시장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한국의 경우 부족한 탄소 크레딧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14)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 Energy Statistics 2020", 2020 July, pp. 2~7.

15) 안승광,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 <https://www.cgs.or.kr/CGSDownload/eBook/REV/C201009003.pdf>

2. 한러 수소 협력

2020년 6월 9일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의 러시아 연방의 에너지 전략'을 승인했다. 2021년 4월 5일에는 2024년부터 2050년까지의 러시아 수소 정책에 대한 러시아 정부 훈령을 발효했다. 이는 러시아 연방 2035 에너지 전략을 수소경제 발전 측면에서 보완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¹⁶⁾ 다만 '2035 에너지 전략'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수소 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수소생산과 소비를 창출하여 러시아를 수소생산 및 수출에서 세계적 리더 중 하나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수소의 수출 자원화 외에도 천연가스 사용의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수소와 메탄-수소 혼합물의 생산에도 관심을 보인다. 에너지 관련 혁신기술개발의 주요 대상으로는 수소 동력 자동차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를, 저탄소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기술로는 수소 에너지 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 운반체가 되어 탄화수소(화석연료) 에너지 운반체를 대체하여 '수소경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러시아가 상당한 수소생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태양력과 수력, 조력,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가 재생에너지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한국과 러시아가 수소경제의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 상호보완한다면 충분히 그 효과를 볼 것이다. 한국은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수소 관련 기술이 앞서 있으며 러시아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막대한 블루 수소와 수소 저장 운송 기술이 발달해 있다.

V 결론

미국의 에너지 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의 문제로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부문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언급했다. 한국 수출의 20%에 해당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탄소 절감은 산업경쟁력 유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24년 주요 글로벌 이슈가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대선과 유럽의 의회 선거가 친환경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금리의 인상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고유가는 이와 반대로 재생에너지 수요증가와 투자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가 상승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촉진하나 부정적인 영향도 존

16) 김학기 외(2020)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 협력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85쪽.

재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재생에너지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하여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IRA나 유럽연합의 NZIA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수입 혹은 재생에너지 쿼터를 도입하거나 (ETS)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기반 접근 제도로 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부분을 충족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및 탄소시장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한국의 경우 부족한 탄소 크레딧을 러시아로부터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력과 수력, 조력,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가 재생에너지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한국과 러시아가 수소경제의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 상호보완한다면 충분히 그 효과를 볼 것이다.

How Did the Authoritarian-Bureaucrats in Russia Transform the Institution into Personal Power

연담린(한신대)

I Introduction

In Russia today, authoritarian-bureaucrats are being reproduced in a revivalist scenario of the Soviet-era nomenklatura system, and they are influenced by values, norms, and identities that can be considered legacies of communism (Blackburn and Khlevnyuk 2024, 154-173; Maslovskii 2015; Kryshtanovskaya and White 1996, 711-733). Moreover, post-Soviet Russia is subject to a new variant of communism, namely, an authoritarian regime (Lewis 2020; McFaul 2006, 40-45; Hedlund 2006, 775-801). Russia's authoritarianism can be characterized as both a bureaucratic authoritarian regime (Shevtsova 2004, 67-77; Everett 2022, 47-67) and an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¹⁾ The core problem of such authoritarian regime states is that institutions become “empowermentalized,” that is, rather than being powerful themselves, they become tools for elite power. Since the end of the Soviet regime, Russia’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evolved differently from those of Western democracies. Among these differences, the legal foundations of Russia'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e not as precisely defined. What is intriguing is that despite such institutional deficiencies, major powers like Russia manage to maintain their regimes without experiencing significant political upheaval. Perhaps in less institutionalized countries, political phenomena, namely the exercise of power by individual elites, fills the vacuum left by weak institutions. Russia has had a strong, centralized authoritarian regime throughout its history, including the Imperial period and the Soviet period, when the Communist Party enforced a single-party system. Indeed, due to Russia’s centralized, planned economy and single-party rule by the Communist Party, functional differentiation remained at a rudimentary level. The notion of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continues to dominate contemporary political discourse in Russia (Hellie 2005, 88-112). The current ruling party, United Russia, has evolved

1) Wahman et al. distinguish authoritarian regimes into those with elected legislatures and those without, further categorizing the former into no-party, one-party, and multi-party systems. Russia is classified as a multi-party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Wahman, Teorellb, and Hadenius 2013, 26).

to resemble the Soviet-era Communist Party, reverting the country to a party-state system model. Russia's opposition parties have been relegated to the status of “in-system parties” and are utilized by the Kremlin to maintain what is essentially a one-party parliamentary system dominated by the ruling party (Remington 2016, 178; Stanovaya 2021). United Russia was initially conceived as a “project party” (Sakwa 2012, 312),²⁾ but has evolved into an ideological party (Sakwa 2007; White 2008).

Authoritarian regimes use elections to solidify their power while reinforcing the legitimacy and legality of their rule. According to Andreas Schedler, in a typical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 there are “two levels of struggle” between the ruler and the opposition, the contestation of the rules of the game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parties within that game (Schedler 2013, 112-140).³⁾ Indeed, in the case of Russia, it can be said that this pattern is being replicated. A tragic aspect of this phenomenon is that in modern authoritarian states, electoral manipulation is being taken to new levels.⁴⁾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appointment of Putin loyalists as acting governors, whose position is then made official via gubernatorial elections, is being used to consolidate the authoritarian regime in Russia. The article examines the recruitment of administrative reserve personnel (ARP),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governors in particular, and the gubernatorial election process in Russia. I argue that these phenomena represent processes of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⁵⁾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⁶⁾ in the Russian political system. Like research o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s and political elites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this study’s analysis may be specific to its context. However, while based on Russian particularities, it aims to demonstrate

2) Sakwa defines United Russia (UR) as a project party, arguing that while UR dominates the electoral market and has become a more programmatic organization at the core of the dominant party system, it remains firmly subordinate to the dominant power order.

3) In electoral authoritarianism, elections are considered a “two-level” game where parties compete over voter preferences (the game level) while also competing over institutional rules (the meta-game level).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are the main protagonists of this “nested” game. The two levels of the electoral authoritarian game interact in potentially self-destructive ways.

4) For a discussion of authoritarian regimes’ use of elections, see Schedler (2006).

5) O’Donnell has offered revisions to the conceptual and comparative agenda of the study of polyarch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informally institutionalized. He suggests that in authoritarian regimes, widely prevalent particularism, namely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coexists with formal rules and institutions, and together they reflect the “full institutional package” of polyarchy (O’Donnell 1996, 34-51).

6) O’Donnell, who advanced the theory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has argued that the emergence of authoritarian politics is a structural response to the economic instability and social unrest caused by the political activation that accompanies radical modernization. This theory perceives authoritarian regimes not as temporary deviations or pathologies that occur during a process of democratization but as a continuous type of political system in themselves (O’Donnell 1979, 285-318).

the trajectory of authoritarian bureaucratization within a conceptual framework that may apply more universally. Therefore, beyond simply categorizing Russia as authoritarian or as a dictatorship, this study positions it within a matrix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both its governance ideology and the background and role of political elites as micro-actors within macro-level structures. The empirical evidence demonstrates that Russia is governed by trained bureaucrats who minimize competition and maintain the stable reproduction of power, rather than by politicians who are elected via legitimate and transparent elections characterized by autonomous citizen participation and fair competition. It also illustrates how the rol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in Russia and the nature of Russian governance contribute to its unique form of bureaucracy.

II Bureaucracy and the iron law of oligarchy

Marx suggested that bureaucratic state administration, even if operated with the best intentions, principles, and intellect, cannot perform a substantive role unless it limits bureaucracy itself. He argued that actors within a bureaucratic regime operate based on their own particular interests, while claiming that these actions are in the public or collective interest, and that the universal spirit of bureaucracy is secrecy; internally it is secured by a hierarchical system and externally it appears as an exclusive corporate entity, ensuring safety through mysticism (Marx 1970, 290–298). Furthermore, bureaucracy concentrates power among leaders, who typically wield control over sanctions and rewards. They tend to favor followers who echo their own views, inevitably leading to an authoritarian system. The ruling class controls the flow of information, allowing some to filter through while censoring that which they hope the general public will not perceive. They often invest significant resources to garner public approval of their viewpoints. Such a structure, once formed, may coexist with society while also creating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end, the general public receives instructions to obey authoritarian figures. It has little autonomy, and merely waits for the leader's judgment and instructions. This phenomenon eventually embodies a tendency known as the iron law of oligarchy (Michels 1962, 391), which is reflected in Russia's reliance on political elites.

III Empowerment: Authoritarian-bureaucrats in Russia

In Russia, bureaucracy has been used to reinforce the authoritarian regime. Following the dismantling of Soviet Russia, administrative officials began to infiltrate the leadership and hierarchies of local government (Huskey 2012, 175-185). This phenomenon originated from the strong, centralized control system based on the authoritarian power of the communist regime. This political culture persists in Russia's bureaucracy to this day, with authority and decision-making powers concentrated at the top (Neil 2000) and officials who function as authoritarian bureaucrats.

<Table 1>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in Russia

Concept Type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al structur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Path - dependency	Political sustainability
De-institutionalization	increases	decreases	decreases	decreases
Re-institutionalization	decreases	increases	increases	increases

The problem of power concentrating at the top is related to the trend in Russia's political structure of de-institutionalization over re-institutionalization. In the early 1990s, Yegor Gaidar, Acting Prime Minister appointed by President Boris Yeltsin, led efforts to reform the economy and the Russian administrative system, and to create a legal framework for governance more closely aligned with Western models (Trenin 2001), but more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toward de-institutionalization that can be attributed to the dominance of powerful individuals over institutions. Yeltsin's failure to institutionally support administrative reforms led to the concentration of decision-making authority in the hands of senior bureaucrats. The attempts at reform were not properly communicated to the bureaucrat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decisions that were driven more by bureaucratic discretion than by legal governance.⁷⁾ Path dependence has led to

the persistence of this phenomenon in the Putin era. Table 1 depicts how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me in Russia is influenced by quantitative aspects of the political structure,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the presence of path dependence. The centralization of power through re-institutionalization further strengthens the regime, enhancing its sustainability.

How did the tradition of authoritarian-bureaucrats emerge in Russia? During the Soviet era, administrative officials tended to emerge as political figures. In other words, those with desirable characteristics such as loyalty were trained as bureaucrats, given positions as ministers in the cabinet, and granted status as key Communist Party members (Huskey 2010, 365). For instance, Andrei Gromyko served a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1957–1985) and Chairma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Soviet (1985–1988), and was a member of the Politburo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1973–1988; Torchinov and Leontyuk 2000).

During the Soviet era, the Communist Party controlled important policy decisions in the administration. Additionally, all government processes required the approval of the Party. The system responsible for training and appointing elites was called the *nomenklatura* system, and individuals listed in the *nomenklatura* register were referred to as the *nomenklatura* class (Voslensky 1984). Reflecting historical continuity, this system continues to influence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Russian government. In the Russian bureaucratic system, political bureaucrats are at the top of the hierarchy, representing the state and managing large national organizations (Mart'ianov 2007, 67–72). Eugene Huskey has also pointed out that the principle of one party, a Soviet era rule, influences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s of Russia's current political parties (Huskey 2006). In post-Soviet Russia, the country pursued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Weber's bureaucratic model. For example, under Yeltsin, a merit-based recruitment system and a personnel pool were established based on presidential executive orders, but these institutions were not sufficiently developed. The administrative reforms were applied only to the upper echel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rather than all government departments. Moreover, only 48% of Yeltsin's presidential executive orders were immediately implemented; the rest were delayed in their implementation. This led to what is commonly known as “red tape,” or the phenomenon of “deficiency in understanding” (Tompson 2007).

7) Solomon has argued that in the first 10 years following the form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laws were not properly formulated. For example, various bills at different levels of legislation contradicted each other. Additionally, there were discrepancies between presidential decrees and government directives. As a consequence, bureaucrats largely refrained from immediate application of the law (Solomon 2008, 115–135).

Putin abandoned these attempts at institutionalization, instead establishing a pro-government system aimed at consolidating power, including via the recruitment of bureaucrats. In the early years of Putin's presidency, he established a power base made up of professional bureaucrats from Saint Petersburg and individuals from the intelligence agencies who exhibited strong loyalty. In particular, he relied on the economic and security ministries as the foundation that pushed forward de-institutionalizing reforms. Thus, from the early days of his presidency, Putin appointed individuals from Saint Petersburg to key government positions, naming Alexei Kudrin Deputy Prime Minister, German Gref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and Dmitry Medvedev, Igori Sechin, and Dmitry Kozak to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while also placing individuals from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FSB) in key positions of power, such as Sergei Ivanov, who served as Secretary of the Security Council. In a partial reshuffle on March 28, 2001, Putin appointed Sergei Ivanov as Defense Minister, Boris Gryzlov as Interior Minister, Vladimir Rushailo as Secretary of the Security Council, Alexander Rumyantsev as Minister of Atomic Energy, and Mikhail Fradkov as Head of the Federal Tax Police Service. All of these men were close associates of Putin at the time. From these facts, it can be inferred that Russia under Putin has lacked transparent competition for public office, and most appointments have been based on personal or familial relationships (Gimpelson, Magun, and Brym 2009, 231-252).

Putin's appointments of close associates reflect a new Russian political system, in which new groups of elites have begun to emerge. These groups have established rules for inheriting and distributing power, solidifying the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Russian politics in an oligarchic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Table 2> Distribution of Elite Types within Putin's Administration

Type Category	Technocrats	Political generalists	Siloviki	Administrative officials	Corporate bureaucrats	Others	Total
Number of elites	54	22	70 (26) ^a	154	78 (15) ^b	12	390
Percentage	13.85	5.64	17.95	39.48	20	3.08	100

^aUnder Siloviki,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present officials from the KGB, FSB, or SVR.

^bUnder Corporate bureaucrats,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present Silovarchs (State Oligarchs).

Note: Elite Database from the Eurasia Institute of Hanshin University.⁸⁾

Table 2 represents the classification of elite types among high-ranking administrative officials in the federal government during Putin's regime.⁹⁾ There i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administrative officials, 39.48%. However, the bureaucratization of Russia is not derived from this high proportion of administrative officials alone.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bureaucrats, five other elite groups are increasingly becoming bureaucratized, thus the authoritarian bureaucratization of Russia is becoming more pronounced.

8) Available at <http://hei.re.kr/HANSHIN>.

9) The analysis period covers Putin's first through fourth terms (including his time as Prime Minister), from May 7, 2000, to May 6, 2024, and the sample for analysis consisted of a total of 390 individuals. The elites included members of the Cabinet (Prime Minister,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s, Deputy Ministers),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Heads and Deputy Heads), the President's plenipotentiary representative (vice representativ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directors of agencies. The elite types a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technocrats, political generalists, siloviki, administrative officials, corporate bureaucrats, and others.

<Table 3> Makeup of Putin's Elite

Sakwa (2007)	Bremmer & Charap(2006)	Dam-Rin Youn (2023) ¹⁰⁾		
Liberal group from Saint Petersburg	Liberal group	Liberal group from Saint Petersburg	Group 1	The elite who worked in Saint Petersburg administration with Putin
			Group 2	The elite appointed by Putin from Saint Petersburg
	Technocrats		Group 3	The elite from Saint Petersburg who entered the central political arena before Putin
Siloviki	Siloviki	Siloviki	Force and security apparatus elites from the military, interior ministry, Federal Security Service, and the judiciary	
Family Oligarchs	Family Oligarchs	Silovarchs	State Oligarchs compliant with the Putin Regime	
		Administrative Bureaucrats	Elite bureaucrats from the administration who built connections with Putin as he entered the central political arena	

The Siloviki faction in particular, which has grown into the most powerful group during Putin's tenure, has led Russia's bureaucratization. As the administration has expanded, political elites have sought to increase its efficiency by relying on bureaucracy. For a bureaucratic state to function effectively, power must be concentrated at the center, and it ultimately falls into the hands of a few. These few, the oligarchs, employ all necessary means to preserve and increase their power (Nodia 2020, 75-87). Around 2003, Putin began to neutralize resistance to the oligarchs, making increasingly bold moves such as appointing his close associates to key leadership roles in government. Putin's appointees formed an elite group that has grown into the ruling class of Russia today. Whether in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10) The author classified Russian political elite groups according to the timing of their interaction or political relationship with Putin, taking into account the extent of their proximity to and influence on him (Youn 2023, 71-115).

or an authoritarian regime, the control of power by a minority inevitably leads to the authoritarianism of political elites, given that they control the policy-making process, sometimes in opposition to the majority of the populace. Furthermore, according to elitism theorists,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ystem or social operating principles, all societies are determined by the attributes of their elite, and all purposes of society are set and manipulated by the elite (Prewitt and Stone 1973, 3). Table 3 vividly illustrates that in Putin's administration, power is concentrated among groups of elites with whom he has a connection.

IV Recruitment of administrative reserve personnel

The system for recruiting administrative reserve personnel (ARP) can be cited as a mechanism driving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ization of the Putin regime. It has two notable characteristics. First, the influence of Putin's elite group remains a significant factor in elite recruitment. Second, the Soviet-era nomenklatura system is being reproduced within the current Putin regime, resulting in a "quasi-nomenklatura system." In addition, it's important to note that while ARP is officially meant to function as an institution reflecting objectivity or meritocracy, it operates in reality as a sort of "elite laundering" for Putin's favorites. In the end, ARP drives the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within a quasi-nomenklatura system. This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as the prevalence of informal rules and norms over the formal institutions of political regimes (Merkel and Croissant 2000) is utilized as a useful institutional tool for producing Putin's elite.

Russia places significant emphasis on elite recruitment. While every nation has elites who wield more influence than the general population, Russia directs substantial policy attention and resources toward this group. Indeed, as a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Russia assigns special significance to the continuous recruitment of competent elites as a key human resource and driving force for the nation's internal development goals and its responses to external challenges.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the country's political elite selection and training program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12. The selection of professional administrative officials is overseen by the Commission for Civil Service and Management Personnel Pool (Komissiya po voprosam gosudarstvennoi sluzhby i rezerva upravlencheskikh kadrov, hereafter the Personnel Commission), a body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Presidential Civil Service, Personnel and Anti-Corruption Directorate (Upravleniye

Prezidenta Rossiyskoi Federatsii po voprosam gosudarstvennoy sluzhby, kadrov i protivodeystviya korruptsii, hereafter the Personnel Directorate) within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supports the work of the Personnel Commission. The main tasks of the Personnel Commission include proposing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improvements to the Russian civil service system to the President, formulating national policies on the selection, training,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ARP, and developing strategies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ARP (Kremlin 2024).

ARP are currently recruited into three units (chast’):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ve Reserve Personnel (Prezidentskii rezerv upravlencheskikh kadrov), the Federal Administrative Reserve Personnel (Federal’nyi rezerv upravlencheskikh kadrov), and the Regional Administrative Reserve Personnel (Regional’nyi rezerv upravlencheskikh kadrov). They are also divided into three levels (uroven’): the highest (vysshii), the standard (bazovyi), and the next generation (perspektivnyi). On June 26, 2023, the “Decree on the Federal Reserve Personnel of the Federal State Bodies, whose activities are supervised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as amended. According to this decree, federal ARP are selected by the Personnel Directorate,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federal government agencies who have the authority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¹¹⁾ It also states that senior officers and high-ranking commanders may be included in military positions. Then, on October 12, 2023, the Kremlin announced that it had initiated reforms related to the federal ARP. These reforms are being overseen by the Personnel Commission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ial aide Dmitry Mironov. The revised federal ARP include deputy federal ministers, heads of federal administrative bodies, and federal agency chiefs and deputy chiefs,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local governments and state-owned enterprises will also be included. Additionally, recommendations for the federal ARP can only be made by officials of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heads of federal administrative bodies, and governors (RIA Novosti 2023).

Among the three units of ARP, it can be said that the presidential ARP form the core. The first list of presidential ARP was approved and announced by presidential decree on December 4, 2014, and it has been periodically updated since then. The most recent list, in 2020, included 138 individual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representative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from local governments, individuals from the business sector,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fields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social organizations. These groups include

11) This legislation was first enacted on December 13, 2012 (Kremlin 2023).

members of the State Duma and the Federation Council, various levels of managers from federal institutions, representatives from Russian federal subjects and local governments, and representatives from busines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Kremlin 2020).

<Table 4> Presidential Administrative Reserve Perso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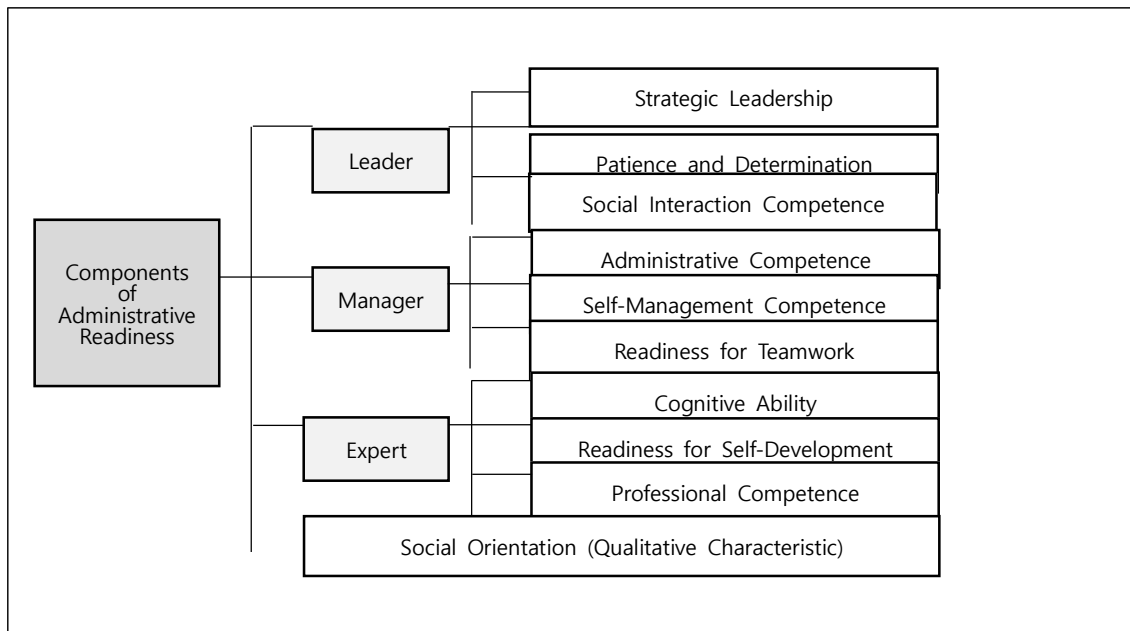
Year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Personnel	144	140	135	143	142	138

Note: Commission for Civil Service and Management Personnel Pool.

<http://www.kremlin.ru/structure/commissions#institution-3>

The selection of personnel is officially based on ten closely related indicators of candidate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readiness as leaders, managers, or experts.

<Figure 1> Indicators of a Candidate's Administrative Readiness in Terms of Metacompetencies



Note: Sheburakov (2019,151)

The ARP selected based on these criteria undergo a process of education and retraining. The ongoing “Administrative Reserve Personnel Education and Retraining (2010–2024)” program creat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1, 2008. The program is overseen by 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Mintru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Since this program is set to conclude in 2024, revised legislation is expected to address the education process for the next cohort of personnel. The institution responsible for educating the ARP selected through this program is the Russian Presidential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RANEPА). The RANEPА is supported by government funding and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education for various levels of elites. Furthermore, the Highe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Vysshaya shkola gosudarstvennogo upravleniya) at the RANEPА, which was established in 2017 and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overnors’ School (shkola gubernatorov), provides a special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ARP.

The recruitment process is meant not only to develop the personnel leading the national administration, but also to address modern personnel policy challenges in institutions of power at the qualitative level. Considering the purpose, types, approaches, and principles of the ARP composition is crucial, since these personnel are expected to undertake administrative tasks across various state institutions within the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Sheburakov 2019, 148). This can be considered strategic behavior on the part of those with vested interests in maintaining the Putin regime. There are a few implications of this recruitment process. First, path dependency has led to the straightforward reproduction of elit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quasi-nomenklatura system. Secondly, the selection of elites based on characteristics such as loyalty to Putin reinforces the authoritarian regime.

The elite recruitment system, which began in earnest during Putin’s third term, can be considered a defining element of his regime. During the Yeltsin era, widespread societal criticism of the elite, including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e (Huygen 2012, 63–73), led to a greater focus on recruiting competent individuals who exhibited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and loyalty. Furthermore, the urgent need to eliminate “ineffective governance,” the most crucial factor in regime stability, became apparent (Zimmerman 2013). While recruitment of ARP is ostensibly based on competence, political elites, especially Siloviki, have systematically developed structures that reinforce their own power.¹²⁾ Furthermore, this process under Putin and the Chekists within Russia’s recruitment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its focus on identifying individual leaders who can be trusted, rather than employing a sophisticated governance strategy (Soldatov and Rochlitz 2018, 96).

12) Refer to Huskey (2010) for more on the incompetence and power-seeking of the Siloviki.

V Putin's appointment of governors and the elections that legitimize them

The following analysis shows a continuation of the pattern of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in which Putin selects bureaucrats known for their competence and loyalty to serve as regional leaders. They are trained via the ARP recruitment process and named temporary acting governors, and elections then legitimize their leadership. I examine background information on gubernatorial candidates in the 2023 elections and their connections with Putin and United Russia. The placement of these Putin loyalists in important local positions indicates how authoritarian bureaucrats are used to reinforce the regime.

Putin responded to the decentralized 1990s political system he inherited by establishing a strong federalist structure (Graham 2002, 39–61). Yeltsin's “take as much sovereignty as you can swallow” and the “parade of sovereignties” had led to excessive decentralization that threatened the integ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Slider 2003, 123–140). To overcome this decentralization, Putin aggressively targeted anti-federal policies,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unitary state (Petrov 2003, 237–258).

Putin's power vertical, formed through federalism and recentralization, is one of his representative achievements (Gel'man and Ryzhenkov 2011, 449–465). During his regime, leaders of local government have become pivotal figures within the federal system. While residents of each region nominally elect governors to lead their local governments, in reality, Putin's temporary appointments of acting governors guide the elections to the conclusions he desires. Especially for Putin, who considers “Russian federalism” a national policy, maintaining central government control over regional politics is crucial. The vertical power structure Putin has established relies on his control over regional elites, which has further solidified the principles of federalism (Ross 2004, 155). These principles, conceptualized as an ideology based on “Russian conservatism,”¹³⁾ emphasize order and stability, and can be seen as a form of state-centric nationalism that promotes Russia's status as a great power (Ziegler 2016, 555–573).

During Putin's first term, he established the federal system, leading to the formation of 83 new federal subjects in the Russian Federation. Given the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and the war in Ukraine which began in 2022, as of 2024 the contested total of federal subjects stands at 89. In September 2023,

13) At the 11th United Russia Party Congress held in Saint Petersburg on November 21, 2009, Putin officially adopted “Russian conservatism” as the party's ideology (Mezhuev 2013, 115).

elections were held in 85 of these 89 federal subjects, with the exception of the Kabardino-Balkar Republic, Mari El Republic, Saint Petersburg, and Yamalo-Nenets Autonomous Okrug.¹⁴⁾ Elections were even held in the annexed territories of the Donetsk People's Republic, Luhansk People's Republic, Zaporizhzhia Oblast, and Kherson Oblast, indicating these regions' current subordination to Russia.¹⁵⁾

<표 5> Results of the September 2023 Gubernatorial Elections¹⁶⁾

NO	Federal Subjects	Elected Candidates	Affiliated Parties	Percentage of Votes(%)	Voter Turnout(%)
1	Chukotka Autonomous Okrug	V.G. Kuznetsov	United Russia	72.34	53.48
2	Smolensk Oblast	V.N. Anokhin	United Russia	86.62	33.71
3	Omsk Oblast	V.P. Khotsenko	United Russia	76.33	34.51
4	Krasnoyarsk Krai	M.M. Kotyukov	United Russia	70.21	35.55
5	Samara Oblast	D.I. Azarov	United Russia	83.83	53.79
6	Nizhny Novgorod Oblast	G.S. Nikitin	United Russia	82.82	56.01
7	Primorsky Krai	O.N. Kozhemyako	United Russia	72.78	45.58
8	Oryol Oblast	A.E. Klychkov	Communist Party	82.09	55.98

14) The 7th Saint Petersburg Legislative Assembly was formed in 2021, and the elections for the 8th Assembly will be held in 2026. The current governor of Saint Petersburg, Alexander Beglov, began his term on September 18, 2019, and it will end in 2024. The current 7th Parliament of the Kabardino-Balkarian Republic has been active since 2019 and the members' terms will be complete in 2024. The term of the Head, Kazbek Kokov, runs from October 3, 2019, to October 2, 2024. The Mari El Republic only held by-elections for its parliament, while the election of the Head of Administration of the 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was conducted through a vote in the council.

15) The heads of the four newly incorporated regions were appointed on October 4, 2022, and in this election, only the parliamentary deputies were elected. The heads of these regions are D.V. Pushilin, L.I. Pasechnik, E.V. Balitsky, and V.V. Saldo.

16) The head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federal subjects) in Russia have different titles, but in this study, they are uniformly referred to as "governors."

How Did the Authoritarian-Bureaucrats 33
in Russia Transform the Institution into Personal Power

NO	Federal Subjects	Elected Candidates	Affiliated Parties	Percentage of Votes(%)	Voter Turnout(%)
9	Novosibirsk Oblast	A.A. Travnikov	United Russia	75.72	31.86
10	Ivanovo Oblast	S.S. Voskresensky	United Russia	82.49	33.92
11	Pskov Oblast	M.Yu. Vedernikov	United Russia	86.30	37.80
12	Voronezh Oblast	A.V. Gusev	United Russia	76.83	51.08
13	Kemerovo Oblast	S.E. Tsivilyov	United Russia	85.23	81.01
14	Amur Oblast	V.A. Orlov	United Russia	82.38	38.74
15	Tumen Oblast	A.V. Moor	United Russia	78.77	50.76
16	Magadan Oblast	S.K. Nosov	United Russia	72.39	35.09
17	Yakutia Republic	A.S. Nikolaev	United Russia	75.77	48.41
18	Altai Krai	V.P. Tomenko	United Russia	76.16	31.04
19	Moscow Oblast	A.Yu. Vorobyov	United Russia	83.68	60.53
20	Khakassia Republic	V.O. Konovalov	Communist Party	63.14	39.54
21	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D.A. Artyukhov	United Russia	80.95 (17/21) ^a	-

^a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elected its governor through a parliamentary vote.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present the percentage of votes obtained out of the total seats in the regional assembly.

Not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Russia.

The most notable features of this election were the overwhelming victory of United Russia, and the decrease in voter turnout compared with the 2019 local elections.¹⁷⁾ While United Russia secured an overwhelming victory in this local election, turnout is a key democratic indicator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ersistent low turnout in Russia indicates a significant weakness in its democratic system. Low turnout can be seen as a result of defense or prevention mechanisms by United Russia.¹⁸⁾ While it may indicate a strong strategic aspect of United Russia's electoral tactics, it also threatens the stability of the regime by eroding its legitimacy (Ross 2018, 1).

Due to Putin's reliance on governors to uphold Russian federalism, he selects desirable candidates, who are trained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s ARP program and appointed as temporary acting governors. The governors are known for their youthfulness, competence, professionalism, and loyalty. For example, Oleg Kozhemyako is the only regional leader who has served as governor of four regions, namely Koryak Autonomous Okrug, Amur Oblast, Sakhalin Oblast, and Primorsky Krai. Since 2018, he has led Primorsky Krai, and he started his second term in September 2023. He obtained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from the RANEPA in 2008 and later earned a Ph.D. in economics from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Economics. He has served as the secretary of United Russia's Primorsky Krai Regional Branch since 2019. The Far Eastern region is known as one of the most opposition-minded areas among the federal subjects, and there are frequent anti-government protests there. Therefore, putting leaders with a strong pro-government orientation in place is crucial to strengthening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and authority over this region. In this context, the election of Anton Voloshko, the Deputy Governor, as a member of the regional Assembly in the by-election held on October 27, 2023 carries significant importance. Voloshko had prior experience working as the Deputy Governor of Sakhalin

17) In the election for the heads of 22 federal subjects, United Russia won in 20 regions, with only two (Khakassia Republic and Oryol Oblast) electing governors from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18) Ross argues that the regime employs methods such as low turnout and election manipulation to ensure United Russia's victory, and he believes that this election strategy has helped United Russia secure majorities in all gubernator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Ross 2018, 1-9). Kurbangaleeva argues that in Russia, elections are a crucial ritual for the functioning of the modern political system. Additionally, it is reported that as part of election strategy, the government has devised methods to draw voters to the polls and achieve the desired turnout. Methods include allowing voters to cast their ballots over a period of three days, encouraging citizens to participate by providing transportation to polling stations, and offering incentives such as prizes, all in an effort to achieve the desired turnout (Kurbangaleeva 2023).

Oblast during Kozhemyako's tenure as governor there. After Kozhemyako became the governor of Primorsky Krai, Voloshko transitioned to the Primorsky Krai government and served as Deputy Governor there. He was subsequently elected with 68.80% of the vote in a by-election and will now represent the 21st electoral district of Primorsky Krai, which includes the Kirovsky, Chuguyevsky, and Lesozavodsk districts.¹⁹⁾ On November 29, 2023, he was also elected Chairman of the Primorsky Krai Regional Assembly with 68.68% of the anonymous vote. The election of Voloshko as Chairman can be seen as a signal indicating the executive branch's ability to control the legislative branch. Currently, United Russia holds 22 out of 37 seats in the Primorsky Krai Regional Assembly, and Voloshko received 35 votes during the election for Chairman. Even the opposition Liberal Democratic Party's floor leader, Andrei Andreichenko, acknowledged Voloshko's administrative experience, describing him as “useful for the Assembly.” Furthermore, Voloshko himself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with the executive branch, stating, “The metronome effect in working with the executive branch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at this moment. I aim to strengthen our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and make it more efficient” (PrimaMedia 2023). Voloshko has served as First Deputy Secretary of United Russia’s Primorsky Krai Regional Branch since 2019.

Vitaly Khotsenko, the governor of Omsk Oblast, was elected with 76.33% of the vote in local elections and began his term September 22nd, 2023. Khotsenko is a typical product of the ARP program. He reached the final stage of the “Leaders of Russia” contest (2018–2019) and completed the special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ARP at RANEPA’s Highe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e previously served as the Minister of Energy and Communications of the Stavropol Krai and as the Head of the Regional Industry Policy and Planning Department at the Russian Ministry of Industry. Most experts believe he is capable of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ing Omsk Oblast. In particular, Pavel Danilin, the head of the Russian Political Analysis Center, stated that Khotsenko has “effectively demonstrate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and possesses excellent work experience and a promising future (TASS 2023a).

19) According to Article 4, Section 13 of the Primorsky Krai Law (amended on October 3, 2023), “A 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Primorsky Krai cannot hold any other state position within the Russian Federation, any state position within the constituent ent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y position as a state civil servant, or any position within local self-government bodies, nor can they be a member (representative) of another legislative body.”

Mikhail Kutuykov, the governor of Krasnoyarsk Krai, is also a graduate of the RANEPa's Highe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ving been part of the first cohort who completed the special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ARP. He has served as the Minister of Finance and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Krasnoyarsk Krai, as well as the Deputy Minister of Fina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Minister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Both politicians and political scientists alike point out the multitude of challenges that need to be addressed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Krasnoyarsk Krai. In particular, political scientist Alexei Osipov has suggested that issues such as the resource-based economy, population decline, labor force expansion, and environmental concerns need to be addressed (TASS 2023b).

These are the types of political elites Putin appoints as temporary acting governors. Elections then formalize the governors' positions.²⁰⁾ In the 2023 gubernatorial elections, 20 out of 21 acting governors (95%) were nominated by Putin.²¹⁾ Additionally, 19 of these governors were members of United Russia. Among them, ten were graduates of the Governors' School,²²⁾ and four were part of the presidential ARP.²³⁾ Governors elected in this manner are being utilized in ways that align with the preferen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2023 elections, Sergei Tsivilyov,²⁴⁾ who was re-elected governor of Kemerovo Oblast, was appointed Minister of Energy in Putin's fifth administration. Additionally, Alexei Dyumin, the governor of Tula Oblast, was appointed as a presidential aide. Anton Alikhanov, the governor of Kaliningrad Oblast, was appointed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inpromtorg). Roman Starovoit, the governor of Kursk Oblast, became Minister of Transport. Mikhail Degtyarev, the governor of Khabarovsk Krai, was named Minister of Sports. On May 15, 2024, Putin appointed Ilya Seredyuk, Dmitry

20) Dmitry Mironov, a former Federal Protection Service (FSO) general and head of the Main Directorate of Economic Security and Anti-Corruption within the Interior Ministry, was appointed acting governor of Yaroslavl Oblast in July 2016. Putin's former bodyguard, Alexey Dyumin, was appointed acting governor of Tula Oblast in February 2016. Another of Putin's bodyguards, Evgeny Zinichev, was appointed acting governor of Kaliningrad Oblast in July 2016 (Soldatov and Rochlitz 2018, 93).

21) V.G. Kuznetsov, V.N. Anokhin, V.P. Khotsenko, M.M. Kotyukov, D.I. Azarov, G.S. Nikitin, O.N. Kozhemyako, A.E. Klychkov, A.A. Travnikov, S.S. Voskresensky, M.Yu. Vederikov, A.V. Gusev, S.E. Tsivilyov, V.A. Orlov, A.V. Moor, S.K. Nosov, A.S. Nikolaev, V.P. Tomenko, A.Yu. Vorobyov, D.A. Artyukhov. Despite being from the Russian Communist Party, A.E. Klychkov was appointed as an acting governor by Putin in 2017.

22) V.G. Kuznetsov, V.N. Anokhin, V.P. Khotsenko, G.S. Nikitin, O.N. Kozhemyako, A.A. Travnikov, A.V. Gusev, V.A. Orlov, A.V. Moor, A.S. Nikolaev.

23) M.M. Kotyukov, S.S. Voskresensky, V.A. Orlov, A.V. Moor.

24) Sergei Tsivilyov, a military veteran, is the husband of Anna Tsivilyova (maiden name Putin), who is Putin's niece.

Milyaev, Alexei Besprozvannykh, Alexei Smirnov, and Dmitry Demeshin as acting governors to these respective positions (TASS 2024). They are expected to become official governors through the 2024 regional elections.

As seen thus far, governors ultimately function as part of the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within the Putin regime, operating within the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RP recruitment system. While superficially reflecting objectivity or meritocracy, they serve as tools within this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ultimately producing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y becoming loyal elites to Putin.

This selection and legitimization of certain elites, a characteristic practice of the Russian system, has twofold significance. Firstly, it is an indicator of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in which legitimate institutionalized selection processes are subordinated to Putin’s desire to select competent and loyal local leaders. In other words, elections would typically establish procedural legitimacy, but under Putin’s authoritarian style of “rule by law,” political outcomes are tightly controlled, foreclosing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competi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maintains the monopoly of power by the ruling class of political elites. This can be described as a class-based domination system as articulated by Gaetano Mosca (Mosca 1939, 50). Secondly, it can be seen as a deprivation of the citizens’ right to choose their political representatives. Citizens, conditioned to be passive participants in this class-based domination system, tend to lose perspective and their sense of opportunity. Ultimately, they become mere objects mobilized by the political apparatus to conform to the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administered by Putin’s elites.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fosters a concentration of power with the ruler, who portrays himself as the representative of absolute authority, issuing judgments and directives. This leads the subjugated individuals to accept a loss of autonomy, depending instead on established pathways. Indeed, this effectively creates an iron law of oligarchy, obscuring the people’s desires and perpetuating the dominance of the ruling elite.

VI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The gubernatorial recruitment process ultimately is used to consolidate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this phenomenon illustrates a progression toward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in the Russian political system. Three key aspects of the 2023 gubernatorial election illustrate how elections reinforce this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The first point is that the

ARP recruitment system is being utilized for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Putin's elite. Fourteen of the 21 governors elected (66%) were graduates of the RANEP, indicating that unofficial institutionalization has taken root as a systemic characteristic. The second point is that elite recruitment is occurring through means other than the ARP system, namely, hand-selection by Putin. Specifically, of those who were not part of the ARP, two came from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vanovo governor Stanislav Voskresensky and Pskov governor Mikhail Vedernikov, and one is Kemerovo governor Sergei Tsivilyov, who is married to Putin's niece. The third point is that Putin engages in symbolic power-sharing with the opposition, specifically the Communist Party. Oryol governor Andrei Klychkov, a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was appointed acting governor by Putin on October 5, 2017, and was elected in the September 2018 election. This suggests that even those local governments led by the opposition party are thoroughly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the hierarchical power structure of Putin's authoritarian bureaucracy is functioning stably.

Vladimir Gel'man argues that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has been typical in post-Soviet Russia following the regime transition (Gel'man 2004, 1021-1040). The centralization of power that began in earnest under Putin's regime reestablished political control over governors and improved regional governance. By recreating a top-down power structure, Putin strengthened the Kremlin and the central state relative to the regions (Sharafutdinova 2009, 672). In the early period following the regime transition, the methods of elite recruitment typical of democratic countries were attempted in the newly formed Russia. However, during Putin's tenure, the political elite recruitment system has been systematically restructured in a new direction. In Russia, there are institutions with names such as the legislature, political parties, and bureaucracy, but these systems primarily serve as a means of distributing power among elected politicians and career bureaucrats (Huskey 2010, 185-204).

VII Conclu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authoritarian bureaucratization of Russian political elites, using gubernatorial elections as a case study. Gubernatorial elections in Russia appear to be conducted according to principles established by law and to operate systematically through a system for recruiting ARP. However, in reality, they are utilized as a resource for political mobiliz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cruitment of ARP ultimately functions as a program that identifies and

trains individuals who have demonstrated loyalty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reby giving rise to a quasi-nomenklatura system. The most notable aspect of gubernatorial mobilization is that candidates appointed as acting governors by Putin receiv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United Russia, preparing them to win elections.

The 2023 gubernatorial elections were a means to minimize competition and ensure the stable reproduction of power. In Russia, while governors are directly elected by citizens, these electoral procedures have a strong formalistic nature. Modern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s like Russia often utilize quasi-democratic institutions to neutralize the risks posed by opposition parties. In fact, the participation of spoiler parties in elections under complete control serves as an effective tool that maintains authoritarian stability (Romanov, Fominykh, and Aukudinov 2023, 519–549).

Indeed, modern authoritarianism relies on restricted, exclusionary, and oppressive means, but it also depends on political elites, popular support, and political mobilization, and above all, it relies on specialized political structures and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modern authoritarian regimes have complete control over the means to mobilize the populace to support the regime. Therefore, the model of all modern authoritarian political structures is a hierarchical bureaucracy controlled by a centralized state. Ultimately, the authoritarian model can be defined as an exclusive and centralized political organization dominated by an oligarchic political elite (Perlmutter 1981, 13–19).

This study argues that Russia's political elites have become authoritarian-bureaucrats, who form a distinct political system characterized by bureaucracy and oligarchy, a unique Russian form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Whe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Putin has formed a collective oligarchic system, and Russian institutions such as its bureaucracy and its elections are used to maintain his authoritarian regime.

한-러 임업협력과 한계점

김정환(한국외대)

한-러 임업협력과 한계점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정환

임업(목재 산업)에 대한 개관

목재: 임목 및 대나무를 벌채한 산물(원목 포함)

제재목(sawn timber): 원주재를 포함하여 길이, 단면, 형상, 크기를 균일하게 가공한 목재(원주재, 각재)

집성목(butcher block): 나무를 접합하여 제조한 목재

합판(plywood): 버니어를 겹쳐서 제조한 목재와 MDF, OSB등을 포함하기도 함

기타 제품: 목재칩 및 우드펠릿(Wood Pallet)

1. 러시아: 세계 최대 산림 보유국, 원목(raw wood) 및 제재목(sawn timber)수출국, 침엽수 중심

2. 중국: 수입한 원목을 재가공한 가공목재 수출(합판, MDF, OSB, 가구용목재)

3. 캐나다: 제재목, 합판, 펄프 수출

4. 미국: 고품질 제재목, 합판 수출, 경재(hard wood)와 연재(soft wood) 부문 모두 발전

5. 스웨덴: 침엽수 제재목, 펄프 수출

6. 칠레: 제재목, 펄프 부문 강점과 운송상 이점, 조림지(planned forest)에서 생산, 남반구에 위치하여 계절적 수요-공급 균형자 역할

목재에 대한 구분

주요 목재 수출국

러시아의 임업

개황

산림면적 9억 헥타르, 임목 축적량 800억 m³, 세계 산림자원의 20% 보유
 수종: 가문비나무(Spruce), 소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수출량

연 2500-2800천만m³
 (2020년 3100천만m³)

주요수출국

▶ 유럽, 중국, + 인도, UAE, ▶ 제재목, 목재 패널, 합판, 우드칩, 우드펠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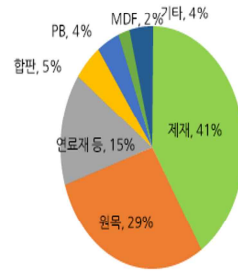
비가공목재 (원목: HS4403) 수출에 대한 제한

2006년 12월 23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개정

러시아의 임업 현황

- ▶ EU의 러시아 목재 수입 제재(5차 제재)
- ▶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목재 가격 하락
- ▶ 목재산업에 대한 투자 부진
- ▶ 목재기업 (Forestry Company) 숫자 지속적 감소

러시아의 목재수출량 품목별 비율(2021년)



출처: 한국목재재활용협회

2030년까지 임업산업 발전전략

러시아의 산림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기타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것

당면과제

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수준의 목재 폐기물 활용도
 생산림의 단위 면적당 낮은 목재 수확량
 스웨덴, 핀란드에 비해 낮은 GDP 기여도(0.74%, 2019)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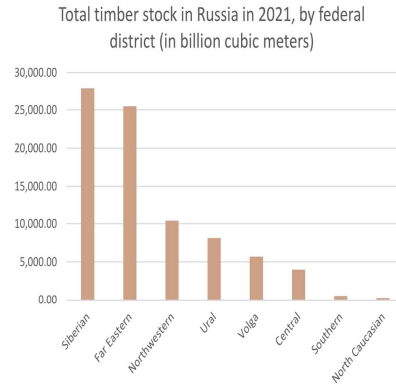
2030년까지 일자리 5만개 창출
 목재 생산량 증가(4500만 m³ → 6500~6950 m³)
 원목 이외의 제품 수출 확대
 ▶ 가공목재 수출 확대
 ▶ 바이오연료(우드펠릿) 시장 확대
 ▶ 합판, 목재패널(MDF, OSD) 생산량 증대

러시아 연방관구별 산림자원(2021)

- 시베리아 연방 관구 및 극동 연방관구의 풍부한 산림 자원
- 하바롭스크 변경주 및 연해주 지역은 한국 및 일본과 인접
 - 비교적 우수한 수출 기반시설
 - 하바롭스크 변경주 산림 자원의 뛰어난 복원력

극동지역 대표기업: New Forest Pro, Forest Grand, SLPK Group

-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 북서 지역 및 유럽권 목재 선호
- 품질 이슈
 - 물류비용 문제
 - 거래 관행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31008/russia-total-timber-stock-by-district/>

한국의 목재 산업

한국의 목재시장 주요수요처: 건설, 발전, 가구제조
주요수입항 및 가공 중심지: 부산, 인천

한국의 목재 수입 목재 수입액 46억 달러
- 제재목 20억 달러
- 러시아산 목재는 연재(soft wood: spruce) 중심
- 우드펠릿 2.5억달러

한국의 제재목 주요 수입국과 특징

1. 칠레: 가격경쟁력(러시아산 제품과의 경쟁)
2. 러시아: 지정학적 불안정성
3. 뉴질랜드: 고품질, 발색
4. 북미(캐나다, 미국):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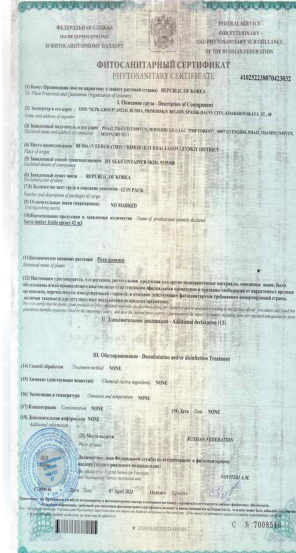
	Russia		Chile	
	Import Vol.	USD/CBM	Import Vol.	USD/CBM
2023				
Jan	27,200	282	38,600	224
Feb	31,600	231	19,800	190
Mar	19,750	306	38,480	180
Apr	10,500	302	25,640	178
May	48,360	267	25,190	177
Jun	25,450	297	42,330	180
Jul	27,750	272	41,690	185
Aug	35,720	252	64,180	189
Sep	40,960	242	48,310	193
Oct	61,430	146	66,940	196
Nov	24,640	242	43,530	193
Dec	23,320	236	37,910	198

source: <https://www.forest.go.kr/kfswb/kfs/idx/Index.do>,
<https://www.customs.go.kr/> 기반 저자 재구성

한국의 목재 산업

제재목 수입 단계

1. 러시아 별채권 보유 기업의 별목
2. 1차 가공 및 재단 후 선적
3. 경매 혹은 수출법인을 통한 수출
4. 국내 반입 및 통관(목재수입신고, 수입식물검역)
5. 세부사양(specification) 확인
6. 국내가공업체 가공
7. 유통



검역증

러시아 제재목 수입물량 및 가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Total Price	Volume	USD/CBM	Total Price	Volume	USD/CBM	Total Price	Volume	USD/CBM	Total Price	Volume	USD/CBM						
Jan	7,677,740	29,780	258	5,160,680	23,980	215	4,411,450	17,440	253	9,685,800	26,300	368	7,671,200	27,200	282	4,043,460	15,660	258
Feb	7,040,100	28,180	250	5,413,460	26,400	205	6,614,590	29,810	222	10,067,700	32,300	312	7,284,500	31,600	231	3,781,300	14,040	269
Mar	6,656,660	27,260	244	5,638,740	29,060	194	8,339,380	30,840	270	13,651,800	39,950	342	6,042,020	19,750	306	5,389,320	20,710	260
Apr	5,837,150	20,210	289	6,934,120	35,580	195	12,272,890	39,940	307	11,872,730	30,380	391	3,167,830	10,500	302			
May	6,771,830	23,580	287	6,968,380	32,540	214	15,952,390	46,970	340	13,682,680	35,010	391	12,911,010	48,360	267			
Jun	8,567,520	32,610	263	6,405,510	29,430	218	15,012,540	38,580	389	20,910,350	55,130	379	7,556,540	25,450	297			
Jul	7,544,620	29,740	254	4,481,430	18,650	240	17,548,340	44,370	396	16,291,480	27,030	603	7,554,570	27,750	272			
Aug	8,570,300	37,300	230	3,263,440	19,240	170	20,840,040	44,700	466	4,529,400	28,270	160	9,002,750	35,720	252			
Sep	7,399,270	32,130	230	5,857,690	21,790	269	19,682,350	43,070	457	7,437,150	22,830	326	9,912,460	40,960	242			
Oct	8,049,420	37,040	217	6,450,900	29,500	219	19,972,210	43,850	455	8,359,360	20,420	294	8,960,150	61,430	146			
Nov	7,747,460	36,220	214	6,177,880	31,700	195	15,841,370	35,890	441	5,188,620	21,160	245	5,974,110	24,640	242			
Dec	6,207,380	28,670	217	7,327,100	29,470	249	11,031,170	28,680	385	5,308,540	19,900	267	5,512,310	23,320	236			

출처: <https://www.forest.go.kr/kfsweb/kfs/idx/Index.do>, <https://www.customs.go.kr/> 기반 저자 재구성

한-러 임업부문 협력의 잠재성과 한계점

산업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

- ▶ 2025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 ▶ 2030 임업발전 전략(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лес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30 года)

극동지역의 교통인프라

- ▶ 시베리아 횡단철도, 바이칼-아무르철도
- ▶ 극동항만

신규 공급자들의 한국 시장 관심 및 진입

- ▶ 유럽 목재 수출 중단
- ▶ 러시아산 목재에 대한 수요 유지

목재 품질 문제

- ▶ 러시아 북서부 생산 목재 선호
- ▶ 핀란드, 라트비아 제재목과 경쟁
- ▶ 일관되지 않은 품질 문제(신규업체)

칠레산 목재 수입량 증가

- ▶ 러시아 제재목 가격 경쟁력 약화

안정적인 물량 확보

한-러 업계의 상이한 관행

- ▶ Invoice Size 와 Actual Size
- ▶ 잠재적 거래 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 문제
- ▶ 송금 및 대금 결제 문제

기회 요인

한계점과 극복요인

■ 제2분과 정치/역사 분과 (15:30-16:40):
중앙아시아의 정치, 역사 문제

사회 김병호(매일경제)

성동기(인하대) 키르기스스탄의 불안정한 정치현상 이해:
정치문화와 씨족정치를 중심으로

발표

곽성웅(배재대) 19세기 ‘그레이트 게임’ 속의 잊혀진 영웅,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의
중재자 아이토프 연구

토론 박상운(한신대), 신보람(전북대)

키르기스스탄의 불안정한 정치 현상 이해

- 정치문화와 부족정치를 중심으로 -

성동기(인하대)

I 서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씨족정치’(Clan Politics)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목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부족정치’(Tribal Politics)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에트 체제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경험한 다민족다문화의 이슬람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91년 소비에트연방으로 독립한 후 중앙아시아 5개국은 공통적으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기 침체’를 겪었다.

1991년 독립 직후 중앙아시아 5개국은 위와 같은 역사적 전통, 문화, 정치적·경제적 경험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국가를 구축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5개국은 공통적으로 특정 씨족 혹은 부족이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1991년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1991년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였다.

둘째, 타지키스탄은 내전이 발발하면서 정치적으로 극동의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쳤지만 1994년에 라흐몬(Emomali Rahmon)이 정권을 잡으면서 위 3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였다.

셋째, 반면에 위 4개국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05년, 2010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하야했고, 정치제도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다시 대통령제로 변동되었고, 정치 상황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불안정하다.

왜 공통된 환경을 가진 중앙아시아 5개국들 중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만 주변의 4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치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1991년부터 2024년 33년 동안 지구상에서 대통령이 3번이나 하야한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이 유일하다. 2005년 ‘튕립혁명’에서는 아카예프(Akayev Askar) 대통령이 권위주의체제 구축 및 부정선거와 부정축재로 하야했고, 2010년 혁명에서는 바키예프(Bakiyev, Kurmanbek) 대통령이 권위주의체제 구축과 부정축재로 하야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 제옌베코프(Sooronbay Jeenbekov)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하야하였다.

만약에 부족이 아닌 국가 단위의 국가에서 2차례 대통령이 해야했다면, 그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것이고, 3번째 대통령 하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부족 단위의 국가에서 발생한 3차례의 민주화와 정치제도의 변동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단순한 권력투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1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키르기스스탄의 현 대통령 자파로프(Japarov, Sadyr)가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독재체제에 반대하여 세 번이나 민주화를 시도했던 국가에서 다시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하려는 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아직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반면에 국내외 언론은 자파로프의 정치적 변화가 민주주의의 퇴보로 연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화는 서구의 민주주의 이행과 관련된 이론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은 부족의 상위 단위인 3개의 쥬즈(Juz), 우즈베키스탄은 5개 이상의 씨족, 타지키스탄은 3개 이상의 씨족, 투르크메니스탄은 5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 4개국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특정 부족과 씨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타지키스탄은 1994년부터). 그런데 키르기스스탄은 사실상 북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2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오른쪽 날개(우익)를 의미하는 ‘옹카나트’(Он канат)이고, 후자는 왼쪽 날개(좌익)를 의미하는 ‘솔 카나트’(Сол канат)이다. 키르기스인 계열이 아닌 부족 연합체 ‘이즈킬릭’(Ичкилик)이 제3의 부족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상 솔카나트에 복속되어 있다. 1991년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은 북부(아키예프)-남부(바키예프)-북부(아탐바예프)-남부(제옌베코프)-북부(자파로프)로 번갈아 가면서 선출되었다. 여당과 야당의 개념이 아닌 지역 부족세력이 민주화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 나갔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첫째, 씨족 혹은 부족이 3개 이상인 국가에서는 특정 씨족이나 부족이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씨족이 2개뿐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정권 교체가 남북으로 반복해서 자주 이루어졌고 정치 상황도 항상 불안했다. 일반적으로 씨족 혹은 부족이 많을수록 특정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고 2개일 경우에는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왜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4개국에서는 특정 세력이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유목문화를 가졌던 국가의 역사를 분석해보면 부족과 부족 간 그리고 부족 내 통치자와 구성원 간에 수직적 혹은 수평적 통치구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역사적으로 칭기즈칸의 후손인 칸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 내 통치자와 구성원 간에 수직적 통치구조의 전통을 가졌다. 반면에 칭기즈칸의 후손이 없었던 투르크메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부족 내 통치자와 구성원 간에 수평적 통치구조의 전통을 가졌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독립 이후 이러한 수평적 구조가 무너지고 특정 부족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렇다면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족 내 통치자와 구성원 간에 수평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정권교체와 정치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자파로프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처럼 부족 내 통치자와 구성원 간에 수직적 구조를 구축하여 권위주의체제 조성하는데 왜 국민들은 저항을 하지 않고 있는가? 3차례의 대통령 하야를 목격한 자파로프가 무리하게 권위주의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키르기스스탄이 주변의 4개국과 마찬가지로 부족 중심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3번이나 대통령이 하야까지 하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부족 형성, 구조, 문화 등이 주변의 4개국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둘째, 키르기스스탄의 부족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분석되면 이를 바탕으로 피통치자 중심의 정치문화를 분석할 것이다. 피통치자가 3번이나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는 사실은 집권 부족의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부족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성원이 부족장(대통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동시에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몰아내는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키르기스스탄 부족의 피통치자가 가지는 정치문화를 통해서 분석할 것이다.

셋째, 자파로프 정권의 권위주의체제 구축이 과연 안정적으로 성공할 것인지를 앞에서 분석한 키르기스스탄의 부족 정체성과 피통치자 중심의 정치문화를 통해서 예상해 볼 것이다.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3번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반면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3번의 대통령 하야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2.1. 키르기스스탄 부족의 정체성

2.1.1. 키르기스 민족 기원의 역사적 형성

키르기스 민족의 기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러시아 출신의 인류학자 아브람존(Саул. М. Абрамзон)이 1971년에 출간한 ‘키르기스와 그들의 민족발생적, 역사적-문화적 연관성’(Киргизы и их этногенетические 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에서 출발한다.¹⁾ 그는 키르기스 민족의 기원 문제는 중앙아시아 민족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주제이며 본격적인 연구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브람존은 키르기스 민족의 기원에 대한 학문적 논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키르기스’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민족 공동체가 존재하였다. 키르기스라는 명칭은 초기에 남부 시베리아의 예니세이에서 그리고 후기에는 중앙아시아 동부의 천산(Tien Shan) 및 Pamir-Alai 산맥에서 나타났다.

둘째, 키르기스 민족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고대와 중세의 여러 민족과 부족의 역사적 운명에서 현대 키르기스 조상이 수행한 독특한 역할에서 기인한다.

셋째, 키르기스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르기스 민족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은 나왔다.

카라예프(O. Karaev)는 15세기에 이중 부족정치 체계인 옹카나트와 솔카나트가 만들어졌으며, 모케예프(A. Mokeev)는 키르기스가 16세기 투르크로부터 이 중 민족 정치적 조직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키르기스 부족의 계보와 키르기스 민족 정치적 조직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16세기 초에 아크시켄디(Sayf ad-Din Akhsikendi)가 저술한 “마즈무 앓-타와리크(Majmu at-tawarikh, 이야기 모음집)”에도 기술되었다고 소개하였다.²⁾

역사적으로 키르기스 민족(nation)의 형성 과정은 알타이산맥, 동투르크스탄,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에서 중세 초기에 일어난 종족적(ethnic) 형성 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³⁾ 그것은 적어도 5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16세기에 끝났다. 키르기스가 예니세이강 상류에서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했다는 이론은 18세기 러시아의 역사학자 밀러(G.F. Miller)가 그의 저서인 ‘시베리아사’(History of

1) С. М. Абрамзон. Киргизы и их этногенетические 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Л.: 1971. / Авт. вступ. ст. С. Т. Табышалиев. -Ф.: Кыргызстан, 1990. -480 с.

2) Асыл Болпонова. ПОЛИТИЧЕСКИЕ КЛАНЫ КЫРГЫЗСТАН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Том 18 Выпуск 3- 2015. 61.

3) Osmonov O.J., Turdalieva Ch.J. A History of Kyrgyzstan (From Stone Age to the Present): School and university textbook. 2nd Edition. Bishkek, 2016. pp. 136-144.

Siberia)에서 처음 주장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가설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키르기스는 기원전 1천년 후반에 예니세이 강에서 바이칼 호수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9세기와 10세기에 알타이까지 도달했다는 데 동의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키르기스는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하여 16세기에 국가를 형성했다고 한다. 번스탐(A.N. Bernstam)은 키르기스의 첫 번째 이주가 훈(Hun)의 동진, 두 번째 이주가 투르크칸국의 형성과 발전 중에, 세 번째 이주는 몽골의 침략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1,300년에서 1,40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에 발하노프(Ch.Ch. Valikhanov), 비추린(N.Y. Bichurin), 아리스토프(N.A. Aristov)는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키르기스는 예니세이 강의 키르기스와 다른 독자적인 존재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토착민이라고 다른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키르기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역사’(History of the Kyrgyz Soviet Socialist Republic)에서 일관되게 언급되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키르기스와 알타이의 문화적, 영적 전통, 민족적 구성 요소, 언어 면에서 매우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키르기스와 알타이의 고대 민족적 친화성은 Munduz, Doolos, Kushchu, Toro, Kochkor-Munduz, Kara Tumak, Beru, Saruu, Kuba, Kubat, Kumach, Alchy, Elchigen, Alakchyn과 같은 동일한 집단이 친족-부족 체계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유누살리에프(B.M. Yunusaliev), 바트마노프(I.A. Batmanov), 오루즈바예바(B.O. Oruzbaeva)와 같은 유명한 키르기스 언어학자의 연구는 알타이어와 현대 키르기스어의 밀접한 근접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15세기에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한 많은 키르기스가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알타이 사람들이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이다. 아브람존은 키르기스 민족 형성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키르기스 민족이 출현한 부족의 형성 과정은 지금의 키르기스스탄, 파미르-알타이, 이르티시(Irtysh), 동투르크스탄의 주변 산악 지역에서 일어났다.

둘째,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키르기스 민족의 기반은 지금의 키르기스스탄에 살았던 토착 투르크 부족, 주로 중앙아시아 출신의 투르크어 사용 민족인 외부인, 몽골과 카자흐-노가이(Kazakh-Nogoi) 출신 부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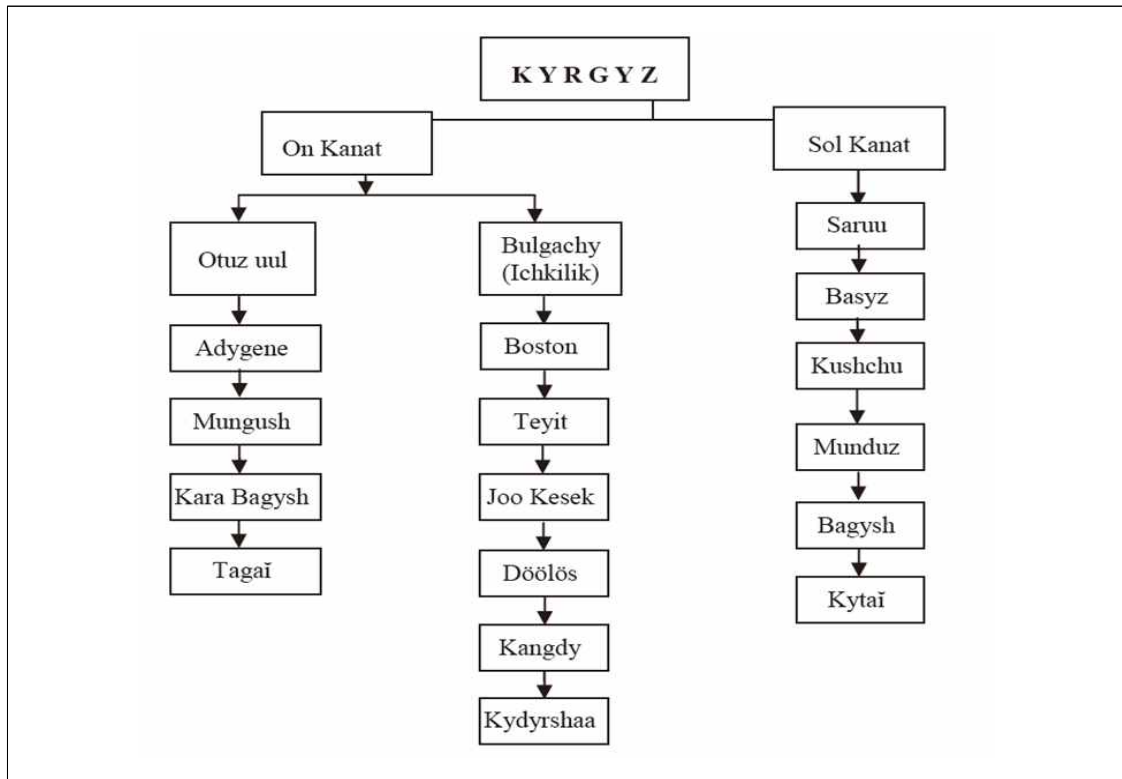
2.1.2. 키르기스 부족의 기원

키르기스 부족의 기원은 돌론(Dolon)과 그의 아들인 아크 울(Ak uul, Agul, Abyl)과 쿠 울(Kuu uul, Kuul, Kugul, Kabyl)에서 찾는다. 16세기 이미 키르기스 부족은 옹카나트와 슬카나트로 나뉘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옹카나트가 ‘오투즈 울’(otuz uul, 30명의 아들) 그룹과 불가치(Bulgachi) 부족 그룹으로 나뉘었다면, 더 최근에는 오투즈 울이라는 이름으로 키르기스 부족 대부분이 옹카나트,

술카나트, 불가치 후손(이츠킨릭)을 모두 통합했다. 그러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키르기스는 술카나트가 오투즈 울 그룹 전체를 그리고 우익이 이츠킨릭 그룹을 포함한다고 믿고 있다. 천산 키르기스는 옹카나트의 일부로서 Tagai, Adigine 및 Mungush의 세 가지 분파를 구분한다. 첫 번째 분파에는 Sary Bagysh, Bugu, Solto, Tynymseyit, Sayak, Chekirsayak, Zhediger, Cherik, Azyk, Bagysh, Mongoldor, Baaryn, Suu Murun 부족이 그리고 Adigine 분파에는 Zhora, Beryu, Bargy, Kara Bagysh 및 Sarttar 부족이 포함되었다. Mungush 분파는 Zhagalmai와 Kosh Tamga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차례로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다. 술카나트는 Kushchu (Kutchu), Saruu, Munduz, Zhetigen, Kytai, Basyz, Youbey and Chon Bagysh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츠킨릭으로 알려진 키르기스의 세 번째 그룹에는 Kipchak, Naiman, Teyit, Kesek, Zhoo Kesek, Kandy, Boston, Noigut, Tyolyos(Dyolyos), Avagat(Avat) 부족이 포함되었다.⁴⁾

키르기스 부족의 계보는 현재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⁵⁾

<그림 1> 키르기스 부족의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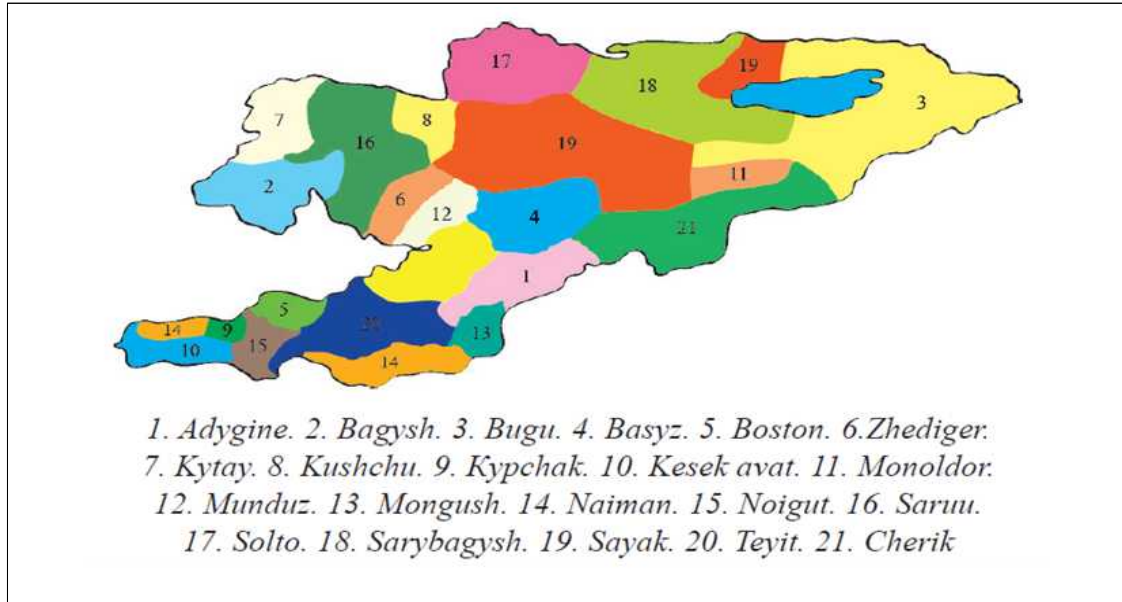


4) С. М. Абрамзон. Киргизы и их этногенетические 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Л.: 1971. / Авт. вступ. ст. С. Т. Табышалиев. —Ф.: Кыргызстан, 1990. —25 с.

5) İlhan Şahin. Nomads and Nomadism: New Approaches in Kyrgyz and Ottoman Nomadic Studies. Tokyo Press. 2013.

각 부족의 지리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⁶⁾

<그림 2> 키르기스 부족의 지리적 위치



2. 키르기스스탄 부족 문화의 특징

2.2.1. 키르기스스탄 유목 사회의 특징⁷⁾

키르기스스탄을 지도를 보면 매우 작은 국가이다. 이곳의 지리는 대부분 산악이기 때문에 지역 간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접촉도 거의 없다. 산악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농민 정착지와 도시, 그리고 중요한 고속도로를 따라 존재한다.

"북-남"의 악명 높은 정의는 전국을 수평으로 가로질러 거의 균등하게 나누는 페르가나 산맥에서 유래한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그리고 약간 중국에 인접)에 인접한 키르기스 영토는 남쪽으로 간주된다. 북부는 이식쿨(Issyk-Kul) 호수 및 중국 국경 근처의 광대한 산악 지역으로 구성된다. 남부는 3개 지역(오쉬, 잘랄아바드, 바트켄)으로, 북부는 4개 지역(탈라, 추이, 이식쿨, 나린)으로 나뉜다. 남부는 인구(55~45%) 측면에서 북부보다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지역 간 상호교류는 물류 경로가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산악 지형으로 인해 원격지 간의 연결이 매우 취약하다. 키

6) Osmonov O.J., Turdalieva Ch.J. A History of Kyrgyzstan (From Stone Age to the Present): School and university textbook. 2nd Edition. Bishkek, 2016. p. 230.

7) Клановая система в Кыргызстане: мифы и реальность. <https://stanradar.com/news/full/36773-klanovaja-sistema-v-kyrgyzstane-mify-i-realnost.html>

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먼 두 지점을 간다면 날씨가 좋을 때 자동차로 그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거의 이틀이 걸린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지역의 중심지는 수도인 비슈케크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세기 동안 키르기스스탄에는 다양한 정치 집단 간의 복잡한 내부 모순이 존재했으며, 이는 2005년 정치적 대격변의 기폭제가 되었다. 2005년 정치적 위기의 가장 중요한 내부 원인 중 하나는 권력 투쟁을 위한 남북의 씨족 경쟁이었다.⁸⁾ 시민 사회의 부재와 부족 관계의 발전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치 체제의 모습을 결정한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의 권력 투쟁과 갈등은 주로 씨족의 위계와 할당된 재산의 재분배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5년 아카예프가 하야한 주된 이유는 씨족 경쟁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르기스스탄 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 하나의 씨족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씨족이 다른 씨족과 경제적 이권을 공유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유목민과 그 씨족 혹은 부족의 변형은 가축을 먹이는 목초에 달려있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농경적 정착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그 영토와 아무런 연관도 생기지 않았다.

셋째, 초원에서 국가의 출현과 사회적 불평등은 부족 공동체의 파괴 없이 발생했다. 새로운 관계는 오래된 관계를 없애지 않고 그 위에 구축되었다. 게다가 부족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더 복잡한 구조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넷째, 유목민은 전사이자 가축사육자였다. 이것은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관계에 특정 세부 사항을 부과했다. 씨족 귀족의 경우 일반 유목민은 강제 노동과 전사 역할을 모두 수행하여 우선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착취 수준을 급격히 제한하여 후원자-고객 관계를 만들었다. 일반 유목민은 외부의 적하고만 싸웠다. 정부는 극도로 강력했고 사회는 극도로 약했다.

스탈린 시대에 발전한 키르기스스탄의 권력 수직에서 북부 일족의 지배력은 소비에트 통치 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었다.

8) С.А. Воронин, Е.А. Бакина. Клановая иерархия как основа «тюльпановой революции» в Кыргызстане.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2019 Vol. 11 No. 2 161.

<표 1> 키르기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당서기

Белоцкий Морис	1933.09-1937.03	Москва
Амосов Максим	1937.03-1937.11	Москва
Вагов Алексей	1938.02-1945.08	Москва
Боголюбов Николай	август 1945 - июль 1950	Москва
Раззаков Исхак	август 1950 - май 1961	Юг
Усубалиев Турдакун	май 1961 - ноябрь 1985	Север
Масалиев Абсамат	ноябрь 1985 - апрель 1991	Юг
Аманбаев Джумгалбек	апрель 1991 - август	Север
Акаев Аскар	август 1991 - март 2005	Север

소비에트정부는 1930년대에 키르기스 유목민을 강제로 정착시키는 과정, 집단화 과정, 가축의 개인소유 불허, 토지의 공동소유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화 등은 성공했지만 그들의 유목민적 사고방식은 제거할 수 없었다.⁹⁾ 이것은 소비에트체제하에서도 살아남았다. 키르기스 사회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도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었다. 소비에트시대에 키르기스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체주의와 전통주의가 공존하였다. 정부의 고위직은 특정 부족엘리트의 대표자들에게 비밀리에 배정되었다.

독립 이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유목 전통과 문화가 다시 부활했다. 이러한 경향은 키르기스스탄 사회의 새로운 정체성과 자신만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부족 결속 부활 및 합법화를 통해서 지역 및 씨족엘리트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씨족 및 부족의 정치문화가 정치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권력구조에 친족주의나 씨족주의의 출현, 친족주의, 후원자-고객 네트워크의 형성, 부패의 증가 등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씨족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재산 재분배와 세력권을 둘러싸고 유력 씨족 간 내부 갈등도 커졌다. 그리고 씨족의 내부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9) Асыл Болпонова. ПОЛИТИЧЕСКИЕ КЛАНЫ КЫРГЫЗСТАН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Том 18 Выпуск 3- 2015. 63-70.

2.2.2. 키르기스스탄의 씨족과 부족문화의 특징

평화로운 시기에 유목집단에서 국가 기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되었다.¹⁰⁾ 군사적 전통은 키르기스인들이 중앙집권화를 극대화하도록 장려하는 반면 일반적인 유목생활 방식은 분열을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키르기스 정부 구조가 그토록 부정형이었던 이유이다.

자연적 씨족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¹¹⁾ 예를 들어, 일부 Asanov 씨족의 구성원이 되려면 적어도 그의 친척으로 태어나거나 그의 후손과 결혼해야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개 그룹이므로 구성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 졸업생이 씨족과 거의 동일하다. 이 씨족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교육기관을 졸업해야 하지만 그러한 커뮤니티도 상당히 개방적이다.

가족은 자신의 영토에서 법의 밖에 있는 전통적인 규칙을 먼저 따른다.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의 공공질서를 위반했다면 가족은 법과 품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를 구해 주지만, 가족 내에서 기록되지 않은 규칙을 위반했다면 그는 살해 될 수 있다.

씨족의 자격을 얻은 자는 그룹 외부에서 이 사람이 존재를 알 수 없고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내부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된다. 그리고 씨족 내부에 있지만 이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조직을 위해 개인의 안녕을 희생할 수 없는 경우에, 행동으로 인해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 씨족에서 제명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내린 결정을 의심 없이 실행하는 조직을 찾기가 일반적으로 어렵다. 특히 규율과 관련하여 정치인과 정치 조직은 어려움을 겪는다. 씨족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공공 정치인에게 거의 자살 행위이다. 동시에 정치인이라면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자신의 경력에 최소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씨족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씨족 간 관계는 거의 항상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로 제한된다. 동시에 구성원은 씨족 지도자의 결정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모두가 서로를 팔아넘기며 친척을 배신하는 것이 더 쉽다.

지역 분열, 부족주의, 지역주의, 친족주의를 포함한 부족(씨족) 관계는 오늘날 키르기스스탄과 그 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이다.¹²⁾ 정치인, 언론기자, 분석가 등은 이러한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그들 중 일부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그리고 지역, 부족 집단 간의 경쟁이 국가 통합을 약화시키고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0) Асыл Болпонова. ПОЛИТИЧЕСКИЕ КЛАНЫ КЫРГЫЗСТАН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Том 18 Выпуск 3— 2015. 62.

11) Тайны наших кланов. https://www.vb.kg/doc/289725_tayny_nashih_klanov.html

12) А.А.Темиркулов, А.А.Капалова. Клань и родоплеменные связи в Кыргызстане: влия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https://vk.com/wall-35945278_4964

키르기스어에서는 부족 사회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단어는 урулаш, бир уруудан, бир уруунун балдары, уруусу бир 등이 있다. 그러나 키르기스어에서 동료 부족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출생과 기원을 의미하는 тууган이라는 단어이다. "부족"과 "친척"이라는 단어는 키르기스어에서 동의어이다. 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9년 이식쿨 지역 현장조사)에서 “귀하의 친척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100%가 “тууган”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부족 관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의 일부임을 나타낸다.

현대 키르기스 사회에 부족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이력

모든 사람은 자신의 친부모, 출신지, 출생 상황을 알고 싶어 한다. 이 정보에 대한 자신의 뿌리는 키르기스의 족보에 해당하는 산지르(санжыра)의 형태로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

부족 관계는 장례식, 질병, 결혼, 이주 등의 재정적 비용과 같은 특정 사회보장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 이것은 사회적 생존 방법 중 하나이다.

셋째, 의사소통의 도구

현대 키르기스 문화에는 '관계의 선'이 있는데, 이는 지인의 기원과 후속 관계의 원리에 따라 분류된다. 가족관계에서만 Tailar, Kayyndar, Zheender, Atalash Tuugandar, Enelesh Tuugandar 등과 같은 5개 이상의 "친족 계통"을 구별할 수 있다. Zherdesh, Klastash, Ayildash, Ayash와 같이 친족 관계 원칙에 기반 하지 않은 라인도 있다. Uruulash는 관계를 구축할 때 사용되는 대사에서 하나이다. 부족의 친족 관계가 멀수록 관계는 약해진다.

넷째, 비공식적 연결

정부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 관계를 활용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문가, 정치인, 언론이 부족 관계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씨족(cl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구체적인 정의가 되지 못하고 우루(uruu), 후원 네트워크, 조직화된 범죄 집단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집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연구자와 정치인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씨족이라는 개념의 집단적 사용이다. 콜린스(Kathleen Collins)는 씨족을 “친족관계와 가상의 가족 정체성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는 씨족의 정체성과 유대를 구성한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여러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전통, 발음, 사고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уруу(племена)와 конфедерации племен(부족연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약간의 유보가 있지만 "클랜"의 정의에 속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정당화됩니다.

첫째, уруу에서 사람들은 친족관계 및/또는 가상의 가족 정체성을 통해 연결된다.

둘째, 각 уруу에는 이름, 가계, 토템, 거주지, 역사 등을 통한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셋째, 같은 문화권의 개인들 사이에는 공통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연결이 있다.

넷째, 일부 уруу에는 자체 구조(계층 구조, 예산)가 있다.

그러나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에는 특정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уру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관심, 즉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주요 통합하는 힘인 후원 네트워크(Патронажные сети)도 있다. 후원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 네트워크는 물질적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이다. 그들의 관계는 비공식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이 초법적 정치와 금융활동에 서로 보안을 제공한다. 후원 네트워크의 사회적 구조는 이질적이며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다.

둘째, 지난 20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원에 접근하는 대가로 후원자를 지원하는 후원 네트워크에 얽혀 있었다. 이러한 후원 네트워크는 уруу와 행정구역 단위의 경계를 넘어 지역, 민족 또는 종교적 소속에 관계없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포괄한다. 이러한 후원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자원(재화)에 대한 접근이다.

셋째, 후원 네트워크의 역사적 뿌리는 소비에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후원 네트워크의 형태는 정실주의(Блат)로 나타났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이것은 자원에 대한 접근이었다. 지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은 돈이다.

넷째, 이러한 후원 네트워크는 정당 노멘클라투라를 서로 연결하고 자원에 대한 비공식적 접근과 경력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이후 후원 네트워크는 부패이 중심에 있다.

아카예프와 바키예프의 후원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후원자와 그의 고객은 대통령과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후원자는 호의를 베풀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직책이나 지위에 임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와 부패가 이루어졌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권력을 위한 주요 투쟁은 부패한 후원 네트워크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정체성 집단(уруу, 주, 지역)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키르기스스탄의 공공행정에서 후원 네트워크와 부족(씨족) 관계는 세 가지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지역 수준

уруу로의 분할은 친족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사람들을 통합하는데 더 많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마을 내 관계를 규제할 수 있지만 경쟁, 적대감 또는 기타 형태의 해체적인 의사소통에는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중간 수준

후원 네트워크는 уруу를 사용한다. 지역 수준에서는 기능적 중요성이 거의 없었던 уруу가 특정 уруу의 경계를 훨씬 넘어 확장되는 후원 네트워크의 부패한 활동에 연루되고 얽히기 시작한다.

셋째, 국가 차원

씨족은 현실을 형성하는 신화이다. 그러나 경제 및 정치 생활이 자유화되면서 후원 네트워크가 정당 형태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념적 기반이 아닌 특정 지도자, 후원자를 중심으로 정당이 창설되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특정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부족 분할 원칙에 기반한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주요 통합 힘인 후원 네트워크도 있다. 부족 관계는 키르기스스탄 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리 차원에서 비공식 네트워크의 사회적 구조는 훨씬 더 다양하므로 근절하기 어렵다.

일부 후원 네트워크는 정당으로 공식화되었다. 대통령-의회 정부 형태로 전환된 이후 단일 후원 네트워크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대통령-의회 정부 형태에서는 정당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단일 후원 네트워크의 틀을 넘어서 통합되고 제거될 수 있다.

2.2.3. 남북문제의 실체¹³⁾

2010년 4월에 일어난 남부 출신의 바키예프의 하야는 키르기스스탄 북부의 복수로 묘사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이 키르기스스탄의 북부와 남부를 구분하는 것은 순전히 조건부이다. 남북대결로 키르기스스탄 국내 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크게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이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분할된 것은 소비에트연방 때 부터였다. 이전 산악 유목민들은 가축 사육에서 농업 및 도시 생활로 이동하면서 계곡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유목집단의 쿠릴타이(kurultais)와 부족지도자(manaps)는 사라지고 국가가 직접 유목민을 통치하였다. 인구는 씨족과 부족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구역 단위(도시, 구역, 지역)별로 그룹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부 키르기스스탄의 유목민은 남부 지역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러시아화, 소비에트화, 도시화를 겪었다. 농경지대였던 남부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러시아화와 소비에트화가 진행되었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도시화로 인해 남부 지역에서는 페르가나 계곡의 오쉬(Osh)와 잘랄라바트(Jalal-Abat)가 성장했고 북부에서는 수도인 프룬제(Frunze, 지금의 비슈켄크)가 중심이 되

13) Аналитика МИПЭ: “Клановый фактор и его влияние на ситуацию в Киргизии”
https://minchenko.ru/netcat/require/e404.php?REQUEST_URI=news/news_41.html

었다.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부의 정치적인 영향력 강화는 1970~80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덕택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남부는 점점 더 주도권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남부 출신 사람들이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계층을 더 많이 지배했다.

키르기스인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전형적인 것은 남북 분단이 없는 고대 대초원 부족 원칙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현대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는 주로 우익(옹카나트), 좌익(솔카나트), 중앙(이즈킬릭) 등 모든 키르기스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차지했던 고대 군사 방어 구조의 민족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적과 맞서기 위해 모든 날개가 뭉쳤다.

키르기스스탄 우익 즉 옹카나트는 북부의 추이(Chui), 이식쿨(Issyk-Kul), 나린(Naryn) 지역과 남쪽의 오쉬 지역 일부(알라이 산맥 포함)의 영토를 점령했다. 좌익 즉 솔카나트는 남부의 잘랄라바트 지역과 북부의 탈라스(Talas) 지역을 포괄했다. 이즈킬릭의 부족은 남부의 바트켄(Batken)과 부분적으로 오쉬 지역을 점령했으며 북쪽의 다양한 지역에 살았다. 따라서 남북 축을 따라 날개를 혼합하면 이러한 대결의 그림이 너무 단순해진다. 소비에트 시대에 특정 지역과 지역의 인구 등록 시스템은 처음으로 키르기스인의 마음속에 추이와 오쉬, 나린과 잘랄라바트, 북부와 남부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냈다.

2010년 4월의 사건은 자신의 부족을 제외한 모든 부족을 의사 결정에서 밀어내려는 키르기스스탄 지도자의 시도가 재앙으로 이어졌다. 마치 바키예프가 외부의 적인 것처럼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바키예프(아래 야당 지도자를 설명하는 표 참조)에 맞서고 있다. 탈라스와 나린의 초기 시위는 옹카나트(나린)와 솔카나트(탈라스)가 함께 행동을 취했다. 이들 도시에서는 권력이 야당으로 신속하게 넘어갔다. 탈라스와 나린 모두 북부 도시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정부 건물을 습격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온 시위자들은 비슈케크와 남부 모두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찾았다. 바카예프가 속했던 이즈킬릭조차도 그를 지원하지 않았다. 바키예프 가문은 권력을 유지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가능성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표 2>

성명	출생지	씨족
Temir Sariev	남부	옹카나트
Beknazarov Azimbek	남부	솔카나트
Tekebaev Omurbek	남부	이츠킬릭
Almazbek Atambayev	북부	옹카나트
Abdygany Erkebaev	남부	옹카나트
Ismail Isakov	남부	옹카나트
Roza Otunbayeva	정보는 다양함	솔카나트

2.3. 자파로프 정권의 권위주의체제 전망

2.3.1. 키르기스스탄 부족 정체성 관점에서 본 전망

2.3.2. 정치문화 관점에서 본 전망

III 결론

첫째, 키르기스 민족의 기원과 부족 형성에 관한 학설이 다양한 것은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불안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둘째, 씨족은 전통적으로 비공식적 정치 행위자인데 특정 씨족이 자신의 지역과 별 중심으로 정당을 창당하고 지역당으로 정치적 활동하는 것은 씨족의 정치 행위를 공식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찾기 힘들다.

셋째, 씨족 중심의 지역 과벌들은 자국 내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재화의 분배를 비공식적으로 합의하는 씨족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대통령은 이를 공식적으로 국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특정 씨족의 지역당 창당은 이러한 틀을 깨는 것이 된다.

넷째, 이러한 지역당 창당은 비공식적 협의에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출현한다. 자신에게 분배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불인정하고 자신의 몫을 더 가지려고 시도한다.

다섯째, 씨족장이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야 씨족장을 따르고 세를 모으고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국내 재화량이 한정적이어서 경쟁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집권씨족이 타 씨족과 분배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화 차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한다.

19세기 ‘그레이트 게임’ 속의 잊혀진 영웅,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의 중재자 아이토프 연구

곽성웅 (배재대)

19세기 ‘그레이트 게임’ 속의 잊혀진 영웅,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의
중재자 아이토프 연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곽성웅

목 차

- I. 서론: 왜 아이토프인가?
- II. 아이토프의 생애 요약
- III.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이란?
- IV. 기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중재자들
- 애벗, 셰익스피어 그리고 아이토프
- V. 결론: 아이토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학술적 의의

I. 왜 아이토프인가?

○ 학술적 배경

- 러시아-중앙아 외교사 연구에 있어 주목할만한 사건인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 관련 인물
- 서구인 주도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 흥미로운 중앙아 토착민
- 현재 상당부분 잊혀진 그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시도는 학계의 학술적 호기심 자극 가능

○ 개인적 이유

- 학위논문 준비과정에서 처음 접한 인물로, 외부인이 아닌 중앙아시아 현지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역사적 사건과 마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인물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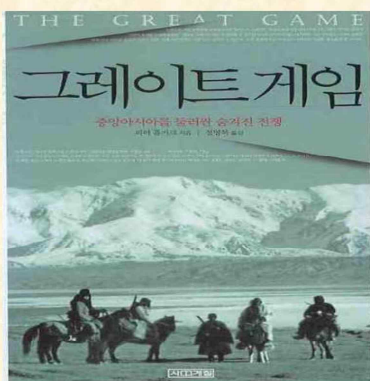
○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 관련 선행 연구

- 테렌티예프(2017), 모리슨(2014), 홉커크(1994), 호워스(1880), 베셀롭스키(1877), 이바닌(1874) 등

○ 아이토프 관련 선행 연구

- 술탄갈리에바(2023), 포체카예프(2016), 카샤예프(2011) 등

**※ 피터 홉커크의
『그레이트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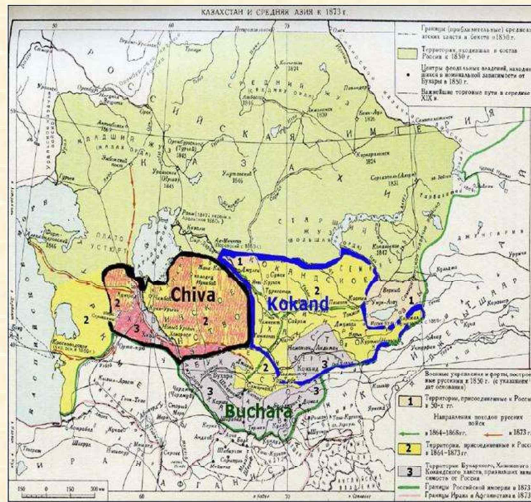
'히바를 향한 경주'와 '노예해방'
pp. 267-300. / 아이토프 언급 없음

**※ 미하일 이바닌의
『1839-40 동계 히바 원정』**



전체 페이지 /
아이토프 언급 C. 156-157.

※ 중앙아시아의 칸국들 - 히바와 부하라, 코칸드



-3-

II. 아이토프의 생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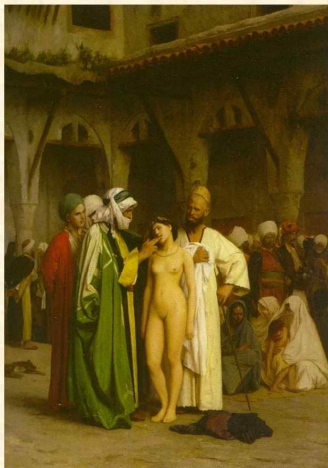
- 본명: 무함마드-샤리프 라흐마투린 아이토프 (Мухаммад-Шариф Рахматуллин Аитов)
- 직업: 통역관 (толмачи) / 카자흐족에게 검은 통역관(카라 톨마치, Кара толмач)이라 불림
- 가계 - 조부 압두살림 아이토프는 푸가초프의 난 때 공으로 1783년 육군 소위(подпоручик) 진급
 - 부친 라흐마투라 아이토프는 카자크 연대에서 소위보(прапорщик)로 근무
 - 본인 가족은 아내(자밀라)와 2남(일리야스, 1846년생 / 이스마길, 1848년생)으로 구성
- 약력 - 1802년 오렌부르크주(Оренбургская губерния) 출생
 - 1817년 부쿨민스크 지방법원에서 하급서기(подканцелярист)로 사회생활 시작
 - 1820년 오렌부르크주 국경위원회 통역관으로 진출
 - **1839~1840년 억류 상태에서 히바인과의 대화 통해 양국 전쟁의 중재자 역할 수행**
 - 1842년 니키포로프(П. А. Никифоров) 강화협상단에서 부대표급으로 활약
 - 1858년 38년 공직생활 마감하고 상급대위(штабс-капитан)로 은퇴(월 290루블 연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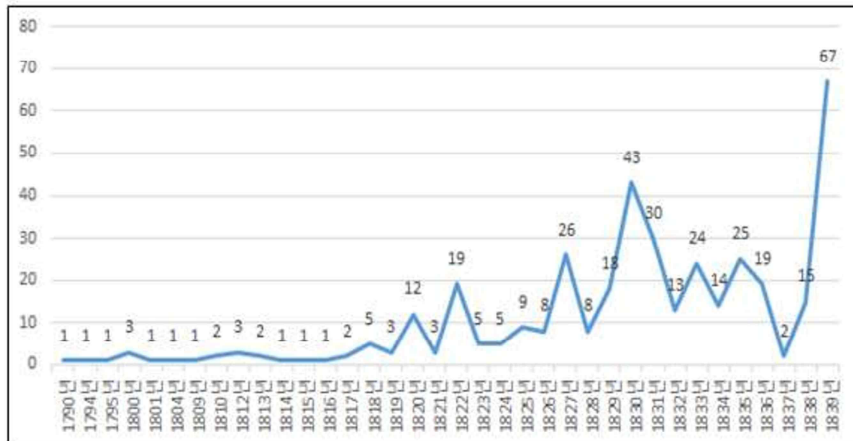
III.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이란?

- 기간: 1839년 11월 (선전포고) ~ 1840년 8월 (히바 칸의 대리 정책 포고령 및 노예 석방)
- 전쟁의 원인 - **노예문제**와 국경불안(카자흐족 문제)
 - 18세기부터 시작된 노예문제가 19세기 초(1820, 무라비요프)부터 본격적인 관심사 대두
 - 초기 주로 러시아 상단 공격, 중반 이후 러시아 접경지역 및 카스피해 어업인 주로 억류
 - 히바 경제에서 노예매매는 주요 산업이고, 노예가 주요 사회구성원(약 6만 이내, 인구 10%)
 - 18세기 말 기준 히바내 노예 중 러시아인은 최대 2천명, 페르시아인은 2만명으로 추산
- 전쟁의 원인 - 노예문제와 **국경불안(카자흐족 문제)**
 - 19세기 이전 러시아 남부와 히바 사이 경계에 여러 유목민족(칼미크, 카자흐 등) 거주
 - 19세기에 히바 칸은 조세징수권을 주로 활용하여 러시아와의 경계 내 카자흐족 통제 시도
 - 카자흐족 동요에 러시아제국 정부가 1836년 히바에 경고서한 발송하나 히바는 무응답
 - 결국 국경문제(카자흐문제) 해결도 페롭스키의 히바 원정에 있어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

※ 중앙아시아의 노예시장과 페르시아인 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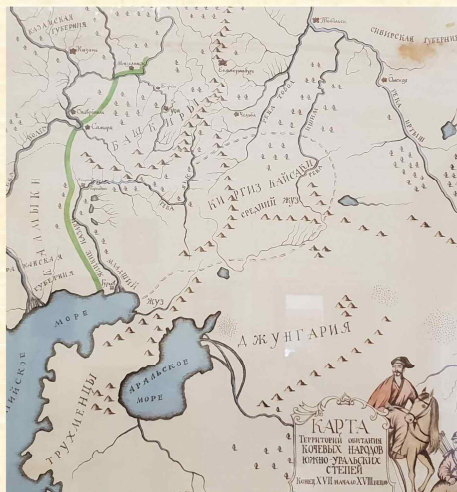


※ 1840년 귀환 러시아 노예 404명의 약탈 시기 분포도



-7-

※ 17세기 말 ~ 18세기 초 우랄 남부 유목민족 분포도



-8-

III.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1839~1840)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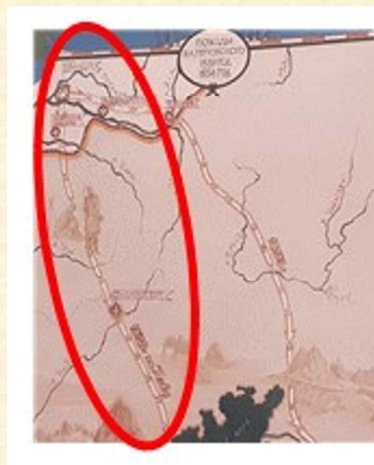
○ 전쟁의 경과

- 1836년 9월 니콜라이 1세 전격적으로 러시아 내 거주 모든 히바인 체포 및 재산 압류
- 1839년 가을 오렌부르크 총독부, 對히바 군사작전 공식 선언 및 원정군(5,217명) 출정
- 1839년 12월 히바군(2~3천) 원정 길목인 아르볼라크 요새 습격하나 성과없이 퇴각
- 1840년 2월 초 러시아군 회군 결정하나 차기 원정 위해 히바 접경 지역에 전진기지 건설
- 1840년 7월 히바 칸 국내외 히바인의 국경침입과 러시아인 노예 매매 전면 금지 선포
- 1840년 8월 히바의 강화사절단 파견 및 410여 명의 러시아인 노예와 포로도 함께 석방
- 1840년 10월 러시아제국 내 억류 중인 히바 상인 최소 340여명 석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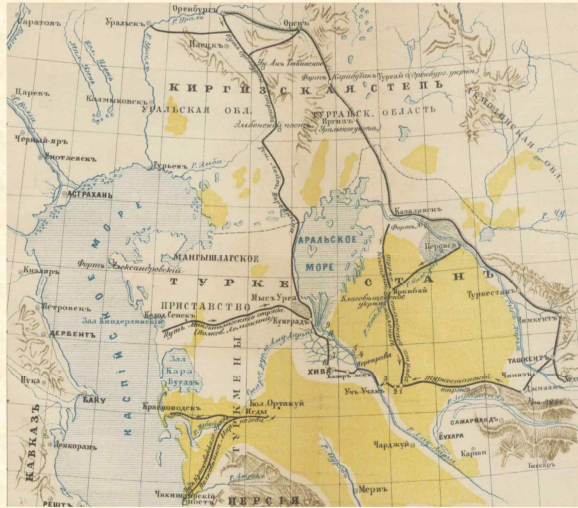
○ 전쟁의 여파

- 1840년 히바의 노예매매와 국경침입 전면금지 조치는 1860년대 초까지 약 20년 간 유지
- 러시아제국은 이후 코칸드로 국경안정 위한 관심 집중 (남부 국경 문제의 우선순위 변화)

※ 페롭스키와 1839-40년 러시아군 원정로



※ 1873년 제3차 히바-러시아 전쟁 상황도



-11-

IV. 기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중재자들 - 애벗, 셰익스피어 그리고 아이토프

○ 제임스 애벗(James Abbott) 대위의 행적

- 헤라트 주둔 영국군 장교로, 러시아의 히바 원정(정복)을 막기 위해 히바로 파견
- 1840년 1월 말 히바 잠입 후 러시아인 노예 석방을 위해 히바 칸 알라쿨리와 면담
- 러시아 군사력에 관한 정보 등을 전달하며 히바 칸에게 러시아인 노예 석방 설득
- **3월 초 칸의 러시아인 노예 석방 약속 서한 소지한 채 히바에서 오렌부르크로 이동**
- **아이토프 관련 언급 없음**

○ 리치먼드 셰익스피어(Richmond Campbell Shakespear) 중위의 행적

- 헤라트 주둔 영국군 장교로, 애벗 이후 2차로 파견된 강한 출세지향주의적 성향 인물
- **1840년 6월 히바 도착 후 러시아인 노예 석방을 위해 히바 칸과 수개월 간 면담**
- 8월 초 설득 성공하여 칸의 러시아인 노예(416명) 석방 선언 후 8월 중순 히바로 출발
- **아이토프와 히바 사절 등에 관한 언급 없음**

-12-

※ 제임스 애벗



※ 리치먼드 셰익스피어



-13-

IV. 기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중재자들 - 애벗, 셰익스피어 그리고 아이토프

○ 아이토프 소위의 행적

☞ 억류 전후 과정

- 전쟁 전 오렌부르크 국경위원회에서 주로 소주즈(Младший жуз)의 카자흐족과 관계 형성
- 1839년 카자흐족 봉기 과정에서 카자크 포로 석방에 일조하여 기병 소위로 군사령부 전출
- 1839년 말 원정 준비 위한 러시아군 보급품(낙타 매매 등) 확보 과정에서 카자흐족에 억류
- 1839년 12월 카자흐족 일당은 망기실라크 부근의 히바 관계자에게 아이토프 처리 위탁

☞ 히바 체류 시기 (1840년 3월 4일 히바 도착 / АВПРИ)

- 6차례 이상 히바 칸 및 정부관계자와의 심문 및 면담 끝에 러시아인 노예 석방 설득

☞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 이후

- 1841년 중위(поручик) 승진 및 히바시 상주 러시아 대표(영사 지위)로 파견
- 1842년 니키포로프(П. А. Никифоров) 강화협상단에서 부대표급(통역관 등)으로 활약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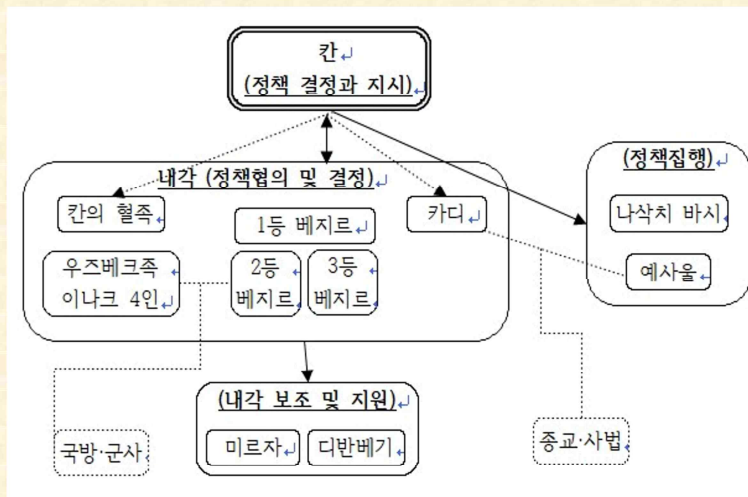
IV. 기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중재자들 - 애벗, 셰익스피어 그리고 아이토프

○ 아이토프 소위의 행적

☞ 히바 정부 관계자의 면담 및 설득 과정

- 1차 면담: 망기실라크 아다예베츠족 담당 관리(무라탈리) / 카자흐족 포로가 된 연원 등
- 2차 면담: 디반 베기 / 아이토프 개인 정보(출신, 역류 과정 등)와 전쟁 책임 소재 등
 = 면담 막판 러시아 전쟁 의도 관련 논쟁 후 칸의 처소로 이동
- 3차 면담: 히바 칸(알라 쿨리) / 러시아 원정군 출정 관련 내용
 = 칸에게 러시아군의 규모와 능력을 설명하며 평화협상으로 유인 / 칸의 손님으로 승격
- 4~5차 면담: 메흐테르(야콥바이) / 아이토프 신원 확인 및 반러 망명자와의 논쟁 유발 등
 = 수개월 후 성사(оравоо) / 카자흐족 출신 카이프갈리와 러시아의 대히바 정책 관련 격론
- 6차 면담: 히바 칸(알라 쿨리) / 러시아 원정군 출정 및 러시아와의 강화 협상 조건 등
 = 칸의 강화협상 지원 요청 및 러시아인 노예 석방 조치 시행 약속 확답

※ 19세기 초 히바 칸국의 정부 형태 및 정책결정 구조



IV. 기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중재자들 - 애벗, 셰익스피어 그리고 아이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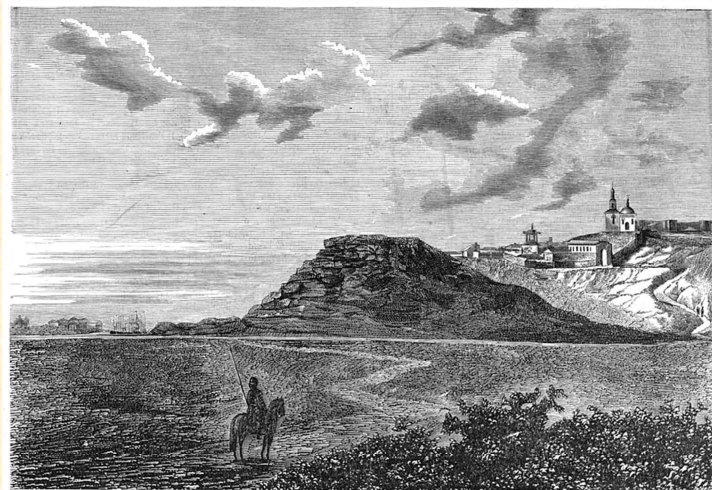
○ 아이토프 소위의 행적

☞ 노예 석방 과정

- 아이토프는 6차 심문 다음날부터 메흐테르 서한 접수하고, 노예들 진술서 수령 작업 시작
= 진술서 내용은 출신지와 억류 경위(지역, 시기 등), 노예 업무 등
- 메흐테르는 칸의 선물을 전달하고 노예 석방에서 반하는 히바 노예주인 일부 교수형 집행
- 석방 조치 해당 러시아인 노예수는 최소 500명 이상(실제 석방인원은 410여 명)
- **히바 칸은 아이토프 작성 노예 진술서를 1840년 3월 10일 오렌부르크로 송부 (ОГАОО)**
- (아이토프의 증언에 따르면) 노예 석방준비 과정에 영국인이 헤라트에서 히바로 도착
- 원래 석방 목적지는 아스트라한이었으나 아이토프가 알렉산드롭스코에 요새로 권유
- 히바 사절(무프티 아타니야즈 아펜디아)와 면담 후 이들보다 앞서 러시아로 출발

-17-

※ 19세기 알렉산드롭스코에 요새 전경



-18-

V. 결론: 아이토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학술적 의의

- 아이토프의 중재 역할에 대한 평가
 - 그가 제2차 히바-러시아 전쟁에서 중재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움
 - 물론 그의 역할이 전쟁 종전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특히 중재자로서의 성과 대부분은 그의 증언에 의존했기에 일부 과장도 존재할 가능성
 - = 특히 АВПРИ와 오렌부르크주 정부합동문서고(ОГАОО) 기록 간 불일치(특히 시기) 존재
 - 그럼에도 그의 역사적 역할과 성과가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잊혀진 것은 아쉬움
- 아이토프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 계획
 -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아 토착민 출신 현지인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도출
 - 이들이 서구인을 보조하는 수동적 역할만 수행했으리라는 편견도 일부 개선
 - 아이토프 외에도 멘디아르 백추린(1740-1821)과 알류코비치 바티르신(1825~?) 등 당시 통역가로 활동했던 또 다른 중앙아시아 인물들에 대한 후속연구도 시도 예정

-19-

참고문헌

1. АВПРИ, Ф. 161, 1-6 Опись 5, 1840 - Д. 1, Л. 1-6.
2. 곽성웅, "19세기 서투르키스탄의 반(反)러 이슬람 동맹 연구," 『中蘇研究』 제44권 제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0 가을), pp. 159-191.
3. 곽성웅, 「19세기 히바 칸국과 러시아제국의 외교 관계 연구: 주요 외교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08).
4. 홉커크, 피터. 『그레이트 게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숨겨진 전쟁』, 정영목 역(경기: 사계절, 2008).
5. Morrison, A. "Twin Imperial Disasters. The invasions of Khiva and Afghanistan in the Russian and British official mind, 1839 – 1842," *Modern Asian Studies*, Vol.48 No.1(2014), pp. 253-300.

-20-

참고문헌

6. Веселовский, Н. И. *Очерк Истор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сведений о Хивинском ханстве от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стоящего* (С-Петербург: Типография брат. Пантелеевых, 1877).
7. Иванин, М. И. *Описание зимнего похода в Хиву в 1839-1840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ип. т-ва Обществ. польза, 1874).
8. Почекаев, Р. "Мухаммедшариф Аитов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и права народов и государ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Гасырлар авазы - Эхо веков*, № 3/4 (2016), С. 237-242.
9. Султангалиева, Г. С. *Татарские переводчики, толмачи в Казахской степи (XVIII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XIX в.): монография в документах*, под ред. И. Г. Гумерова, А. М. Ахунова (Казань: ИЯЛИ, 2023).

감사합니다!

■ 제3분과 문학분과 (13:30-15:15):
러시아 영화, 소설, 희곡 연구

사회	최정현(고려대)	
	홍상우(경상대) 박교림(경상대)	러시아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길을 떠났다> 연구
발표	윤새라(UNIST)	아쿠닌의 횡단: 과거와 현재, 러시아와 일본
	박선진(계명대)	안드레예프 희곡에 나타난 '의식적 맹안' 고찰: 『스토리친 교수』를 중심으로
토론	황기은(서울대), 이형숙(고려대), 조혜경(대구대)	

러시아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 연구

홍상우, 박교립(국립경상대)

I 서론

러시아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2024)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연출 활동을 해왔던 자카 압드라흐마노바(Зака Абдрахманова) 감독의 장편 극영화 데뷔작이다.¹ 이 작품은 2024년에 개최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월드 시네마’ 부문은 작품성이 우수한 세계 각 지역의 영화들을 엄선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부문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높은 완성도를 반증하는 것이다.² 또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 이후, 이 작품은 2024년 10월 5일에 개최된 러시아 영화제 ‘등대(Маяк)’에서 최우수 데뷔작 상을 수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영화에 대한 러시아 국내외 평단의 호평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카 압드라흐마노바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영화 연출을 시작했으며, 그녀의 다큐멘터리 《기념 연도(Юбилейный год)》(2019)와 《자느이(Жаны)》(2018)³는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하였다. 저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인 마리나 레쥬베즈키나(Марина Разбежкина)의 제자인 자카 압드라흐마노바 감독은 보리스 흘레브니코프(Борис Хлебников), 나타샤 메샤니노바(Наташа Мещанинова)와 같은 뛰어난 러시아 감독들과 함께 공동으로 각본 작업에 참여하면서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를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주인공 아이코의 귀향에 대해 말하고

- 1)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스크바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아이코이다. 그녀의 나이는 30세이며, 이혼 경력이 있다. 그녀는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인 카자흐스탄 시골 마을로 가는데, 그곳에서 아빠의 첫째 부인인 아이코의 친엄마, 아빠와 사실혼 관계였던 두 번째 부인인 스베타, 아빠의 세 번째 부인인 베네라, 그녀의 아들과 딸, 고모 아미나 부부와 사촌 형제들, 그리고 할머니 등 대가족 전체가 모인다. 아이코는 아빠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딸이다. 아빠는 아이코의 엄마와 약 16년 전에 이혼했다.”(홍상우) https://www.biff.kr/kor/html/program/prog_view.asp?idx=68515&c_idx=384&QueryStep=2 (검색일: 2023.11.25.)
- 2) 참고로, 자카 압드라흐마노바 감독의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선정한 유일한 러시아 영화였다.
- 3) 자카 압드라흐마노바 감독 창작 세계의 단초를 제공하는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있는데, 오래전 고향을 떠나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던 아이코는 아빠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아이코는 고향에서 마치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끼며, 고향 마을 사람들도 아이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타자화한다. 또한 자신에게는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같은 존재이던 아빠가 세 번째 부인과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이 작품은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아이코가 겪어야 하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이 작품의 서사를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는 아이코, 아이코와 다늉의 동반자 관계, 아이코 아빠의 정체성, 그리고 아이코의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나누어서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서사 전개에 따른 분석 도중에 필요한 경우 영화 언어적 측면의 분석도 병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II 본론

1. 아이코(Айко)가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다.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는 주인공 아이코가 돌아가신 아빠의 장례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온 아이코는 카자흐스탄의 전통 의식에 따라 진행되는 장례식에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전에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빠에 대한 분노를 이제는 내면에만 간직해야 한다. 아빠의 세 번째 부인인 베네라(Венера)는 아이코보다 나이가 불과 5살 많다. 아빠의 젊은 아내인 베네라는 아이코를 형식적으로나마 환대하지만, 이복 여동생인 14세의 쿠카는 아이코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다. 카자흐스탄의 전통에 충실한 여성인 할머니만이 손녀인 아이코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위로한다.

고향에 도착한 아이코는 스스로도 이방인처럼 느끼지만, 가족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대부분도 그녀를 외지인으로 간주한다. 영화의 배경이 눈 덮인 모스크바에서 바람이 부는 카자흐스탄 대초원으로 이동한 것처럼, 아이코에게 고향 마을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장소일 뿐이다. 아이코가 눈 덮인 마을에 도착한 것은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아이코와 가족들과의 관계가 아직은 차갑다는 것이다. 그러나 곧 봄이 오듯이, 아이코와 가족들 간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 친지들이 아이코를 대하는 말투와 태도는 어색할 뿐이며,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모스크바 여자(москвичка)’로 부른다.

4) Максим Ершов, Минуту поплачем и будем супергероями: «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 Заки Абдрахмановой 09.10.24, Искусство кино, <https://kinoart.ru/reviews/minutu-poplachem-i-budem-supergeroyami-papa-umer-v-subbotu-zaki-abdrahmanovoy>(검색일: 2023.11.25.)

아이코가 이방인이라는 점은 그녀가 가족 및 친척들과 인사를 나눌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이코는 어색하게 사촌들과 포옹하며 인사한다. 이때 고모가 큰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이 말은 아이코가 단지 타향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향에서 외지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즉 아이코의 사촌 역시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공부했지만, 고향에서 그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는 가족들과 절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독 아이코만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 타자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공인 아이코는 화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 속 현실에서 그녀는 외지인이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녀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고모 아미나(Амина)는 아이코에게 스카프를 머리에 쓰라고 하고, 아이코는 거부감을 보인다. 이처럼 아이코의 가족과 친지들은 때로는 ‘모스크바 여자’라는 호칭으로, 때로는 관습의 강요로써 그녀를 타자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아이코를 ‘모스크바여’로 부르는 것은 아이코에 대한 일종의 차별과 배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는 마을 사람들이 아이코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시각적으로도 묘사한다. 예를 들어, 음식 준비를 하기 전에 아이코가 손을 씻으려 할 때, 물통에는 물이 없다. 텅 빈 물통은 아이코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아이코를 동향 사람으로 맞이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모스크바 여자’라는 호칭 외에도 고향에서 친지들이 아이코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이복동생 쿠카는 아이코의 화장품을 책상에서 모두 치워버리면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아이코가 외지인이라는 점은 그녀가 장례식 일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그녀는 일을 마치고 축사(畜舍)에서 쉬고 있을 때도 화장을 한다. 즉 아이코는 언제든지 변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가족 중에서 이복동생 쿠카가 아이코에게 가장 큰 반감을 보인다. 쿠카가 하는 말은 아이코를 당혹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겐 괴물같은 존재였던 아빠가 쿠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쿠카는 아빠가 생전에 아이코 걱정을 많이 했으며, 새해 전야에도 아빠가 아이코에게 전화했으나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쿠카는 아이코가 일 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금에서야 아무도 환영하지 않은 장례식에 왔다고 돌아가라고 요구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코의 상황을 카메라는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밖에는 흰 눈이 쌓여 있고, 고목 나무 그루터기 위에 소의 머리가 놓여 있다. 이것은 아이코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있었지만, 고향에는 여전히 과거의 전통과 관습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고향 마을의 풍경은 금발과 세련된 옷차림의 아이코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아이코와 친엄마와의 관계는 아이코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엄마도 역시 이미 외지인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아이코가 친엄마를 만나 포옹하고, 집 앞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는 이 모녀가 고향과는 사실상 절연하고 지내왔다는 것을 밝혀준다. 엄마는 아이코에게 수도 없이 전화를 했었다고 말했지만, 아이코는 엄마가 일 년에 단 두 번 전화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첫 번째 전화는 아이코에게 모스크바의 호텔을 알아봐달라는 전화였으며, 두 번째 전화는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이코와 그녀의 엄마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으며, 평소에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었다.

아이코에 대한 타자화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고모 아미나는 갑자기 아이코에게 왜 ‘러시아 남자’와 이혼했냐고 묻는다. 이 대사에서 ‘러시아 남자’와 ‘이혼’이라는 말이 또다시 아이코를 타자화한다. 고모 아미나는 아이코에게 이혼은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아이코는 반박한다. 아빠는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을 거듭했는데도 마을에서는 멋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영웅 대접을 받는데, 왜 자신만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쿠카가 화난 표정으로 방을 나가고, 카메라는 베네라를 클로즈업한다. 이후 카메라는 마주 앉은 가족 전체를 담아낸 후, 다시 각각의 인물을 클로즈업한다. 다양한 사연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이 가족이 아이코 아빠의 죽음을 계기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카메라는 이런 시선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아이코가 고향 마을의 전통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역시 그녀가 외지인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때 카메라는 아이코를 유독 주목한다. 아빠와 사실혼 관계였던 스베타가 아빠와 작별하기 위해 시체를 보러 들어갈 때, 아이코는 차마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그녀는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숨는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는 아빠와 이별할 수 없는 것이다. 카메라가 카자흐스탄의 전통 장례식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⁵⁾하고, 베네라와 쿠카를 비롯한 가족들은 진심으로 아이코 아빠의 죽음을 애도한다. 카메라는 아이코에 이어서 쿠카의 슬퍼하는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카메라는 이처럼 아이코와 쿠카에게 동일하지만 상반된 의미를 담은 클로즈업으로써 아이코가 고향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5)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장례식 장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인의 시신이 누워있는 집에서 장례식 참석자들이 오랫동안 울부짖으면서 애도하고, 친척들은 모스크바에서 도착한 아이코에게 즉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요구한다. 장례식에서는 ‘매장 전에 한 남자가 누워서 모든 것을 듣는다’라는 장례사의 말이 들리고, 아이코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간다. 또한 시신용 담요로 덮인 아버지의 시신을 밖으로 옮길 때, 그녀는 장례식에서 도망친다. 장례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인의 모든 빛은 상속인이 갚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사람들에게 고인과 채무 관계가 있는지를 세 번 묻고, 사람들은 모두 없다고 답한다. 이후 장례사는 고인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이때 일렬로 선 사람들은 “우리는 용서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전통 장례식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아이코의 아빠가 죽음으로써 아이코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시점에서 오직 아이코만이 여전히 생전에 아빠에 대해 가졌던 분노를 아직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코는 농담과 유머로써 자기 스스로를 타자화하기도 한다. 그녀가 하는 농담은 고향 마을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네라가 빵을 준비해서 아이코와 같이 마을을 돌아다닐 때 아이코는 고향 마을의 전통이 반대로 되는 상황을 상정한 농담을 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아이코는 카자흐스탄에서 장례식과 결혼식이란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 것 같다고 말한다. 이때 카메라는 룡뿏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카메라는 아이코의 농담에 대한 베네라의 반응을 바로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어서 아이코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해본 적이 있냐고 베네라에게 묻는다. 또한 아이코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말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많은 말들이 생존했을 것이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농담조로 말한다.

아이코가 하는 이런 말은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외부인으로 간주하는 아이코는 길을 가던 도중에 마을 여인을 만난다. 베네라는 그녀에게 빵을 주고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이때도 마을 여인은 아이코를 ‘모스크바 여자’로 부른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마을 여인은 아이코의 아빠가 재미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아이코의 아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판도 좋다는 것이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아이코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기도 한다. 즉 아이코는 이 여인에게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사람이기보다는 낯선 호기심의 대상인 것이다.

베네라와 아이코는 마을의 가가호호를 같이 방문해서 빵을 나누어준다. 아이코와 베네라가 이처럼 잠시 동반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코는 여전히 도시에서 온 이방인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녀가 베네라 뒤에서 자주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자세는 이러한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부각한다. 이때 그녀는 ‘모스크바 여자’인 것이다.

아이코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녀가 외지인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한다. 마을 사람들 모두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혼용하지만, 아이코는 러시아어로만 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코는 러시아어가 서툰 할머니와도 러시아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처럼 아빠의 가정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아이코는 고향에서 아직은 낯선 이방인일 뿐이며, 고향의 전통과 관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방인으로서 아이코의 정체성은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묘사된다. 그녀의 금발 머리, 모자. 세련된 디자인의 외투, 그리고 의상 색깔 등은 가족 및 마을 사람들과 아이코를 구별한다. 연한 브라운, 청색, 보라색 등 그녀의 의상 색깔은 도시적이다. 또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서로 카자흐어로만 대화할 때 아이코는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

2. 아이코와 다닉(Даник)이 동반자가 되다.

학창 시절 한때 서로 사랑했던 동창 다닉을 통해서 감독은 현지인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 아빠의 장례식을 피해서 밖으로 나온 아이코는 동창 다닉을 만난다. 다닉은 오랜만에 만난 아이코에게 여전히 호감을 보이지만 아이코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마을 상점에서 아이코는 우연히 다닉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시선은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했음을 나타낸다. 아이코는 다닉을 아래에서 위로 살펴보고, 장례식에 왜 가지 않았는지 그에게 묻는다. 다닉은 아빠가 대신 갔다고 대답하는데, 이때 이들의 대화는 숏-리버스 숏으로 처리되고 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반가운 표정을 클로즈업하면서, 이들을 교과서적인 숏-리버스 숏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코와 다닉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점은 이미 아이코의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아이코의 동창인 다닉이 과거에 아이코를 좋아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모임에서 다닉과 아이코의 사연은 헐리우드 영화 《노트북》(2004)⁶의 내용과 비교된다. 영화 《노트북》의 남자 주인공 노아와 다닉의 사랑의 고백 행위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닉은 여전히 아이코에게 관심을 둔다. 그는 아이코가 밖으로 나가서 걸어갈 때도 가게 앞에서 아이코를 바라본다. 또한 아이코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클로즈업될 때, 다닉이 차를 몰고 와서 아이코를 태우고 간다. 이처럼 다닉은 시종일관 아이코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 마침내 두 사람이 모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린다. 아이코는 영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지니고 있으며, 최소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예고이다.

이 쇼트는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코가 다닉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화면 밖에서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⁷ 이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과거의 아이코와 다닉을 재현한다. 그런데 현재 아이코는 흰털이 목도리처럼 장식된 연한 브라운 색깔의 세련된 도시 여성의 코트를 입고 있지만, 다닉은 매우 짙은 단조로운 브라운 색깔의 전형적인 시골 남성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 아이코의 의상과는 달리, 다닉의 의상은 스타일과 멋이 아니라 계절에 따른 활동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과거에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6) 다닉이 학창시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이코에게 구애를 하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아이코의 가족 중 누군가가 다닉의 그런 행위를 미국 영화 《노트북》의 남자 주인공이 했던 행동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영화 《노트북》에서 남자 주인공 노아는 여자 주인공 앨리에게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에 매달린 채로 사랑 고백을 했다.

7) 이 영화에서 감독은 디테일을 중시한다. 즉 자카 압드라흐마노바 감독은 중요한 사건이나 복잡한 대화보다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사소한 디테일이 더 관객의 뇌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작품에서는 눈 내린 겨울에 학교 운동장에서 마시는 코냑, 할머니의 주름진 손, 아이코가 아꼈던 인형의 촉감, 동창생인 다닉의 돗برا 연주 등이 사소하지만 의미있는 개인적인 기억에 해당할 것이다.

이어지는 다닉의 대사는 두 사람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해준다. 다닉은 아이코를 제외하고 동창들은 모두 고향에 남았으며, 아이코가 고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이코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닉의 희망이 반영된 의사 표시일 것이다.

다닉은 학창시절 자기가 패스해준 공을 아이코가 골로 연결시킨 적이 있다고 말한다. 다닉은 자신이 아이코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려는 듯하다. 아이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두 사람은 곧 다정하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 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마에 꿀밤을 때리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연인들의 놀이이다. 이것은 이성 간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게임이다. 즉 이들의 게임은 전형적인 연인들의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이코가 두 번 이겼을 때, 그녀는 다닉의 이마를 가볍게 때렸으나, 다닉은 자신이 이겼을 때 아이코의 이마를 의도적으로 세게 때리면서 우스운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유쾌한 게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 마을에서 아이코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닉이다. 다닉 역시 마을에서 친구들과 썩 잘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다. 가위바위보 놀이에 이어서 두 사람은 서로 모욕하지 않기로 손가락으로 맹세하는 게임을 한다. 이것 역시 연인들이 하는 놀이이다. 즉 두 사람은 연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다닉의 제안에 따라 아이코가 참석한 동창회 역시 아이코가 아직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코 동창 중 한 명이 아이코의 아빠가 폭력적이었다고 상기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아이코의 아빠가 학교 창문을 깨뜨려서 학생들이 감기 걸린 적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코 아빠의 폭력에 대해서 아이코의 동창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이코의 동창들도 아이코를 타자화한다. 그들은 아이코가 모스크바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투와 조롱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낸다. 아이코 외에 다른 모든 동창들은 졸업 후에도 계속 고향에서 살면서 자신들만의 배타적 공동체를 유지해왔으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코가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개척했다는 것에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편 다닉은 동창회에서 돔브라를 연주한다. 이때 카메라는 다닉의 연주에 감동하는 아이코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다닉의 돔브라 연주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이다. 다닉의 연주에 감동한 아이코 얼굴의 클로즈업은 그녀가 돔브라로 상징되는 카자흐스탄의 민족 전통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영화에서 아이코는 이 순간 거의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의 전통에 매료되는 것이다. 이후 다닉이 돔브라를 연주하는 동안 말들이 강물 위를 달리는 숲이 삽입된다. 돔브라 연주와 말 달리는 이미지의 교차는 카자흐스탄 민족 문화와 전통에 대한 상징적이고 시청각적인 묘사이다. 말들의 빠른 질주는 다닉이 연주하는 돔브라의 빠른 멜로디와 조응한다. 즉 마치 말들이 다닉의 돔브라 연주에 맞춰서 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아이코 주위에는 여전히 그녀가 거부만은 할 수 없는 고향의 정서와 풍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동창회가 끝난 후 아이코와 다늬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눈 덮인 길 위에 누워서 대화하는 에피소드는 아이코를 향한 다늬의 감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에피소드의 내용은 심각하지만, 감독은 여기에 유머를 곁들이고 있다. 두 사람은 추운 겨울밤 눈 덮인 길 위에 누운 채로 마주 본다. 아이코는 다늬의 돛برا 연주가 매우 훌륭했다고 말한다. 이어서 다늬이 아이코에게 키스하려 하자, 아이코가 피하면서 일어난다. 이 순간 다늬은 아이코가 모르고 있던 사연을 이야기한다. 아이코가 9학년 때 엄마와 함께 고향을 떠난 후 다늬은 약을 먹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이때 카메라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아이코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다늬의 말은 화면 밖에서 들리고, 아이코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아이코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짙게 배어있다.

자살을 시도했던 다늬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한 아이코는 다늬이 그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다. 이때 숲의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카메라는 앉은 채 위를 바라보는 아이코의 얼굴과 선 채로 아래를 바라보는 다늬의 얼굴을 숏-리버스숏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교과서적인 쇼트의 연결에 이어서 카메라는 두 사람의 역동적인 행동을 화면에 담는다. 안도하는 아이코가 얇은 미소를 지을 때, 다늬은 화가 난 채로 발로 눈을 차고, 뒤돌아서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걸어간다.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보이고, 아이코가 뒤따라 달려가서 뒤에서 다늬을 포옹하면서 사과하고, 자신이 나쁜 여자라고 말한다. 이 순간 아이코는 다늬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카메라는 이제 롱테이크와 들고 찍기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즉 카메라는 이 에피소드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의도가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아이코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코가 다늬에게 자신 때문에 불행했냐고 물어보면서 잠시 숨겼던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코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다늬의 반문에 의해서 깨진다. 다늬은 아이코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문하고 돌아선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심각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이 대화는 다늬의 유머로 마무리된다. 그는 아이코에게 “오마로바, 너의 손가락이 너무 야위어서 못생겼다”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아이코 역시 웃는다. 이후 가로등 밑의 밤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다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은 연민과 서정으로 충만해 있다.

이후에도 아이코와 다늬은 여전히 같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친근하게 대한다. 다늬이 세차를 하는 동안 아이코는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집에 아빠의 유일한 선물인 곰 인형이 남아 있어서 놀랐다고 말한다. 즉 아이코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비밀에 대해서 다늬에게 말한다. 아이코가 다늬에게 친근함을 느꼈다는 점은 그녀가 다늬에게 낯술을

마시자고 제안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술을 마시자는 아이코의 제안에 당황한 다닉은 그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그의 표정은 아이코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점프 컷으로 연결되는 다음 쇼트는 다닉과 아이코의 동반자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에피소드의 시작이다.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낸 다닉과 아이코가 밤에 서로 옷으면서 조용히 아이코 집의 문을 열려고 한다. 이것은 연인들이 밤에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전형적인 장면과 같다. 즐겁게 웃으면서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은 베네라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차를 같이 마시자고 말한다. 그런데 유쾌한 표정의 아이코와 다닉과는 달리 베네라는 우울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쿠카가 가출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아이코와 다닉은 본격적으로 동반자가 된다. 두 사람은 쿠카를 찾기 위해 다닉의 차를 타고 알마타로 향한다. 다닉은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아이코와 함께 쿠카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아이코는 이제 두 사람과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된다. 그녀는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다닉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이제 곧 갈등 관계였던 쿠카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즉 아이코는 가출한 쿠카를 찾아 나서면서, 그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고, 언니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코와 다닉이 경찰을 동반하고 알마타에 있는 쿠카의 남자 친구 집에 왔을 때, 쿠카는 남자 친구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한다. 아이코는 쿠카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쿠카의 남자 친구가 그녀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시켰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아이코와 다닉이 우여곡절 끝에 쿠카를 데리고 차를 운전해서 돌아오는 밤길의 부감 솟은 아이코와 다닉이 동반자로서 여정을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강조이다.

3. 아이코와 쿠카에게 아빠는 다른 사람이었다.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의 서사에서 핵심이 되는 모티프 중 하나는 아이코 아빠의 정체성이다. 즉 아빠가 사망한 후 아이코는 아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아이코에게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으며, 아이코의 엄마에게도 그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좋은 매형이었으며, 아이코의 할머니에게 좋은 아들이었다는 점이 가족들의 대화에서 드러난다.⁸ 세 명의 부인들에게도(그중 한 명인 스페타와는 사실혼 관계였다.) 아이코의 아빠는 다른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첫 번째 부인인 아이코의 엄마는 아빠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아이코는 이러한 아빠의 가정 폭력에 반항하여 고향을 떠나 모스크바로 이주했다. 즉 아이코에게 아빠는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8) Вадим Богданов, Рецензия на фильм «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 Разжимая кулаки, 08.10.2024
Интермедиа <https://www.intermedia.ru/news/390401>(검색일: 2023.11.25.)

그러나 사실혼 관계였던 두 번째 부인인 스페타에게 아이코의 아빠는 멋진 남자로 남아 있으며, 아이코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부인과 아이들에게 그가 더없이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다는 점이다.

이복동생인 쿠카가 고향에 돌아온 아이코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한 이유도 아빠와 관련된다. 쿠카는 자신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아빠를 아이코가 증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코에게도 아빠가 잠시나마 다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쿠카 방에 있는 많은 인형들 중에 어린 시절 아빠가 아이코에게 사준 곰 인형을 아이코가 발견하기 때문이다.

아이코는 선반에 있는 쿠카의 많은 인형들을 갑자기 집어 던지기 시작한다. 자신에게는 가혹했던 아빠가 쿠카에게는 많은 인형을 사준 것에 분노한 것이다. 이때 아이코는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죽은 아빠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녀에게 느껴진다.

아이코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아이코의 가족사가 어느 정도 드러난다. 아이코의 고모부는 한 남자의 세 명의 아내가 남편 집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한다.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 스페타는 아이코의 아빠와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군 복무하기 전 일 년 동안 동거했었다. 스페타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말을 할 때 카메라는 스페타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때 카메라는 어이없어하는 아이코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즉 스페타의 말은 화면 밖에서 들리고 화면 내부에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아이코의 얼굴이 강조되는 것이다.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아이코의 아빠가 세 명의 부인 각자에게 다른 사람으로 존재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고모부는 스페타에게 아이코의 아빠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멋졌는지 말해보라고 한다. 아이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아빠와 다른 가족들이 생각한 아빠가 너무 달라서 당황한다. 아이코와 아이코의 엄마는 아이코의 아빠가 스페타에게 꽃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이처럼 아이코의 고모부는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이야기하여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가족들의 식사 장면 이후 할머니가 기도하는 시퀀스 역시 아이코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할머니는 기도하는 중에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모두 부르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화합하길 기도한다. 아이코의 할머니는 아빠의 폭력을 만류하지 않았었으며, 현재도 단순히 가족들이 문제없이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특히 아이코가 더이상 반항적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할머니가 기도할 때, 후경에 어린아이가 누워서 잠들고 있는 솟은 아이코가 처한 미묘한 상황을 반영한다. 아이코는 아빠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았었지만, 아빠의 세 번째 아내인 베네라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으며, 아이코의 어린 막내동생 역시 가족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이코의 과거는 불행했지만, 어린 막내동생에게서는 그러한 과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코가 아빠의 영정이 걸려 있는 방 의자에 앉아 있는 쇼트는 아이코와 아빠와 관계를 시청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쇼트에서 카메라는 아이코를 정면에서 바라본다. 아이코가 테이블 끝에 앉아 있고 카메라는 반대편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쇼트에서 길게 늘어진 식탁은 아이코와 아빠의 관계를 드러낸다. 아이코와 아빠는 이렇게 길게 늘어진 식탁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다. 아이코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아이코의 눈빛은 생전에 아빠에게 품었던 반항심이 반영된 것이다. 후경에 있는 문, 양쪽의 이슬람식 장식, 길게 늘어진 이슬람식 테이블보 등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아이코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나타낸다. 방은 어둡지만, 아이코가 앉아 있는 중심부에는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다. 관객은 이 희미한 빛으로 인해 아이코가 반항적 태도로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계속 들리는 시계 소리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빠에 대한 아이코의 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시간은 흐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후의 쇼트는 더욱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이코 아빠의 영정이 있는 방이 보이고, 여전히 시계 소리가 들린다. 아이코는 이제 이 방에서 혼자 술병을 흔들며 앉아 있다. 카메라는 앉아 있는 아이코를 아래에서 바라본다. 아직 아빠에 대한 분노를 거둘 수 없기에 아이코는 술에 의지하고 있으며, 카메라는 아이코의 흔들리는 심리를 강조하기 위해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트의 전경에는 술병을 쥐고 있는 아이코의 손이 자리하고 있지만, 카메라가 정작 포커스를 두는 곳은 후경에 있는 아이코의 얼굴인 것이다. 손과는 달리 아이코가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심리 상태까지 숨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이코의 술병 굴리는 소리와 시계 소리가 겹치면서 이 시퀀스의 시청각적 효과는 절정에 달한다. 시계 소리는 아이코가 고향을 떠난 후 많은 세월이 흘렀으며,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아빠와 화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지만, 술병 굴리는 소리는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아빠에 대한 분노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 다시 카메라는 아빠의 영정을 클로즈업하는데, 그는 군복을 입고 있다. 카메라는 뒤늦게 아이코 아빠의 군사적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이미지는 아이코 아빠의 혼돈스런 정체성을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그는 가정 폭력을 휘두른 가장이었지만,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빠에 대한 아이코의 혼란한 감정은 쿠카의 방이 보이는 쇼트에서도 계속된다. 쿠카의 방 벽에 쿠카와 아빠가 둘이 있는 사진과, 쿠카, 아빠의 세 번째 아내인 베네라, 그리고 아빠 세 사람이 다정한 모습으로 있는 사진이 걸려 있다. 아이코의 아빠는 세 번째 부인 베네라와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아이코는 당혹해하며 사진들을 보고, 쿠카의 방에 있는 많은 인형들을 보다가 곰 인형 하나를 꺼낸다. 그 인형은 아빠가 생전에 어린 아이코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아이코는 아빠로부터 단 한 개의 인형을 받았을 뿐이지만, 쿠카는 수없이 많은 인형들을 아빠로부터 받았던 것이다.⁹

모스크바로 돌아가기 전 짐을 챙길 때, 아이코는 그 곰 인형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다. 그 인형은 아빠가 생전에 그녀에게 준 유일한 크리스마스 선물이기 때문이다. 즉 이 영화는 아이코가 죽은 아빠와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¹⁰

아이코의 성장기에 아빠가 폭력을 휘둘렀던 것과는 달리, 쿠카에겐 그가 다정한 아빠였다는 점을 쿠카 스스로도 강조한다. 엄마인 베네라가 집에서 아이코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할 때, 쿠카는 엄마에게 배신자라고 하며 아이코에게만 웃는 얼굴로 대한다고 화를 낸다. 쿠카는 이불을 챙겨서 거실로 나가는데, 그녀는 아이코와 한 방에 있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후 거실에 앉아 있는 쿠카를 방안에서 카메라가 롱테이크로 바라보고 있다. 쿠카에게 아빠가 자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아이코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

이런 맥락에서 쿠카와 어린 동생이 밖에서 놀고 있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엄마인 베네라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쿠카는 그네에 앉아 있고, 어린 동생은 널려 있는 빨래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놀고 있다. 전형적인 카자흐스탄 시골 마을의 이러한 평화로운 겨울 풍경은 아이코가 겪었던 불행한 어린 시절과 대비되는 것이다. 즉 아이코의 이복동생들은 아이코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코는 사망한 아빠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되고, 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고향 마을에 더 머물러 있기로 결심한다. 아이코는 아빠가 베네라와 이복동생들에게 다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우면서도 분노하지만, 그녀는 분노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녀가 새 가족과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 하는 것이다.

자카 압드라흐마노바 감독은 이처럼 이 작품에서 가부장적인 학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주인공 아이코는 아빠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9) 이 인형은 실제로 감독이 애정하는 인형이다. 자카 압드라흐노바 감독은 이 인형을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 가지고 와서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즉 이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에는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10) Тимур Алиев, «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 Об отцах, дочерях и супергероях, 10 октября 2024, оккокино, <https://blog.okko.tv/reviews/papa-umer-v-subbotu-ob-otcakh-docheryakh-i-supergeroyakh>(검색일: 2023.11.25).

그러나 자카 압드라흐마노바 감독은 아빠의 가정 폭력을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다루지 않는다. 아이코에겐 괴물같은 존재였던 아빠는 세 번째 부인의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아빠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코는 혼란에 빠지며, 자신이 알고 있던 아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4. 아이코에게 새 가족이 생긴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숏의 암전, 여주인공이 자신에게 말하는 “수퍼 히어로”라는 대사, 그리고 거울이다. 암전 속에서 들리는 젊은 여성의 울음소리와 “수퍼 히어로”라는 말은 관객에게 당혹감을 안겨준다. 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객들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후 거울이 보이는데, 이때 거울에 반사되는 아이코의 이미지는 영화 종반부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이후 아이코가 전화를 걸어 아빠의 장례식에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아이코를 흔쾌히 반기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관객은 주인공의 아빠가 세상을 떠났으며, 모스크바로 추정되는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여주인공 아이코가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화 시작 부분에서 여주인공의 직업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현재 배우들을 위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다. 즉 아이코는 타인의 외모를 변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직업은 향후 영화의 서사 전개에서 일정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주인공의 직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사실은 그녀가 분장이나 변신에 능하다는 의미이다.

아이코가 재능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이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장실의 상황이 말해주고 있다. 분장실에서 나이 든 배우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이코가 자신들의 분장을 맡아주기 원한다. 아이코는 나이 든 배우들을 능숙하게 다룬다. 그녀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타인의 얼굴을 관찰하고, 동시에 타인과 자신의 거울에 비친 모습도 보아야 하는 사람이다. 즉 그녀의 일은 외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내면의 변화도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외면은 내면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영화 후반부에 아이코가 갑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머물겠다고 말하고, 쿠카는 아이코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코를 옹호하고, 고모와 베네라는 어쩔 수 없이 아이코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때 거실과 다른 방을 연결하는 문이 열려 있다. 카메라는 인물들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고, 각자의 미묘한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즉 할머니는 아이코의 의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쿠카는 전적으로 반대하며, 베네라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고모는 속으로는 아이코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카메라는 이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코와 쿠카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는 쿠카의 가출이다. 쿠카는 알마타에 있는 연인의 집으로 떠났는데, 사실상 그녀가 가출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아이코와의 갈등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쿠카가 구토 증세를 보이고, 아이코는 쿠카와 베네라와의 갈등을 눈치챈다. 쿠카는 여전히 아이코에게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만, 카메라는 이때 쿠카의 어린 동생이 아이코 옆에 앉아서 놀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다. 막내동생은 이미 아이코에게 본능적으로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카메라는 아이코와 쿠카의 갈등, 그리고 어린 막내동생과 아이코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의 쇼트에 병치시키면서, 새로운 가족 탄생의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

쿠카가 누군가에게 전화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전히 엄마인 베네라에게 강하게 반항한다. 쿠카가 엄마에게 자신의 행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자, 아이코는 그녀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때 아이코는 쿠카에게 그러한 행동은 고아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쿠카는 아이코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 와중에 쿠카는 다시 세상을 떠난 아빠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쿠카와 베네라의 갈등은 이제 베네라와 아이코의 갈등으로 확산된다. 쿠카가 집을 나간 후 베네라는 쿠카에게 조롱하는 말을 한 아이코를 소파 등받이로 때리고, 카자흐어로 말한다. 이제까지 아이코와 러시아어로 이야기했던 베네라는 이 순간 아이코를 타자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코는 카자흐어가 서툴기 때문이다. 베네라는 아이코에게 “아빠가 무슨 짓을 했든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그는 죽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가라.”라고 말한다. 이때 또다시 시계 소리가 들린다. 아빠가 죽은 후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빠로 인한 가족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계 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강조하고 있다.

쿠카의 가출은 아이코가 쿠카를 위로해주고, 설득하는 계기가 된다. 즉 쿠카의 가출은 아이코와 쿠카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이코와 다늉이 알마타로 가출한 쿠카를 데려오는 도중에 쿠카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울부짖으면서 도주했을 때, 아이코는 쿠카의 남자 친구가 미성년자인 아이코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단지 쿠카의 몸을 원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아이코는 “너의 몸은 너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쿠카를 설득하고 달랜다. 이 상황에서 아이코는 쿠카와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아이코가 쿠카를 포옹하고 달린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다. 아이코와 쿠카에게 아빠에 대한 기억은 서로 다르지만, 아이코와 쿠카는 이제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려 한다. 영화 시작 부분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처럼, 아이코는 쿠카에게도 함께 ‘수퍼히어로’가 되자고 말한다. 이복 자매인 아이코와 쿠카는 이 순간부터 친자매 못지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영화 중반부에 아이코, 고모 가족, 베네라, 그리고 쿠카가 아빠의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쇼트에서 아이코는 아빠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본격적으로 극복하기 시작한다. 아이코가 스스로없이 베네라와 쿠카 등과 대화하고 어울리기 때문이다. 핸드헬드 카메라로 촬영된 이 시퀀스는 사소해 보이는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아이코의 사촌이 우연히 땅속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그것을 쿠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여준다. 모두 벌레를 보고 기겁하지만, 이들 사이에 쾌활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어느덧 그들은 가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어로만 주로 이야기하던 고모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혼용하고, 쿠카와 아이코가 웃으면서 포옹하면서, 이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 영화에서 아이코와 균형을 이루는 인물은 쿠카의 어머니이자 아이코 아빠의 세 번째 부인인 베네라이다. 그녀는 고통을 인내하고 남편에 순종하는 여성이었으며, 아이코는 베네라의 그러한 생활 방식에 거부감을 느꼈다. 베네라는 쿠카로부터 알마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고 아이코에게 말한다. 쿠카와 베네라의 솔직한 의사소통에 놀란 아이코는 자신은 엄마와 단 한 번도 그런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베네라가 쿠카와 자신의 관계는 아이코와 아이코 엄마와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아이코는 베네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말은 자신에겐 너무 잔인하다고 말한다. 아이코는 자신과 엄마에게는 가혹했지만 쿠카와 베네라에겐 다정한 가장이었던 아빠의 행적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코는 아빠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엄마와 솔직하게 소통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쿠카와 베네라의 모녀 관계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즉, 아이코의 아빠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한 반면, 베네라에겐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이코는 아빠가 엄마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할머니는 애써 모른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아이코가 아빠의 가정 폭력에 대해 회고하면서 담담하게 베네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아이코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침내 아이코는 고모와 사촌, 그리고 쿠카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옆에 앉아 있는 베네라에게 “이들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미소지으면서 말한다.

그러나 감독은 순조로운 문제 해결을 통한 결말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코가 베네라가 내민 손길을 거부하면서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내일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아이코의 얼굴에는 활기가 생긴다. 아이코는 베네라와 이복 자매들을 단순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빠로부터 얻은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아이코는 여동생인 쿠카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베네라와 쿠카 두 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코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아이코의 성격에 대한 베네라의 언급은 베네라가 매우 현명한 여성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베네라는 아이코가 ‘수퍼 히어로’¹¹⁾가 아니라 마치 ‘작은 늑대’ 같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후 아이코와 베네라는 마침내 서로 포옹하고, 아이코는 결국 눈물을 흘린다. 카메라는 롱테이크로 아이코가 우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 울음은 슬픔에 겨운 울음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려는 울음이다. 화해와 새로운 결심을 위한 울음인 것이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아이코는 영화 시작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우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영화 초반부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거울에 비친 아이코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그녀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으며, 얼굴에는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쳐 있다. 특히 분장대위에 놓여 있는 곰 인형이 의미하는 바는 아이코가 아빠를 단순히 잊은 것이 아니라, 아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카메라는 아이코에게 천천히 근접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처리한다. 이때 여전히 숲의 우측 상단은 무엇인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카메라가 아이코의 변한 모습을 완전히 이상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아이코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삶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아이코의 얼굴 일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신적인 그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인공의 대사는 “나는 수퍼 히어로야”이다. 아이코는 아빠가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심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을 “수퍼 히어로”로 부른다. 이 말은 아빠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한다는 아이코 자신의 다짐일 것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빠와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III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의 서사를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는 아이코, 아이코와 다늬의 동반자 관계, 아이코 아빠의 정체성, 그리고 아이코의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았다. 또한 이 작품에서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쏫을 영화 언어의 측면에서도 분석했다.

고향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아이코에 대한 서사는 결국 가족의 주제로 귀결된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가족의 주제는 단순한 화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이 영화는 화목한 가족에 대한 욕망이나 불완전한 가족의 비극보다는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겠다는 주인공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영화는 가족의 화합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상투적인 화해로 종결되지 않는다. 비록 아빠가 사망했지만, 그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이코는 깨닫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아빠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반항적인 십 대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녀는 적어도 아빠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다정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카 압드라흐노바 감독은 이 작품에 적절한 유머를 삽입하면서, 영화가 슬픔과 애도로만 끝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아빠의 세 번째 부인인 베네라가 순종하는 아내에서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의 여인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 그녀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영화의 종결은 상징적이다. 아이코는 마을을 떠나고,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영화의 주된 배경은 카자흐스탄의 시골 마을이지만 영화의 시작과 종결의 공간은 모스크바이다. 그런데 모스크바를 떠날 때의 아이코와 모스크바로 되돌아온 아이코는 다른 사람이다. 아이코는 아빠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여성에서 이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여성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영화는 일종의 성장 드라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 말미에 아이코가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은 성장 드라마의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코는 상처로 얼룩진 과거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코와 달리 베네라는 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으며, 운명에 도전한 인물이다. 즉 아이코와 베네라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 감독은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공감하는 듯하다.¹²

한편 이 영화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비교하고 있다. 즉 아이코가 살고 있는 모스크바로 대표되는 외부 세계와 카자흐스탄의 시골 마을을 대조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아이코와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는 서로에게 거의 전화를 걸지 않는다. 아이코는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연인과 사랑에 빠진 상태이다. 반면 카자흐스탄 시골 마을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베네라는 아이코의 어머니와는 달리 나이 든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일구었다. 바로 여기에 그녀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¹³ 또한 영화 초반부와 중반부에서 알 수 있는 아이코 외모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 연결된다. 영화 마지막에 한결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아이코의 모습은 그녀가 분장에 능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이코가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 속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독립된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에서 동시대 러시아 영화의 신세대 감독인 자카 압드라흐마노바는 짜임새 있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청각 언어, 즉 영화 언어를 적절한 지점에서 비교적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는 영화의 형식과 주제가 순조롭게 연결되는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2) 4:3의 화면비율은 이미지가 내러티브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등장인물들은 좁은 공간에 자주 위치하며, 장례식장에 있는 그들은 마치 사방의 벽에 갇혀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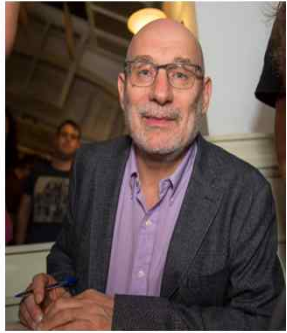
13) Алена Солнцева, Сеанс, 08 / 10 / 2024 Нервные окончания модернизации — «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 на «Маяке» <https://seance.ru/articles/dad-croaked-on-saturday/>(검색일: 2023.11.25.)

참고문헌

- 홍상우, 영화 《토요일, 아빠는 먼 길을 떠났다》, https://www.biff.kr/kor/html/program/prog_view.asp?idx=68515&c_idx=384&QueryStep=2(검색일: 2023.11.25).
- Алена Солнцева, Сеанс, 08.10.2024, Нервные окончания модернизации — «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 на «Маяке», <https://seance.ru/articles/dad-croaked-on-saturday/>(검색일: 2023.11.25).
- Вадим Богданов, Рецензия на фильм «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 Разжимая кулаки, 08.10.2024, Интермедиа <https://www.intermedia.ru/news/390401>(검색일: 2023.11.25).
- Максим Ершов, Минуту поплачем и будем супергероями: «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 Заки Абдрахмановой 09.10.24, Искусство кино, <https://kinoart.ru/reviews/minutu-poplachem-i-budem-supergeroyami-papa-umer-v-subbotu-za-ki-abdrahmanovoy/>(검색일: 2023.11.25).
- Тимур Алиев, «Папа умер в субботу»: Об отцах, дочерях и супергероях, 10 октября, 2024, оккокино, <https://blog.okko.tv/reviews/papa-umer-v-subbotu-ob-otcakh-docheryakh-i-supergeroyakh/>(검색일: 2023.11.25.).

아쿠닌의 횡단: 과거와 현재, 러시아와 일본

윤새라(UNIST)



아쿠닌 (2018)

아쿠닌의 횡단: 과거와 현재, 러시아와 일본

2024. 12. 7.

윤새라
(울산과기원)

Борис Акунин / Григóрий Чхартишvíли

- 1956년 그루지아 출생
- 모스크바에서 성장
- 현재: 영국 거주 (자발적 망명)



반 푸틴 시위(2011. 12.)

Erast Fandorin series (1998-2018)



1. «Азазель», 1876 год (published in 1998)
2. «Турецкий гамбит», 1876–1878 годы (1998)
3. «Левиафан», 1878 год (1998)
4. «Смерть Ахиллеса», 1882 год (1998)
5. «Особые поручения», 1886 и 1889 годы (1999)
6. «Статский советник», 1891 год (1999)
7. «Коронация», 1896 год (2000)
8. «Любовница смерти», 1900 год (2001)
9. «Любовник смерти», 1900 год (2001)
10. «Алмазная колесница», 1905 год, 1878 год (2002)
11. «Нефритовые четки», 1881-1900 (2007)
12. «Весь мир театр», 1911 год (2009)
13. «Черный город», 1914 год (2012)
14. «Планета вода», 1903, 1906, 1912 (2015)
15. «Не прощаюсь», 1918 год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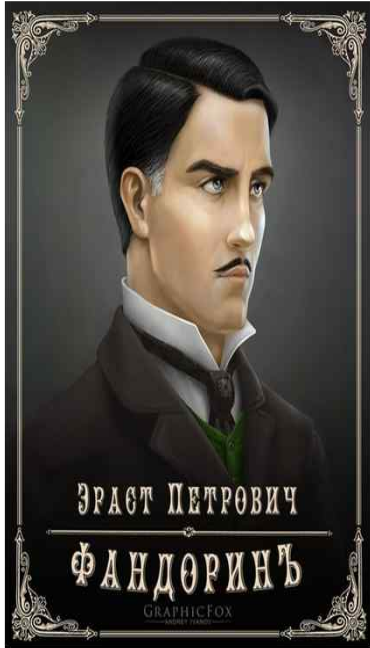
<http://www.akunin.ru/knigi/>

+ пьеса «Инь и ян»(陰陽), 1882 год (2005)

에라스트 판도린 시리즈 특징

- “Socialism Inside-Out: mass literature for the elite” (Bradeley Gorski)
- 풍부한 상호텍스트성 (조준래 등 참조)
- 노스탤지어: 역사소설의 고풍스러운 특징 활용
- 그러나! “A Country Resembling Russia: the Use of History in Boris Akunin’s Detective Novels” (Elena Bara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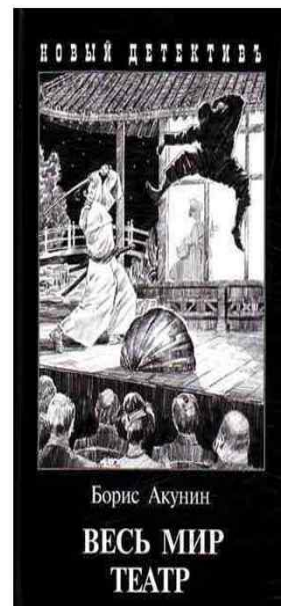
Akuni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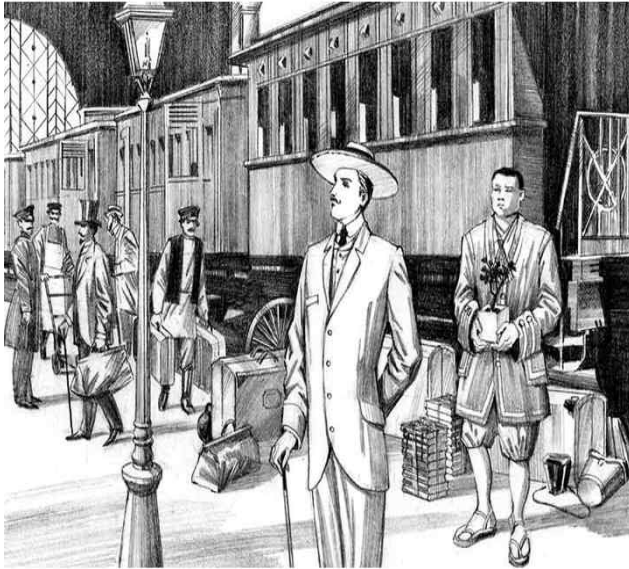
- 품격 있는 대중문학으로도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증명
- 할리웃 영화 문법을 주인공 판도린에게 적용: 외모, 두뇌, 모험, 로맨스
- 19세기말-20세기 초를 무대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계화가 정착된 100년 후의 세계관이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음

B. Akunin과 일본

- 모스크바 대학에서 일본 문학 전공
- 20대에 일본에서 몇 년 수학
- 필명: 悪人 (+ Bakunin)



시바타 마사히로



Igor' Sakurov illustration for Akunin. Smert' Akhille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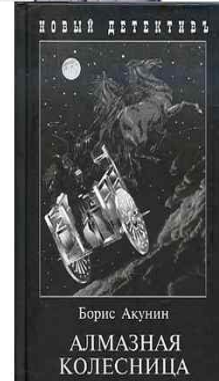


러시아와 일본: <금강경>

1. «Азазэль», 1876 год (published in 1998)
2. «Турецкий гамбит», 1876–1878 годы (1998)
3. «Левиафан», 1878 год (1998)
4. «Смерть Ахиллеса», 1882 год (1998)



- 일방향의 시간 흐름에 삽입된 시공간의 균열, 플래시백
10. «Алмазная колесница», 1905 год, 1878 год (2002)
 - I том. «Ловец стрекоз», in Russia, **1905 год**
 - II том. «Между строк», in **Yokohama**, 1878 год



L. 안드레예프 희곡에 나타난 '의식적 맹안' 고찰: 『스토리친 교수』를 중심으로

박선진(계명대)

러시아 문학계의 거목이었던 막심 고리키의 극찬을 받으면서 등단했던 산문 작가이자 극작가로, 러시아 은세기 문학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 레오니트 안드레예프는 특유의 탁월한 심리묘사와 날카로운 표현력으로 동시대 작가들의 시기와 독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 그러나 안드레예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연구량보다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안드레예프의 작품 중에서도 극작가로서의 안드레예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다른 희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미한 『스토리친 교수』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은세기는 격변기의 극적인 삶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문학적 개념을 탐색하기 시작했던 '문학적 격동기'였으며, 이 시기의 모순적이고도 다의적인 당대의 시대상을 그려내기 위한 많은 시도를 했던 작가 중에 레오니트 안드레예프도 있었다. 비판적 리얼리즘, 공상적 리얼리즘, 네오리얼리즘, 인상주의, 표현주의, 상징주의 등의 수많은 평가와, 더 나아가 네오리얼리스트로, 표현주의자, 상징주의자로서 분류되었던 안드레예프를 실존주의의 선구자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으며, '작은 도스토옙스키', 아방가르드 작가, 데카당스 작가라고까지 정의되어 졌다. 어떤 한 가지 문학적 경향이나 이론만으로 정의할 수 없었던 이 작가는 사실 시대를 앞서간 문학적 실험자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와 프랑스의 실존주의를 예견하기도 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알렉산드르 블록(Александр Блок), 안드레이 벨리(Андрей Белый), 바체슬라프 이바노프(Вячеслав Иванов), 콘스탄틴 바기노프(Константин Вагинов), 프란츠 카프카(Франц Кафка), 세라피온 형제(Серапионовы братья), 오베리우(ОБЭРИУ), 부조리극(театр абсурда) 등의 전통이 안드레예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평가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레오니트 안드레예프가 러시아 문학사에 남긴 발자취는 실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작가라는 라는 고리키(М. Горький)의 평가에 걸맞게¹⁾ 안드레예프는 극작가이자 극이론가로, 또한 비평가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연극 체계와 극작법에 대한 고찰 끝에 논저 『연극에 관한 서한들(Письма о театре)』²⁾을 발표하여 러시아 연극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연극 전반에 걸친 새로운 움직임에 호소했던 이 글에서 안드레예프는 사실주의극과 조건극에 침몰되어 가고 있던 당대의 연극에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점점 더 내면 깊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삶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심론 사상에 따라 개혁된 심리극, 즉 범심론극이 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안드레예프는 새로운 시대의 연극은 ‘드러나는 기분’이 아니라 ‘숨어있는, 전체적인 기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극이어야 했다.³⁾ 고리키는 안드레예프의 문학적 범심론의 원천을 고리키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하르트만의 『무의식의 철학』, 그리고 이 두 철학자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옮긴 19세기 러시아 철학자 코즐로프(A. A. Козлов)의 논저들에서 찾고 있다.⁴⁾

Неразрывная связь и единство субстанций, деятельностей, и содержания их, конечно, указывает на один и тот же источник в бытии целого мира. Поэтому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анпсихизма субстанции существуют не врознь, а составляют единую мировую систему, ибо они связаны, посредствующею между ними, Высочайшею Субстанциею, которую эти субстанции представляют хотя бы в самой малой степени.

-
- 1)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ледство: Горький и Леонид Андреев: Неизданная переписка, т. 72, М. 1965, стр. 278.
 - 2) Андреев Л.Н. Письма о театре // Собр. соч. в 6 тт., М. 1996, т. 6, стр. 511.
 - 3) 이러한 필요성의 절감에 따라 안드레예프는 철학 용어인 ‘범심론’을 문학 이론에 도입하게 된다. 이 용어의 철학적 해석을 살펴보자면, 그리스어로서 ‘전체.전부’를 가리키는 ‘pan’과 ‘영혼.마음’을 가리키는 ‘psyche’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범심론(панпсихизм)’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각자의 고유한 생명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각각의 ‘생명체’들은 태초에 하나의 커다란 ‘우주혼(Мировая душа)’의 구성성분들이었으며,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하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두가 다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된다. 몰랄론, 또는 범신론과 종종 헛갈려 이해되기도 하는 범심론의 뿌리는 고대의 플라톤(그의 ‘우주혼’ 이론은 범심론 이론과 일맥상통한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범심론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라이프니츠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지닌 원자들이라는 주장하에 단자론을 들고나와서는 세계의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숨어있다고 주장하던 때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이후 19세기에는 쇼펜하우어가 만물의 내적 본질은 의지라는 주장으로 범심론적 명제를 주창했으며, 같은 세기를 살았던 페히너는 심지어 식물까지도 감각과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20세기 미국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로이스는 천체도 영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며, 범심론의 맥을 이어간 현대의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영국의 화이트헤드가 있다.
 - 4) 코즐로프는 범심론 기초에 자신만의 독립적이고도 새로운 해석을 첨가했으며, 그에 의해 다시 태어난 범심론 이론은 안드레예프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았다.

물론 실체와 행위 및 그 내용 간의 끊을 수 없는 관계와 일치됨은 전 우주라는 존재 안에서 하나의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범심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실체들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체들은 그들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최상의 본체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체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주 약간씩이라도 이러한 본체를 나타내고 있다.⁵⁾

범심론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개별적인 실체로서 형상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실체 안에는 온 우주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우주는 그 실체 안에서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와 함께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안드레예프는 이러한 철학적 범심론을 연구해 최초로 문학 이론에 도입했으며, 그렇기에 안드레예프를 범심론극의 창시자라고 규정할 수 있다.⁶⁾ 안드레예프가 자신이 정립한 문학 이론으로서의 범심론을 완성해 갔던 것은 1910년대의 일로, 『예카테리나 이바노브나(Екатерина Ивановна)』, 『스토리친 교수(Профессор Сторицын)』, 『생각(Мысль)』, 『따귀 맞는 이(Тот, кто получает пощечины)』, 『개의 왈츠(Собачий вальс)』와 같은 일련의 작품을 발표하였다.⁷⁾

안드레예프는 이 외에도 새로운 연극의 창조를 위해 기존의 것들과 차별되는 완전히 다른 표현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안드레예프는 새로운 연극을 위해 음표와 같은 기호체계를 만들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주인공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특별한 휴지부인 '침묵'이라는 지문 아래에 숨겨두는 데 성공한다. 이러한 지문 '침묵'은 안드레예프의 희곡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의 긴장

5) Козлов А.А. Свое слово. Философско-литературный сборник. № 5. СПб., 1898. - С. 131.
6) 이러한 범심론 이론은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과도 닮았는데, 범심론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생명이 없거나 피상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다.
7) 안드레예프의 범심론극을 연구한 많지 않은 이들 중 한 명인 쿨리우스(С. Кульюс)는 안드레예프의 미학적 관점들을 그 발전 과정에 속에서 분석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을 사실극 시기와 신(新)사실극 시기의 두 가지 시기로 나누었다. 쿨리우스의 말에 따르면 이 두 시기는 '연극에서 자연주의와의 단절과 의식적인 제약성으로의 이행'으로 특징지어지며, 범심론극으로의 이행이 나타나게 된 것은 신 사실주의의 의미를 진지하게 재고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는 또한 안드레예프가 조건극에서 범심론극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게 된 데에는 체호프 연극의 영향이 컸으며, '심화된 심리주의(углубленный психологизм)'로의 이행을 의미했던 모스크바예술극장의 도스토옙스키 소설들의 극화 역시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Кульюс С. Теория театра «панпсихе» Леонида Андреева // Quinquagenario.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молодых филологов к 50-летию Ю.М. Лотмана. Тарту. 1972. - С. 159-160.)

이 극도로 고조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비밀스러운 내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 지문 ‘침묵’이 나타난다. 안드레예프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의 내적 대화를 자신의 희곡들에서 더욱 깊숙이, 안으로 들여다 놓는다. 그러고는 표면에 ‘침묵’이라는 이름의 흔적만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것은 ‘숨겨진 내적 대화’라는 기법으로, 안드레예프는 작품 활동 초기부터 이를 즐겨 사용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초기 작품으로는 ‘침묵’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편소설 『침묵』(1900년)이 있다. 안드레예프의 희곡에서 ‘침묵’이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희곡으로 『예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있다.⁸⁾

안드레예프의 작품에서 철학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희곡 『생각』인데, 이 작품은 안드레예프가 1902년에 발표했던 동명의 단편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단편 『생각』에서는 ‘생각’이 광기에 반대되는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데 반해, 희곡 『생각』에서 ‘생각’은 ‘광기 어린 생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광기 어린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부터 안드레예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니체의 초인사상이다.⁹⁾

『스토리친 교수』는 『예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매우 유사한 비평을 불러일으켰는데, 당대의 비평가들은 이 작품이 지나치게 통속적이고 심리적 허위가 있다고 비난했다. 스토리친 교수는 바보이고, 예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부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의견이었으며, 두 희곡의 특정 줄거리 유사하다는

8) 안드레예프는 ‘미래의 극장에 올려 질 희곡들을 위해서는 감독들도 따르고, 배우들도 따라야 하는 평범한 지문들로는 충분치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화의 리듬과 목소리 진동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 줄 음표와도 같은 어떤 기호들 및 주인공이 드러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주인공의 생각들이나 주인공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들이 자주 숨겨져 있는 특별한 휴지부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한다. (Письма Л.Н.Андреева к Вл. Немировичу-Данченко и К.С. Станиславскому: (1913-1917) / Публ. и коммент. Н.Р. Балатовой и В.И. Беззубова // Ученые записки Тарту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арту, 1971, вып. 266, стр. 300.)

9) 19세기 말에 발표된 니체에 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세계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후 사람들은 인간 생활의 전반을 지탱하고 있던 신이나 도덕과 같은 기본 개념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니체가 선포했던 ‘신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전 세계의 수많은 작가에게 충격적인 자극이 되었으며, 레오니트 안드레예프 또한 이러한 작가 중 한 명이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탐닉한 채 청소년기를 보냈던 안드레예프는 이 작품에서 만나게 된 ‘초인’의 형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초래할 수 있는 파멸성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안드레예프는 초인에 대한 글을 썼던 수많은 작가 중에서도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뒤를 잇는다고 볼 수 있다. ‘신은 죽었다’라고 부르짖던 니체의 외침은 세상과 인간을 가둬두고 있던 울타리를 단숨에 날려버렸으며, 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가 신의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유혹의 열매를 남기게 된다.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콜리코프가 자신의 논저에서 언급한 대로 예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남편은 '자신의 허구, 환상을 사실로 착각'하여 아내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간통을 직접 목격한 스토리친 교수는 '이 자명한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환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일 것이다. 비평가들의 관찰과 비난이 억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들은 작가의 가장 중요한 의도를 비껴갔다.

『스토리친 교수』는 평생을 학문에 바친 위대한 학자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로, 그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집안에서 스토리친 교수는 도둑질당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은 아들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아내의 정부로, 그는 아예 이 집안의 식솔로 눌러 앉아있는 상태이다. 스토리친 교수는 오랜 세월 거짓된 이상주의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현실에 대한 '맹안(盲眼)'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마침내 실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가 보게 된 현실은 그에게 사형선고처럼 다가오게 된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주인공을 심판하면서 이들이 예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인공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안드레예프의 의도와 전혀 다른 행보였다. 스테폰의 지적대로 안드레예프는 독자와 관객에게 이 위대한 학자인 스토리친이 정확히 어떤 학문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다.¹⁰⁾ 작품 속에는 스토리친 외에도 그의 친구 텔레마호프라는 또한 명의 학자이자 교수가 등장하는데, 그는 제3막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스토리친과 한 쌍으로 등장하여 한 쌍으로 연극을 마무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대사 역시 그의 몫이다. 텔레마호프는 의사이자 의학교수로, 자신을 '생물학자이자 현실주의자'라고 두 번이나 정의할 정도로 주인공의 반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하지만 텔레마호프의 직업이 의사인 것은 무대에서 관객에게 명백하게 전달되는 데 비해 스토리친이 몸담은 학문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저자인 안드레예프의 의도이자 장치이다. 극 중 스토리친은 자신이 항상 '아름다움'을 꿈꾸었다고 말한다. '아름다움'은 스토리친의 사상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 중 하나이다. 안드레예프가 처음 이 희곡에 붙인 제목은 '불멸'이었는데, 작품 속에서 '불멸'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즉 스토리친이 대표하고 있는 학문

10) Степун Ф. «Екатерина Ивановна» Л. Андреева на сцен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 // Северные записки: Литератур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ежемесячник. 1913. № 2 (февр.). С. 125.

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와 가까운 학문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평생의 업에서도, 그로 인해 형성되었을 사고방식에서도 텔레마호프와 대조를 이루는 스토리친은 명백히 보이는 사실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의 ‘의식적인 맹안’으로, 자신의 이상향인 아름다움에 대립하는 현실로부터의 무의식적 도피이기도 하다. 일부 비평가들은 스토리친의 이러한 맹안이 순진함과 고상한 이상에 대한 맹목적 믿음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스토리친의 ‘맹안’과 투쟁하는 ‘현실주의자’ 텔레마호프 역시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 초입부터 스토리친은 주변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실은 그의 시선을 피해 갔을 법한 세부적인 일까지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제3막에 가서야 밝혀지는데, 과거 스토리친은 아내인 엘레나가 아이들의 목숨과 행복을 담보로 용서를 구했을 때 그녀의 부정을 용서해 주었고, 이후 10년간 그는 아내의 맹세를 믿어주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Нет... Еще сегодня профессор Телемахов упрекнул меня в нечестности или глупости, в том, что я нарочно закрывал глаза... но разве он, разве вы все можете понять, что я честно не хотел видеть и не видел всех гнусностей ваших? Разве вы все можете понять, что я честно отрицал самые факты? Факт! Что такое факт, думал я, со всюю иллюзорностью его движений и слов, когда передо мною такой незабываемый камень, как твоя клятва, мое достоинство всей жизни. О дурак, дурак! (IV, 509).

됐소... 오늘만 해도 텔레마호프 교수가 나를 비난하더군. 정직하지 않다고, 명칭하다고 말ियो. 내가 일부러 눈감아 주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 그가, 당신네 모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소? 나는 당신들의 그 모든 추악함을 정말로 보기 싫었고, 정말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यो. 그 모든 사실이란 것들을 난 진심으로 부정하고 있었다는 걸 당신들이 어찌 이해할까? 사실이라! 난 그 사실이라는 게 가진 동작과 언어의 모든 허망함에 근거해 사실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소. 왜냐하면 내 앞에는 당신의 맹세가, 내 모든 삶의 가치와도 같은 굳건한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यो. 오, 난 바보였어, 바보였어!

스토리친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은 책 속에 파묻혀 사는 교수의 순진함이나 아둔함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썩워 놓았던 의식적 맹안이었다. 그가 맹안을 벗어나 정안(正眼)이 되는 순간, 그의 아내가 한 맹세는 깨어질

것이고, 이는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의 파멸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안드레예프는 스토리친의 이러한 '정직한 맹안'에 대한 친절한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맹인이 스토리친의 대립자로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스토리친 아내의 정부인 사비치이다. 사비치는 자신이 교수와는 달리 완전한 '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말해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사비치가 스스로의 진실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비겁한 악당이 자 좀도독인 그는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며, 절대로 겁쟁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비치가 이러한 자기 평가를 함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다는 것이다. 사비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직하게 맹안'이며, 이는 스토리친이 결심한 '맹안'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안드레예프는 이런 식으로 '정안'과 '맹안'을 전혀 다른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빛과 어둠이 아닌 무의식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스토리친 교수』에서 빛과 어둠은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고 있는데, 서로 대조되거나, 서로를 꿰뚫고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제1막에서 스토리친의 서재는 어둠이 우세한다.

«Окна на улицу завешены тяжелыми портьерами <...> На большом письменном столе рабочая лампа с непроницаемым абажуром». Главный источник света на сцене - лампочка, с которой «зеленый колпачок снят, чтобы виднее было», - поставлена сбоку, «в стороне на столике». (IV, 474)

거리를 향해 나 있는 창은 나사(羅紗)로 만든 묵직한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며 (중략) 커다란 책상 위에는 불투명한 갓이 씌워진 등이 있다. (중략) 소파 옆 구석진 자리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 그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작은 전등은 방을 더 밝게 하려고 갓을 벗겨 놓았다.

2막에서 배경은 근교인 오제르키로 옮겨간다. 가을이지만, '햇살과 고요함, 그리고 황금빛 평온함으로 가득찬' 놀랍도록 맑은 날이다. 그러나 이토록이나 밝게 시작했던 제2막은 점차 몰려오는 어둠 속에서 끝나게 된다.

Темнеет. На некоторых дачах загорелись первые вечерние огоньки.(IV, 503)

날이 어두워진다. 몇몇 전원주택에서 불을 밝힌다.

어스름과 밝음은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낸다.

Княжна идет на террасу, с каждым шагом становясь все сумрачнееи строже.

Сторицын сосредоточенно думает, лицо его ясно и спокойно.(IV, 498).

공녀가 테라스로 간다. 한 걸음 한 걸음 땀 때마다 점점 더 침울해지고 준엄해진다. 스토리친은 생각에 잠겨 있다. 그의 얼굴은 맑고 평온하다.

3막에서 배경은 다시 스토리친의 서재로 이동한다. 제1막에서 어두웠던 서재와는 다른 모습이다. 두꺼운 커튼은 활짝 걸어져 있고, 이미 저녁이지만 실내의 전등과 창밖의 전광판 광고가 이중으로 서재를 밝히고 있다. 막의 중반에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의 상태를 의미하는 빛과 어둠이 또다시 강조된다. 스토리친은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 한순간의 섬광만이라도 비추어지기를 기도하며 부르짖는다.

Боже мой, как темно, как темно...(IV, 511)

하느님 맏소사, 너무 어둡군, 너무 어두워...

3막이 끝나갈 때 스토리친은 열린 커튼을 통해 온 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4막은 텔레마호프의 서재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서재는 1막에서 묘사된 서재와 정반대인데, 책과 종이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스토리친의 서재가 동굴을 연상시킨다면, 텔레마호프의 서재는 모든 것이 엄격한 질서 속에 정리되어 있다. 저녁이 되자 사건이 다시 전개된다. 날씨가 바뀌었고, 마당에는 비바람이 분다. 폭풍이 시작되었으며, 홍수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재 안은 환한데, 밝은색의 벽지도 한몫하고 있다. 책상 위의 램프 외에도 전등이 두 개나 더 있는데, 모두 흰 전등갓으로 씌워져 있다. 커튼이 달리지 않은 창문들은 바깥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며, 정원과 공터가 내려다보인다. 사건이 결말에 가까워지자 텔레마호프는 전등 중 하나의 스위치를 끄게 되고, 방은 어두워진다. 결말에 이르렀을 때 집안은 어둠 속에서 격렬하게 몰아치는 날씨와 하나가 되어 있다. 극이 전개되는 내내 모든 사건과 인물의 내적 상태는 빛과 어둠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비치와 달리 스토리친은 자신의 불완전성과 죄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맹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아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심판받고 대중 앞에서 치욕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스토리친이 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자신의 순수성을 잃게 되는 순간이 도래한다.

Наступает момент, когда Сторицын готов расплатиться еще более страшной ценой - утратой собственной чистоты: «А что если мы поедem с тобой туда? Понимаешь - куда все ездят? А? Вот будет штука капитана Кука? Сергей! Я требую! Прибщи меня к твоему ничтожеству, к великой грязи мира сего... <...> Свали меня на площадь, как падаль, грязный мусор...(IV, 519).

너와 내가 함께 그곳에 가 보면 어떻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두가 가는 그곳으로 말이다, 응? 쿡 선장의 물건이 생길 게다. 그 물건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세르게이! 나는 네게 요구하겠다! 나를 너의 그 저급한 세계로 인도해 다오, 그 세계의 위대한 오물 속으로 말이다.... (중략) 나를 죽은 짐승의 시체처럼, 더러운 쓰레기처럼 광장에 쏟아 버리거라...

그러나 안드레예프는 자신의 주인공을 위해 전혀 다른 대가를 준비해 두었다. 맹안을 벗어난 그는 집을 떠나간다. 안드레예프는 이 작품의 슈제트를 역설적으로 구성해 놓았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주인공은 수년간의 '맹안'을 거부하여 눈을 뜨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집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상황의 내적 의미는 슈제트와 연관되어 있으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개안(開眼)을 거부하고 맹안을 선택한 것이다. 신화 속 오이디푸스 왕처럼 말이다.

결말에 이르러 스토리친이 집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날 공녀 역시 집을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는 동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비평가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공녀의 행동에 대한 외형적 동기를 찾을 수 없기에 독자들은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만물의 근본적인 본질에 동기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결말에 이르러 두 명의 노숙자, 즉 젊은 아가씨와 노인이 관객 앞에 등장한다. 바로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이다. 두 눈을 감고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이 집이라는 사실이었다. 눈을 감고 바라보는 것이다.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가 특별한 시력, 즉 에피파니를 획득하게 된 이유이다. 이렇게 언젠가 ‘맹안’이었던 스토리친의 ‘개안’은 그리스인들이 테이레시아스나 호메로스에게 부여한 종류의 특별한 시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토리친의 마지막 등장은 맹인의 등장이다.

Выходит Сторицын, слепой к окружающему, страшный в своем выражении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и и полной уже отрешенности от видимого.(IV, 534)

그는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듯 무언가에 무섭도록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걸어 나온다.

결말에 이르러 친구이면서도 반대자로 존재하는 듯했던 스토리친과 텔레마코프가 양극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텔레마코프의 가족사가 스토리친의 가족사와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었다. 텔레마호프 역시 아내에게 속았고, 그답지 않아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했는데, 바로 냉철한 현실주의자로만 보였던 이 의학교수가 15년 동안이나 집 나간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스토리친의 인생사가 오이디푸스적 운명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오이디푸스 분장’으로 마무리되는 바로 그 순간, 스토리친은 ‘키에 맞지 않게 짧은 텔레마코프의 프록코트’를 입고 관객 앞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 우스꽝스러운 복장 역시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숨겨진 내적 일치를 나타내는 징표라 할 수 있다.

레오니트 안드레예프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극을 탄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작가의 노력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은 러시아 희극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존의 것들과 차별되는 완전히 다른 표현 수단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시도했던 많은 심리학적, 철학적 기법과 다양한 시도는 이후 러시아 문학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여러 훌륭한 작가들의 성장을 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실주의 이후 다채로운 가치를 뻗쳐가고 있던 은세기 러시아 문학과 그 이후의 문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굳건히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안드레예프 자신도 오이디푸스처럼 맹안으로 남아 떠돌아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격변기의 러시아에서 그가 겪었던 가혹한 현실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맹안으로 쓰러져갔던 스토리친 교수의 그것보다 더 나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 제4분과 어학분과 (10:30-12:00):
러시아어를 통해 본 갈등과 교육

사회 한만춘(상명대)

김성완(계명대) 언어게임 기제 연구를 통한 러시아어 교육 재고

발표

De, Eduard
(계명대)

Лекс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эвфемизации в
контексте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язык, формирующий восприятие концепта
«война»

토론 이새봄(중앙대), Pospelova Marina(수원대)

언어게임 기제 연구를 통한 러시아어 교육 재고

김성완(계명대)

I 서론

비트겐슈타인은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올바른 사용과 올바르지 못한 사용의 경우를 연구한 언어철학자로서 인간의 모든 언어 활동을 ‘언어게임’으로 간주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도구를 의미하는 ‘실체적 용도’이며 하나의 단어 혹은 특정 신체 행위의 의미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¹⁾ 달리 말하면 모든 언어 활동은 맥락에서 그 의미가 규정되고 특정한 맥락 속에서만 소통의 완성도, 즉 효과적인 상호 이해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의 언어 사용은 철학적 인식과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상을 둘러싼 모든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 현상을 관찰, 분석하는 것은 외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모든 언어의 기본 단위 중 하나인 단어의 변화는 한 사회의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불러온 언어생활의 변화는 사회문화의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언어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예가 된다. 의료 전문가의 전유물이던 의학 용어가 일상어의 지위를 갖게 된 변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된 지금 온라인은 언어의 대변신을 불러일으키는 최적의 소통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언어의 변화는 그 수가 방대하기도 하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언어 변화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주로 확산하는 새로운 단어의 탄생과 기존 의미의 변질 등의 언어 변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모든 언어에는 최소한 수만 개가 넘는 단어가 존재하며, 그 모든 단어는 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단어가 쓰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사회적 공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문화 변화와 언어 변화의 역동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단어의 실존은 다른 단어와 공존하기도 하며, 때로는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축소된다. 사회문화적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화는 창조성을 기반으로 수없이 생성되고 유통되며, 사라지는 단어를 양산한다. 이와 같은 단어의 변화, 신조어의 탄생은 대부분 기존 언어를 재료로 새롭게 조합되거나 축소, 형태의 변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못지않은 빈도수로 외국어 차용에 의한 단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1) Hardwick. C.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김진철·정병찬 역. 대구. 정민사. 1985. 42쪽.

이처럼 사회변화에 따른 어휘 변화와 함께 기존 언어의 음운, 형태, 통사적인 규범이나 규칙 등도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의 새로운 규칙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사회적 맥락에 따른 이 모든 언어 활동의 변화, 구체적으로 한 어휘의 음운, 형태, 통사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 생성, 소멸의 과정은 일종의 언어게임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레베제바(Е.Б. Лебедева)는 자신의 논문에서 현재 생성되고 있는 모든 특정 그룹의 속어나 슬랭 또한 언어게임의 산물이라고 간주한다.²⁾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언어의 변화, 그 구체적인 실현은 맥락을 통해 생존 의미를 획득하게 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소통 도구로 불변의 규칙이나 용법을 갖지 않은 언어 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개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결국, 기존 언어와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언어 변화는 일종의 ‘언어게임’(Языковая игра)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게임’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광의의 개념은 인간의 모든 언어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협의의 ‘언어게임’을 고려할 때, ‘언어게임’은 새롭게 생성된 단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추가와 퇴화 등 전반적인 언어 변화의 원초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언어게임은 언어 변화의 구체적인 수단인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게임’에 대한 연구는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른 언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하는 동시에, 언어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빠두체바(Е.В. Падучева)의 언급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언어게임이 언어학 연구에 있어 “유용하고 설득력 있는 예시의 출처”(источник полезных и убедительных иллюстраций)이다.³⁾ 이는 언어게임에 대한 고찰이 다양한 언어학 연구 분야에 있어 언어 규범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수많은 기능에 대한 진지한 사고와 통찰, 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게임은 일종의 “말의 병리학”(патологическая речь)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직된 규범에서 벗어나고 부조화의 반전을 이용하여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언어게임의 특성상 원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언어게임은 언어학의 어휘론 때로는 의미론 연구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언어학의 어휘론 연구는 첫째, 어휘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둘째, 어휘의 의미에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는 작업, 셋째, 어휘 형성과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새로운 어휘의 생성에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는 어휘론의 한 분야와 언어게임의 밀접한 상관성을 바탕으로 언어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러시아 고유의 언어적 특징을 다루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최근 기존 단어의 분석보다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발화 현상을 규칙화하는 것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연구 동향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2) Е.Б. Лебедева. Уточнение понятия “языковая игра” в лингвистике.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 4. 2014. с. 62.

3) Е.В. Падучева. Тема языко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сказках Льюиса Кэрролла. СиИ, № 18. 1982. с. 77.

한편,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대상은 단어이다. 어려서부터 외국어 환경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학습한 경우라면, 별도의 어휘 학습이 비효율적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모국어에 의한 인지능력이 확립된 상태로 제2외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어휘학습은 외국어 학습의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언어게임과 조어와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어휘 교육 현장에서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학습 및 교수 자료를 마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신생 단어가 생기고 사라지는 현대 러시아어 교육에서 단어 생성 규칙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는 살아있는 러시아어 교육의 필수요건이다.

본 연구는 언어게임의 기제로서 다의미 (полисемия), 동음이의어 (омонимия), 문자화 (буквализация), 단어 내적반의어 (энантисемия), 임의 해석 (оказиональная интерпретация)과 관련된 러시아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어떤 메카니즘으로 신생 단어 조어 및 언어생활의 변화에 기능하는가를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은 러시아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교수법 자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더욱이 언어게임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텍스트의 예시는 학습 동기를 부추기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이다. 사회적 맥락과 연계되어 변화하는 어휘 생성과 언어게임의 역동적 관계의 연구는 원론적인 러시아 어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기제를 토대로 한 언어게임의 구체적인 예시의 고찰은 효율적인 러시아어 학습의 지평을 넓힐 것이다.

언어학에서 언어게임은 전통적으로 문체에 특별한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정형화된 언어 규범과 표준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자로부터 특별한 반응과 이해를 돌출해 내는 언어게임에 의한 다양한 표현은 모든 언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언어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언어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는 구어체, 문학 작품, 광고, 미디어 언어 등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광범위한 확산과 더불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동시대의 언어 상태와 동향의 연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의사소통 영역에서 일어나는 언어게임 연구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언어게임에 대한 정의와 그 기능에 대한 해석 또한 매우 다양하다.⁴⁾

그 정의와 기능에 있어 단편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언어게임에 대한 문제는 언어 철학 영역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연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서 제시된 언어게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4) 언어구조와 관련한 연구자로는 Н.В. Данилевская, Е.А. Дубеник, А.П. Сковородников 등의 저서가 있고, 구어체의 언어게임과 관련한 연구자로는 Ю.Д. Агресян, Т.А. Гридина, Е.Ю. Шашурина 등이 있다. 이외 광고에 나타난 언어게임 연구자로는 Л.П. Амири, С.В. Ильясова, Е.А. Земская를 꼽을 수 있다. 작가 개인의 언어게임 양상에 관한 연구자로 Т.А. Букирева, А.Н. Донецкий, Г.Ф. Рахимкулова 등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엎혀 있는 활동들 전체를 언어게임이라고 정의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언어란 각 나라가 쓰고 있는 다른 말의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사용됨으로써 전혀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말까지를 포함한다.⁵⁾ 부연하면, 공통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대학에서 쓰는 한국어와 오지의 마을에서 쓰는 한국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언어가 쓰이는 법원, 시장, 학교 등의 삶의 형태가 다른 것이라 같은 언어지만 다른 의미의 언어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쓰이는 곳의 다양한 삶의 형태, 혹은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때로는 유사하게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왜 전화했냐는 질문에 ‘그냥’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서로 아는 사이이지만 무료한 어떤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했을 때, ‘그냥’이라는 단어는 무료함에 특별한 용건 없이 전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 짝사랑하는 이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어 ‘그냥’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갑자기 보고 싶어서’ 혹은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어서’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은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언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은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더라도 각자가 가지는 삶의 형태, 맥락이 다르다면 그들의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이 한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인 맥락에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양한 삶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언어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란 개념이 가진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새로운 상황에서 발화되는 언어는 매번 새롭게 연출되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언어 단위의 생성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어떠한 불변의 규칙이나 패턴에 종속되지 않는다. 언어의 의미는 오로지 발화되는 상황과 맥락, 발화 주체와 청자의 일상이나 언어 환경에 달린 것이다. 이는 언어를 실용적인 개념으로 보고 언어의 의미란 환경으로부터 괴리될 수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명제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II 언어게임의 대표적 수단 및 유형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개념이 러시아에 소개될 즈음, 쟈스까야(Е.А. Земская), 끼다이고로드스까야(М.В. Китайгородская), 로자노바(Н.И. Розанова)의 공저 『Русс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Фонетика. Морфология. Лексика. Жест』가 소개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언어게임을 미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과 동일시하

5)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책세상. 2006.

면서, 삶의 형태, 맥락, 상황에 따른 언어 의미 창출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명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니꼬프(В.З. Санников)는 『Русский язык в зеркале языковой игры』에서 코믹함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같을지라도 상황적 게임과 언어적 게임을 구분하면서 언어게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게임의 기본 메카니즘은 언어 단위 체계와 규범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희극적 효과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 주어진 맥락 속의 언어 규범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언어 단위를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⁶⁾ 다음은 언어게임의 적합한 한 예이다.

- Уже третью неделю держатся морозы около - 30. Когда это кончится!
(3주 동안 영하 30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언제나 끝이 날런지!)
- Вряд ли дождемся... Вы же знаете, что Россия к нам холодна.
(끝나지 않을걸요... 아시잖아요. 러시아가 우리에게 차갑다는 것을.)

위의 예에서 형용사 ‘холодна’의 일차적 의미는 ‘춥다’이다. 하지만 화자는 그 의미를 바탕으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발화하고 있다. 그 숨겨진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대화 주체자의 삶의 맥락이 공유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형용사 ‘холодна’가 가진 다의미에 대한 정보 보유가 대화 주체 모두에게 선행되어야 한다. 부연하면, 비트겐슈타인의 지적처럼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으려면, 정의(definition)의 일치뿐 아니라, 판단의 일치(agreement in judgement)가 요구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와 동반하는 언어 활동의 변화에 나타나는 언어게임 연구를 통해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언어게임의 특정 기능을 보장하는 다양한 기법의 언어적 특성을 바탕으로 언어게임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어휘의 다의성(полисемия)과 동음이의성(омонимия)

언어게임⁷⁾은 특별한 목적을 상징하고 일어나는 언어행위이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경직된 규범이나 식상함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거나 발화된 단어의 개념이나 표현력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진다. 언어 게임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 간의 불일치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언어게임은 분명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에 의한 행위이다.

6) В.З. Санников. Русский язык в зеркале языковой игры.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9. с. 108-114.

7) 언어게임이라는 말보다는 '말 게임'(речевая игра)라는 말이 더 정확한 명칭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언어게임은 결국 상황이나 대화 상대자의 특성을 고려한 발화를 통해 그 가치와 효과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Т.А. Гридина. Языковая игра: стереотип и творчество. Екатеринбург. Изд-во Уральского гос. педагог. ун-та. 1996. с. 12.

동일한 품사의 단어로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는 구분된다. 동음이의어는 생성 기원이나 의미 관련이 없는 단어의 우연적 일치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의어는 생성의 기원이나 역사에 있어 서로 관련된 의미를 동시에 가진 단어이다. 예를 들어, 소나무 숲을 의미하는 ‘бор’는 화학 원소의 하나인 붕소(бор)와 동음이의어 관계를 이룬다. 전자의 단어는 슬라브어에서, 후자의 단어는 페르시아어에서 기원한 별개의 단어들이다. 반면, 유기 물질과 관련된 의미의 ‘эфир’와 방송 및 텔레비전과 관련된 의미의 ‘эфир’의 경우, 언어학자들은 이 두 단어를 다의어로 규정한다. 이유는 두 단어 모두 ‘산의 공기’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이다.⁸⁾

이와 달리 혹자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분을 위해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부연하면 한 단어가 핵심적인 공통된 의미 요소(общий семантический элемент)를 가지고 있다면 다의어로, 그렇지 않다면 공통된 기원의 역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동음이의어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낫을 의미하는 ‘коса’와 땀 머리를 의미하는 ‘коса’는 다의어가 된다. 두 단어 간에 길고 얇다는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의어의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를 동음이의어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다의어는 동음이의어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것이 된다. 품사는 다르지만, 단어 형태가 일치한다면 또한 동음이의어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동사 ‘течь’(흐르다)와 명사형 ‘течь’(흐름)는 동음이의어이다.

지금까지 설명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동일한 발음의 단어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분명한 차이점으로는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 변형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 관계가 성립하지만, 동음이의어에서 아무런 연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가 다르면 다른 단어라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이런 이유로 오직 발생학적으로 다른 기원을 가진 의미의 단어만을 동음이의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다의어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동음이의어의 개념과 특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그 예들을 통해 언어게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해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는 일에 역점을 둔다.

2. 어구의 문자화(буквализация)

문자화에 기초한 언어게임은 다의어를 이용한 언어게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문자화에 의한 언어게임의 경우, 다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특정한 단어에 의해 게임적 성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어의 총제적인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달리 말하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속담, 광고문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표현 등의 규범 이탈을 이용한다. 언어게임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 기존의 어구 단위를 파괴하고 다른 어구와 조합하여 코믹함을 유발하거나 표현력을 높이는 효과의 새로운 단어 조합을 만들어낸다.

8) 참조. <https://ru.wikipedia.org/wiki/Омонимы>

예를 들면, “Не плюй в колодец – вылетит не поймашь.”과 같은 경우이다. 이 언어게임은 “Не плюй в колодец, пригодится воды напиться.”라는 격언과 “Слово – не воробей, вылетит не поймашь”라는 속담을 어구 단위를 파괴하고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взялся за гуж – полезай в кузов.”가 있다. 이는 “Взялся за гуж – не говори, что не дюж.”와 “Назвался груздем – полезай в кузов.”의 관용어구를 혼용하여 실현된 게임이다.

이외에 러시아어 관용어구를 외국어 단어 조합의 어구로 변환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баба с возу кобыле легче.”라는 속담은 영어식으로 “Леди с дилижанса – пони легче.”로 바꾼다. “Копейка рубль бережет.”과 같은 속담은 “Пенс гинею бережет.”과 같이 변형되기도 한다.

위트와 코믹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유사(類似)관용구 (псевдофразеологизм)를 고안해 내기도 한다. 그 예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лучше переспать, чем недоесть,
- лучше быть богатым, но здоровым, чем бедным, но больным,
- лучше синица в руке, чем утка под кроватью,

문자화는 특히 장난기가 짙은 슬랭의 조어 방식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컨텍스트와 분리되어 있어도 일차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가 상호 연관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원초적인 의미가 부차적 의미를 통해 유추된다. 예로써 “загранка”(безпредел), “спидометр”(анализ крови на СПИД)와 같은 슬랭이 있다. 이 유형의 많은 신조어는 어휘의 민속적 어원에 입각하여 러시아어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외국어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гуляш-прогулка”를 들 수 있다.

3. 단어와 어구의 임의적 해석(окказионализм)

언어게임 수단으로서의 단어 혹은 어구의 임의적 해석은 단어나 어구가 가진 본래의 견고한 의미와는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원칙적으로는 동기화된 의미가 표출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의적 해석으로 인해 모순이나 웃음이 유발된다. 임의적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이며 표준화된 의미와 반대된다. 규범화된 단어 형성 규칙을 위반하며, 때때로 매우 낮은 측면을 강조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발화 주체의 창의적인 능력이 발현된 경우이다. 부연하면, 언어체계에 내장된 다양한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능력은 임의적인 단어이지만 타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창조성이 부각된다.⁹⁾

9) Е.А. Земска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как деятельность. М. Наука. 1992. с. 82.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임의적 단어에 대하여 에쁘쉬제인(М. Эпштейн)은 “ОДНОСЛОВИЕ”라는 새로운 장르와 접목한 바 있다. 이 장르는 하나의 단어로 새로운 이상과 세계를 포함한다.¹⁰⁾ 이 어휘는 최소한의 언어 재료로 최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경제성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리이코프(А.Г. Лыков)는 임의적 단어를 언어 시스템의 잠재적 실현 가능성으로 간주하고, 언어에 내재된 언어로 실현되지 못한 의미들을 발굴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¹¹⁾

리이코프(А.Г. Лыков), 얀코-뜨리니쯔까야(Н.А. Янко-Триницкая), 쟌스까야(Е.А. Земская)는 임의적 해석에 의한 단어 형성 수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이와 같은 연구는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울루하노프(И.С. Улуханов)¹²⁾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그는 임의적 단어와 신조어, 즉 규범적 조어와 규범 이탈의 조어 방식을 통일시키고 있다. 더불어 비규범적 조어 방식을 단어 형성 수단의 잠재적인 증가로 간주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접사의 출현, 접사의 새로운 조합 및 의미 형성 등을 통해 단어 형성 수단의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가 하면, 이조토프(В.П. Изотов), 빠뉴쉬킨(В.В. Панюшкин)은¹³⁾ 임의적인 방식에 의한 단어 형성 수단을 체계화하고 있다. 임의적 단어 형성은 이미 존재하거나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가상의 조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Приходит палач вечером домой с мешком, а в мешке что-то шевелится. Жена его спрашивает, “Что это у тебя в мешке?” Он отвечает, “Да вот халтурку на дом взял.”

위의 예문에서 밑줄 친 ‘халтура’는 본 직업 이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부가적인 일을 의미한다. 예문에서 이 단어는 다의미적인 표현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전의의 개념이 아니다. 단지 화자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지시적 객체일 뿐이다. 부연하면 단어에 내포된 의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즉, 단어가 풍기는 일상적인 개념은 화자의 암울한 일상과 동급이 되지 않는 효과를 가진다. 이처럼 임의적 해석에 의한 단어는 언어게임의 수단이 자 결과가 된다.¹⁴⁾

10) М. Эпштейн. Слово как произведение: о жанре однослова. М. Новый мир № 9. 2000. с. 204.

11) А.Г. Лыков, Современная русская лексикология (русское окказиональное слово). М. Наука. 1976. с. 53.

12) И.С. Улуханов, Единицы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их лексическая реализация. М. УРСС. 1996.

13) В.П. Изотов, В.В.Панюшкин. Неузальные способы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я. Орел. ОГИ. 1997.

14) М.Я. Гловинская, Активные процессы в грамматике (на материале инноваций и массовых языковых ошибок). Русский язык конца XX столетия (1985-1995). М. Айрис-пресс. 1996. с. 73.

언어게임은 언어 규범의 위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로 임의적 단어가 탄생한다. 그렇게 탄생한 단어는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사라질 수도 있고, 원어민의 계속되는 사용 때문에 일반 언어로 편입되기도 한다. 이때 처음 갖게 되었던 임의성과 창조성은 퇴색한다. 임의적 해석이나 단어는 개개인에 의해 독특한 의미로 발생하고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언어게임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획득과는 구분된다. 다만, 새로운 의미 창출의 동기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적 단어는 의사소통 기능이 완료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사라지게 된다.¹⁵⁾

임의적 단어의 의미는 맥락이나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문, 구어체 또는 광고에서 가장 자주 발견된다. 임의적 단어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 또한 문맥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구조와 맥락적 기능에 따라 완전히 반대 의미를 나타내거나 일정 부분 반대의 의미를 형성하는 구조와 서로 다른 두 기본 요소의 혼합에 기반한 임의적 표현은 매우 많다. 그 혼합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현실의 다차원적 현상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이렇게 생성된 어휘는 젊은 세대의 슬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슬랭은 현대 러시아 사회생활의 거울이다. 현재의 삶이지만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미래에도 미치는 영향을 투영한다.¹⁶⁾

III 결론

언어 규범의 창조적인 파괴에 의한 언어게임은 모든 언어체계 영역에서 발생한다. 언어게임이 언어 규범의 창조적 파괴의 결과라는 것에서 언어게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언어의 표준과 규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언어게임은 음성학, 어휘론, 형태론, 통사론 등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어 언어게임의 수단 및 유형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어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게임의 수단 및 유형 연구는 러시아어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학습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언어 학습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등의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언어게임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는 오로지 문맥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고, 문맥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화자가 암시하는 의미, 발화 주체가 진술에 숨긴 의도를 파악하는 일은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의 의미를 안다고 가능할 수 없으며, 화자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게임은

15) Т.А. Гридина. Языковая игра: стереотип и творчество. Екатеринбург. Урал ГПИ. 1996. с. 125.

16) Симутова Ольга Петровна. Вестник ЧГПУ 10. 2008. с. 215.

원어민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적, 정서적 요인이 반영된 집단정신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언어게임에 대한 이해는 러시아어 교육과 함께 러시아인의 민족적 특성이나 정신세계, 의식 구조 등에 대한 이해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 학습 효과를 최적화하고 조화로운 의사소통에 관심 있는 모든 러시아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발화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참고문헌

- 남경희. 비트겐슈타인과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5.
- 박병철.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필로소픽. 서울. 2014.
- 비트겐슈타인 침묵의 시절(1919-1929). 이운 역. 필로소픽. 서울. 2014.
- 서명석. 철학상담 & 철학치료 철학 Cafe. 책인숲. 서울. 2018.
- 크리스토퍼 필립스. 소크라테스 카페. 안시열 역. 김영사. 경기. 2001.
- Bezzel C. 비트겐슈타인. 안정오 역. 인간사랑. 경기. 2000.
- Conford F.M.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 이종훈 역. 박영사. 서울. 1995.
- Hardwick C.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김진철·정병찬 역. 정민사. 대구. 1985.
- Бирюкова Е.О. Языковая личность в контексте языковой игры (на материале российских ток-шоу): 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Вологда. 2012. 23 с.
- Блэк М. Метафора. Теория метафоры. М. Прогресс. 1990. 512 с.
- Борисова Л.И. Лекс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англо-русског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перевода: учеб. пособие для вузов. М. Тезаурус. 2005. 216 с.
- Виноградов В.В. Стилистика. Теория поэтической речи. Поэтика. М. Изд-во АН СССР. 1963. 256 с.
- Витгенштейн Л. Философ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Философские работы. М. Гнозис. 1994. Ч. 2. с. 77-319.
- Володарская Э.Ф. Языковая изменчивость: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и экст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Иннов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современном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опросы филологии № 2. 2004. с. 35-51.
- Гавранек Б. Задач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и его культура. Пражски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кружок. М. Прогресс. 1967. с. 338-377.
- Гатауллин Р.Г. К вопросу об окказионализме и его идентифицирующих признаках.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 65-летию профессора Р.З.Мурясова. Семантика разноуровневых единиц в языках различного строя. Уфа. РИО БашГУ. 2005. с. 81-97.
- Гловинская М.Я. Активные процессы в грамматике (на материале инноваций и массовых языковых ошибок). Русский язык конца XX столетия (1985-1995). М. Айрис-пресс. 1996. с. 237-304.
- Гридина, Т. А. Языковая игра: стереотип и творчество. Екатеринбург. Урал ГПИ. 1996.
- Даль В.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живого велико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79. Т.2. 544 с.
- Девкин В.Д. Немец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Синтаксис и лексика. М. Наука. 1979. 234 с.
- Земская Е.А., Китайгородская М.В., Розанова Н.И. Языковая игра. Русс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Фонетика. Морфология. Лексика. Жест. М. Наука. 1983. с. 172-214.

- Земская Е.А.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как деятельность. М. Наука. 1992. 221 с.
- Изотов, В. П., Панюшкин В.В. Неузואальные способы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я. Конспекты лекций к спецкурсу. Орел ОГИ. 1997. 127 с.
- Лихолитов П.В. Компьютерный жаргон. Русская речь № 3. 1997. с. 21-32.
- Локетт Б.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вчера, сегодня и завтра. М. Русский язык Медиа. 2005. 602 с.
- Лыков А.Г. Современная русская лексикология (русское окказиональное слово). М. Наука. 1976. 354 с.
- Мечковская Н.Б. Социаль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2-е изд., испр. М. Аспект-Пресс. 2000. 207 с.
- Мукаржовский Л.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и поэтический язык. Пражски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кружок. М. Прогресс. 1967. с. 406-432.
- Негрышев А.А. Языковая игра в СМИ: текстообразующие механизмы и дискурсивные функции (на материале газетных новостей). Inter-Cultural-Net Вып. 5. 2006. с. 66-79.
- Нухов С.Ж. Языковая игра в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и: автореф. дис. д-ра филол. наук. М. 1997. 39 с.
- Ожегов С.И.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Рус. яз. 2008. 1200 с.
- Ревзина О.Г. Поэтика окказионального слова. М. Астрель. 1996. 307 с.
- Ривлина А.А. Об основных приемах современной англо-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игры. Публикации ГУ ВШЭ. URL: <http://publications.hse.ru/chapters/80291961>
- Санников В.З. Русский язык в зеркале языковой игры.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9. 544 с.
- Трофимова З.С. Словарь новых слов и значений в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М. АСТ: Восток-Запад. 2006. 320 с.
- Улуханов И.С. Единицы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их лексическая реализация. М. УРСС. 1996. 256 с.
- Филиппов К.А. Лингвистика текста: курс лекций. СПб. Изд-во СПбГУ. 2003. 336 с.
- Хейзинга Й. Homo Ludens: статьи по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М.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1997. 377 с.
- Цикушева И.В. Феномен языковой игры как объект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Извес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А. И. Герцена. 2009. № 90. с. 169-171.
- Эпштейн М. Слово как произведение: о жанре однослова. Новый мир № 9. М. 2000. 204 с.
<http://dict.ruslang.ru/gram.php?act=search#>
<http://www.relga.ru/Environ/WebObjects/tgu-www.woa/wa/Main?textid>
<http://www.science-education.ru/111-10447>

Лекс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эвфемизации в контексте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язык, формирующий восприятие концепта «Война»

De, Eduard(계명대)

I Язык играе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войны, создавая определённые образы, интерпретации и эмоциональные реакции.

Лексика, используемая для описа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часто включает эвфемизмы,¹⁾ которые призваны смягчить восприятие происходящего или скрывают истинные масштабы событий.

В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й риторике, связанной с конфликтом с периода 2022 года по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активно задействована вся полнота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метафоры «война».²⁾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в сфере употребл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 обеих сторон приняты полярные точки зрения, основанные на разных подходах к сути происходящего конфликта.

Так, например,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часто используется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коллективный Запад», которое обозначает страны и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Украину. Данное понятие чётко закрепилось в россий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формируя образ внешнего врага при этом усиливая антагонизм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России с европейскими странами и США. Однако в свете происходящих событий после победы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Д. Трампа 6 ноября 2024 года данному словосочетанию можно предрекать существ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зиция партии республиканцев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урса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оддержки Европы в «готовности» принять Украину в ЕС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от её «покупательской способности», на что указал в своей программе новоизбранный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езидент. Исторически нам хорошо знакома политика штатов по программе ленд-лиза.

Широкий пласт лексики, вошедшей в употребление за период активной фазы конфликта, обязан дегуманизации противника – ВРАГА.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1) Эвфемизм – от. гр. euphemia воздержание от неподобающих слов – не прямое, смягченное выражение вместо прямолинейного, зачастую резкого.

2) Метафора – это метафорическое понятие, или концептуальная метафора. Это не только и не столько образное средство языка, сколько феномен мышл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это словоформа «укронацисты» вместо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и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вмес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краины», а также термин «бандеровцы» за почитание С. Бандеры,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рганизовавшего вооружённое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е подполье против СССР совместно с нацистской Германией. Данные лекс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играют роль стигматизации противника, создавая негативный образ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В то же время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действуя абсолютно с этой же целью для создания отталкивающего образа, используются:

«Орки» – термин, заимствованный из фэнтези, ассоциирующий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ых с варварскими и бесчеловечными существами.

«Раши́сты» – сочетание слов “Россия” и “фашисты”, подчёркивающее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схожесть с нацистами и как вариант “русня”.

«Зет-фаши́сты», «зётники» отсылка к символу “Z”, ассоциируемому с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ей.

Обоюдными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лекс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остаются такие эвфемизмы, как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ридоры» (эвакуация населения), в описании событий подчёркивает позитивные аспекты действий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отводя внимание от их последствий.

Важную роль в языковой стратегии играет избегание слов с явно негативной коннотацией, таких как «вторжение», «оккупация», вместо чего используются нейтральные выражения «освободить территорию» и «занять территорию».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терминология, формируемая в российской риторике, способ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интерпретации событий, но и контролю массового созн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правками, внесёнными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язы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8 февраля 2023 года, посвящённый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е. Будучи подкреплённой обновлённой правовой базой, подобная риторика позволяет делать язык мощ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в условиях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войны.

Анализ основных эвфемизм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в российской риторике, связанной со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ей»,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ключевы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стратеги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мягчение восприятия конфликта и управление общественным сознанием.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СВО)

Этот термин заменяет слово «война», акцентируя внимание на ограниченном характере действий и их целев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избежать эмоциональной нагрузки, связанной с открытым упоминанием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Демилитаризация» и «денацификация»

Эти термины обозначены как основные цели операции. Они придают действиям легитимность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редставляя их как борьбу с конкретными угрозами.

«Освобожд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Используется вместо слов «захват» или «оккупация», что придаёт действиям позитивную коннотацию, подразумевая помощь ил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Заменяет сло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краины» или «украинская власть», чтобы создать негативный образ, ассоциирующийся с нелегитимностью и враждебностью.

«Гуманитарная миссия»

Термин подчёркивает заботу о мирном населении, отвлекая внимание от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Это смягчает восприятие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в зонах конфликта.

«Коллективный Запад»

Эвфемизм, объединяющий страны,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Украину, в единый образ противника. Это усиливает ощущение внешней угрозы и сплочённости «своих».

«КТО» – в контексте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аббревиатура КТО обычно расшифровывается как «контр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операция». Этот термин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российской риторике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операц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нейтрализацию вооружё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или устранение предполагаемой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угрозы. Изначально термин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 российском контексте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действий против террористов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например, в Чечне), но в контексте конфликта с Украиной он может применяться для описания действ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онбасса или в захваченных регионах. Объявление КТО с юрид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позволяет применять особые меры, включа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ограничение прав и свобод (в том числе свободы передвижения) своих же граждан, 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е массовых проверок, задержаний и зачисток. Термин «контр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операция» звучит менее агрессивно и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защитой граждан от угроз,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формированию позитивного имиджа действий в глазах росси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вете событий, затрагивающих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й конфликт, КТО была начата в ответ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Украино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6 августа 2024 года. По сути, политическая риторик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водится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аббревиатуры КТО для позиционирования ответных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как мер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борьбу с террористами, экстремистами или другими нелегальными вооружёнными формированиями, в качестве которых выступают украинские войска, пересёкшие российскую границу.

II Метафоры как языковые выражения возможны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они заложены в понятийной системе человека. Иными словами, метафорич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мышление, а языковые метафоры являются не более чем внешней манифестацией этого феномена. Процесс эвфемизации в случае с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й проблематикой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своего феномена и призван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не только всего механизма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метафоры, но и на калибровку сферы-источника. Так, многие элементы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метафоры ВОЙНА – ЭТО СМЕРТЬ претерпевают существ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отражая лишь те аспекты восприятия войны, которые формируют отношение общества к конфликт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ой.

Анализ концептуальных метафор, формирующих сегодняшне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конфликте, в который вовлечены Россия и Украина, помогает понять, как люди интерпретируют и оправдывают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а также какие эмоции и установки они вызывают.

С позиции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метафоры ВОЙНА Русской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овью (РПЦ) традиционно трактуется как сложное, амбивалентное поняти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церковь признаёт разрушительный и греховный характер войны, а с другой – допускает её как вынужденное средство защиты или установлени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Этот подход находит отражение и в концептуальных метафорах, которые РПЦ использует в своей риторике, и в т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дискурсе, который заполняе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иведём основные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метафоры войны в дискурсе РПЦ:

1. Война как духовная битв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анной метафорой Война интерпретируется как борьба добра со злом, света с тьмой:

«Войн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земной конфликт, но и отражение духовной борьбы».

«Добродетель побеждает зло через жертвы».

Интерпретация Войны понимается как метафизическое явление, где важна моральная сторона, а не только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2. Война как наказание или испытание от Бога

Война в данной метафоре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результат грехов человечества или средство их исправления:

«Война – это Божье напоминани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каяния».

«Испытание, которое укрепляет дух народа».

Интерпретация: Такой взгляд помогает объяснить войну как неизбежное следствие духовного упадка, призывающее к возвращению к вере.

3. Война как защита веры и Родины

Интерпретация данной метафоры сводится к тому, что Война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священный долг защиты своей веры, народ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виг защитников – это жертва во имя Божьей правды».

«Воины, защищающие Отечество, совершают богоугодное дело».

Интерпретация: Эта метафора делает войну оправданной в случае обороны, связывая её с идеей священного долга.

4. Война как путь к миру

Данная метафора понимается как временная борьба, которая в итоге приводит к мирному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ю:

«Мир достигается через преодоление зла».

«Каждая война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молитвой о мире».

Интерпретация сводится к смягчению восприятия войны в качеств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азруши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5. Война как жертва во имя высших ценностей

Метафора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как форма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я рад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ли добра: «Жертвы войны – это семена будущего мира».

«Каждый погибший на поле брани достоин молитвы и памяти».

Интерпретация: Ставится акцент на героизме и значимости личной жертвы.

Наряду с концептуальными метафорами, которые РПЦ использует в своей риторике заслуживает внимания и офиц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РПЦ в отношении её риторик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войну.

Призывы к миру: В официальных заявлениях церковь подчеркив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онфликтов, однако признаёт право на самооборону.

Опора на патриотизм: РПЦ акцентирует внимание на защите Родины как с взыском долге,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внешней угрозы.

Критика греховности войны: Одновременно церковь напоминает о греховности насилия и призывает к покаянию и примирению.

Духовная поддержка: Церковь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помощи военным, их семьям и мирным жителям,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войны, что подчеркивает её роль как духов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III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МЕХАНИЗМА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МЕТАФОРЫ «ВОЙНА»

В виду сказанного, попробуем очертить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механизма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метафоры «война» через призму российского восприят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на фоне официальной риторики РПЦ.

Прежде всего, вместо термина «война» официаль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аббревиатура СВО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ббревиатуры СВО минимизирует эмоциона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слушателя, что с позиции граждан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крайне важным, учитывая небезразлич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гражданам Украины.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онятия «демилитаризация» и «денацификация» имели ключев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объяснения целей конфликта и оправда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 августа 2024 года, отмечается зеркальное употребление данных терминов со стороны украинских влогеров,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ыражения «опера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место термина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снижает восприятие интенсивности протекания конфликта и в то же время минимизирует связанные с негативным восприятие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следств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ключевые основные элементы, лексически находящие выражение путём образования эвфемизмов, формирующих механизмы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метафоры «война».

IV КЛЮЧЕВЫЕ ЭЛЕМЕНТЫ КОНЦЕПТУАЛЬНОЙ МЕТАФОРЫ «ВОЙНА»

1. БОЛЕЗНЬ

«Боевые травмы»

Акцентируется внимание на причине, снижая восприятие тяжести последствий.

«Медицин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Общая и нейтральная формулировка, применяемая в официальных отчётах.

«Потеря трудоспособности»

Заменяет более эмоционально тяжёлые выражения, делая акцент на функциональном аспекте.

«Врем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со здоровьем»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смягчения восприятия серьёзных травм, особенно 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контекстах.

«Утрата функций»

Звучит более клинически и отстранённо, избегая упоминания увечий.

2. ДОЛГ

«Частич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Уточнение “частичная” используется,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масштаб восприятия, подразумевая, что призыв ограничен и не затрагивает большинство граждан.

«Призыв резервистов»

Перенос акцента с мобилизации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кадров.

«Временная служба»

Акцентируется краткосрочный характер участия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Служба по контракту»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и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аботать существенную сумму денег.

«Комплектование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Технический термин, который звучит более нейтрально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

«Привлечение граждан к выполнению специальных задач»

Уводится акцент от воен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смещая внимание на выполнение «заданий».

3. СМЕРТЬ

Эвфемизмы героизации, подчеркивающие подвиг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ь:

«Погибнуть при исполнении долга»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ыполнение важной миссии.

«Пасть смертью храбрых»

Романтизирует гибель, акцентируя внимание на доблести.

«Отдать жизнь за Родину»

Делается акцент на жертвенности ради высшей цели.

«Стать героем»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значимость действия, приведшего к гибели.

Эвфемизмы, способные снижать эмоциональную нагрузку:

«Безвозвратные потери»

Обезличенное обозначение гибели, типичное для официальных отчётов.

«Утратить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Гибель подразумевается, но избегается её прямое упоминание.

«Ликвидировать в ход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описания смерти солдат противника, чтобы снизить сочувствие.

«Обнулять»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сти ликвидировать, уничтожить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воей армии за отказ выполнять приказ в условиях ведения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Эвфемизмы для гражданских лиц:

Используются, чтобы избегать упоминания гибели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страда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нфликта»

Размывает разницу между гибелью и ранением.

«Стал жертвой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нима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с конкретных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ликта.

V Заключение

Концептуальная метафора войны в дискурсе РПЦ часто связывается с идеей духовного измерения конфликта. Война не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абсолютное зло, а интерпретируется через призму духовной борьбы, самопожертвования и защиты высших ценностей. Однако церковь всегда подчё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стремления к миру и гуманности, что отражает её традиционную миссию примирения и любви.

Указанные в докладе эвфемизмы выполняют функцию не только смягчения восприятия, но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онсенсуса, усиливая поддержку действий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негативно окрашивая образ другой. В данной попытке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регулировать языковые процессы, связанные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можно видеть реализацию той языковой политики, которая была обозначе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ак штрих к портрету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такие эвфемизмы, как *cancel culture* (культура отмены), *collateral damage* (сопутствующие жертвы), свойственные западной культуре, не находят своего выраже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что говорит об отсутствии механизмов данных концептуальных метафор в русском сознании.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чрезвычайно сложным для более дета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всего спектра проблем, относящихся к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Украиной в языковом плане, является взгляд на понимани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 учётом обеих сторон.

■ 제5분과 차세대 분과 (13:30-15:30):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회 변현섭(계명대)

허재용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 연구: 헌법의 한계와 정치 동기를 중심으로

발표 문승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유라시아주의의 강화

장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입장과 대응

토론 박찬현(안양대), 장하영(경북대), 조정원(원광대)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 연구: 헌법의 한계와 정치 동기를 중심으로

허재용(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초록

2014년 돈바스 전쟁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2014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 사태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 사태는 2013년 말에 발생한 시위부터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확대까지의 과정 중에서 물리적 폭력이 끊임없이 존재하던 때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처럼 여겨져 가장 다루어지지 않은 사태이다. 내부 요인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붕괴하였으나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이 과정에 위헌 요소가 여러 개 존재한다. 헌법의 한계에 따라 법적으로 탄핵이 성립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의 자진 배제 결의안 역시 법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나 정치적으로 친러시아 집단이었던 야누코비치 정권을 붕괴시키는 일에 성공함으로써 친유럽 집단이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승자가 되었다. 친유럽 집단이 정치적 승자가 되었으나 친러시아 집단인 정치적 패자를 설득하는 민주제의 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심화하였다.

I 서론

2014년에 시작한 돈바스 전쟁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대된 원인으로 여러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전쟁의 직접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 블라디미르 레닌 시대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원인 중에서도 2014년에 돈바스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찾는다면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시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마이단 광장에서 시위(Евромайдан)가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 민중이 이 시위를 지속하면서 2014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Верховная рада України)가 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자진 배제(우크라이나어: самоусунувся, 러시아어: самоустранился)되었다’라고 결의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일을 결의하였다. 다음날인 2월 23일 우크라이나 임시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에 2월 28일 크림 자치공화국은 3월 16일에 주민투표를 시행함을 선

언하였다. 주민투표 시행 결과에 따라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되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Донбасс,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역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독립을 꿈꾸었기에 4월에 돈바스 민병대가 우크라이나군과 충돌을 지속하였다. 돈바스에서 5월에 주민투표를 시행하였으나 독립하지 못하였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돈바스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에 9월 5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돈바스 전쟁의 정전 협정인 1차 민스크 협정을 맺었으나 실패하였고 2015년 2월 12일 제2차 민스크 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고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우크라이나 키예프 마이단 광장에서의 시위부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물리적인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한 가운데 발생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 사태를 많은 사람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일 단위로 진행되는 커다란 위기의 순간에 물리적인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명제가 지역, 국가, 집단의 지도자에게 너무나 자명하였다. 물리적인 폭력을 막고자 여러 지역, 국가, 집단에서 여러 수단을 활용하였으나 물리적인 폭력을 일소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지속하여 증폭하였고 훗날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었기에 그 과정 중에 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 사태를 당시의 지도자들은 물론 훗날의 연구자 역시 주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 사태가 법과 정치의 문제였으며 설령 해당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갈등이 매우 쉽게 증폭되리라 예상하는 데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2014년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제4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법적으로 정당하였는지 연구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가 존재하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연구 질문,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1. 선행연구 검토

국내 연구인 (허승철, 2014)와 국외 연구인 (Portnov, 2015) 모두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에서 경제 문제가 지속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정치 문제로 연결되며 신임을 서서히 잃었고 결정적으로 야누코비치 정권이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이익을 건주다가 러시아를 선택하려 함으로써 유로마이단 사태가 발생하여 정권이 붕괴하였다고 원인을 설명한다. 국내 정치에서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로 국민의 신임을 잃고 정권이 붕괴하거나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의 원인 설명으로서 적절하다.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혼합된 외교 문제가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하는 연구가 있으나 붕괴의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연구가 없다. (Portnov, 2015)는 야누코비치 정권의 붕괴 이전에 먼저 연구를 진행하고 추신을 덧붙인 연구이기에 유로마이단이 발생한 원인을 다루었으므로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를 직접 다루고 있지 않다. (허승철, 2014)은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를 직접 다루고 있으나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2. 연구 질문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우크라이나 헌법상 위헌의 요소가 없는가이다. 여러 연구에서 우크라이나 헌법을 직접 다루고 있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에 우크라이나의 헌법 중 탄핵 조항 및 대통령과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고 위헌의 요소가 없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결의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가이다.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를 직접 선언한 일이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결의안임에도 여러 연구에서 정권 붕괴로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아 이 결의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결의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어떠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이 어떠한 법적,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친유럽 국민과 친러시아 국민 간의 갈등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이다. 여러 연구에서 야누코비치 정권의 붕괴에 관한 정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헌법을 다루었던 연구가 부족하여 법적 의미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먼저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의 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로서 친유럽 국민과 친러시아 국민 간의 갈등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연구방법으로 질적 방법론 중 문헌 연구와 사례 비교 연구를 선택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 연구로서 우크라이나 헌법,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의 결의안, 당시 신문 기사를 기본 자료로 선택하고자 한다. 먼저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 과정이 우크라이나 헌법에 맞게 진행된 사건인지 살펴보고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의 결의안을 번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당시 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결의안이 어떻게 채택이 되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탄핵 사태가 이전에도 존재했으므로 해당 사례와 함께 비교하는 사례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레오니드 쿠치마의 탄핵이 시도되었으나 탄핵으로 정권이 붕괴하지 않았으므로 이 탄핵 사태의 배경과 의미를 다룬 논문을 선택하여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 사태와 비교하고자 한다.

III 우크라이나 헌법의 탄핵 조항 및 탄핵 사태 비교

1. 우크라이나 헌법의 탄핵 조항 및 탄핵 사태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권한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사임, 건강으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 탄핵 절차에 의한 해임, 사망일 때 권한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다음으로 제 109조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에서 사임을 선언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함을 선언하고 제110조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건강으로 인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의 절차를 선언한다. 이어서 제111조에 탄핵 조항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이 국가 반역(державна зрада)이나 다른 범죄(інший злочин)를 저질렀을 때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에 의하여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의 과반 투표로 탄핵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탄핵 절차 시행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결론과 제안에 따라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때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검토하고 합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2001년 우크라이나 제2대 대통령 레오니드 쿠치마(Леонід Данилович Кучма)를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이다. 2000년에 기자였던 게오르기 곤가제(Georgiy Gongadze)가 키예프에서 납치되고 살해당하면서 시위가 일어났다. 게오르기 곤가제를 납치하고 암살하는 데 레오니드 쿠치마가 공모하였음이 유출된 음성 자료로 확인되었다(McFaul, 2005). 이는 우크라이나 헌법이 선언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다른 범죄(інший злочин)에 해당하므로 탄핵 절차가 실행될 수 있었고 2001년에 탄핵 절차를 실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탄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레오니드 쿠치마가 2004년에 임기를 마칠 무렵 색깔 혁명(Colour Revolution)의 하나인 오렌지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2.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 사태

우크라이나 제4대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탄핵 사태는 앞선 레오니드 쿠치마의 사례와 다르다.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2013년에 유럽연합(EU)과의 협력 협정 체결을 잠정 중단하고 러시아의 협력 제안에 더 호의적으로 대했던 일이 유로마이단 사태가 발발하게 된 계기라는 점이 국내 연구자(허승철, 2014) 및 국외 연구자(Portnov, 2015)의 공통 의견이다. 그러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외교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가 반역이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레오니드 쿠치마의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외교 행위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행정부의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행정부의 외교 행위가 위헌과 관련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102조 제3항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보증자임을 선언하고 있으나 2019년 2월 7일에 추가된 항으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재임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태로 추가된 항이므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며 제정된 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V 빅토르 야누코비치 자진 배제 결의안

1. 빅토르 야누코비치 자진 배제 결의안의 내용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가 외교 행위를 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결의안1)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수행에서의 자진 배제(самоусунувся)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시 선거 일정 지정에 관한 결의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공보(BBP), 2014, 제11호, 제158조)

우크라이나 대통령 B. 야누코비치가 헌법적 권한 수행에서 자진 배제(самоусунувся) 되어 국가의 관리력 및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과 주권에 위협이 되어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커다란 침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극단적인 필요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 의사를 표현하여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크라이나 대통령 B. 야누코비치가 비헌법적인 방식으로 헌법적 권한 수행에서 자진 배제(самоусунувся)되었음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B. 야누코비치가 본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헌법 제8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시 선거를 2014년 5월 25일에 시행함을 결정한다.

셋째, 본 결의안은 채택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의장

O. 투르치노프

키예프

2014년 2월 22일

757번 결의안-7차

먼저 해당 결의안에서 우크라이나 헌법 제111조에서 사용한 ‘탄핵(우크라이나어: імпичмент, 러시아어: импичмент)’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자진 배제(우크라이나어: самоусунувся, 러시아어: самоустранился)’라는 어휘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본인의 의지로 사임하였음을 내포하며 둘째로 탄핵 절차를 실행하지 않았음을 내포한다. 먼저 야누코비치가 직접 사임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날인 2014년 2월 21일에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의 주요 야당 지도자와 함께 유럽연합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체결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Crisis in Ukraine)’에 서명하였다. 6개 항목을 다룬 이 협정은 모든 항목이 일련의 우크라이나에 발생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3항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항목으로서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는 즉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며 늦어도 2014년 12월 이전에 시행함을 선언한다.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하며 임기를 조기 종료하고 선거 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²⁾하였으므로 즉각 사임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결의안에서 ‘자진 배제’라는 어휘를 사용함은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자진하여 즉각 사임하였음을 나타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용어임을 암시한다.

1)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수행에서의 자진 배제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시 선거 일정 지정에 관한 결의(Про самоусунення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від виконання конституційних повноважень та призначення позачергових виборів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zakon.rada.gov.ua/laws/show/757-18%23Text#Text (검색일: 2024.11.19.)

2)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협정(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Crisis in Ukraine), www.auswaertiges-amt.de/resource/blob/260130/db4f5326f21530cad8d351152feb5e26/140221-ukr-erklaerung-data.pdf (검색일: 2024.11.21).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헌법상 정당한 탄핵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내포한다. 2014년 2월 22일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투표에서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의원 총 450명 중 328명의 의원이 찬성하였다.³⁾ 우크라이나 헌법 제111조가 탄핵을 최종결정할 때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450명의 4분의 3인 33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가 탄핵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조사 역시 수행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도 탄핵 절차가 헌법에 합치하는지의 판단 역시 시행하지 않았다. 모든 헌법상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10명의 찬성이 부족하므로 탄핵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빅토르 야누코비치 자진 배제 결의안의 법적, 정치적 의미

빅토르 야누코비치 자진 배제 결의안에는 어떠한 법적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탄핵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아니다. 결의안에서 '탄핵'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어휘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표결에서 4분의 3 찬성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탄핵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우크라이나 헌법 제112조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권한이 조기 종료될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직무를 총리가 수행한다고 선언되었으나 결의안 채택 전날인 2014년 2월 21일에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 의장이 수행한다고 갑작스럽게 수정함으로써 결의안 채택 당시의 의장인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Олександр Валентинович Турчинов)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였다.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건을 판결하지 않았으나 위헌 요소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한편 빅토르 야누코비치 자진 배제 결의안에는 정치적 의미가 존재한다. (허승철, 2014)이 지적하듯 야누코비치 정권의 붕괴는 내부 요인이 폭발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색깔 혁명 중 하나인 오렌지 혁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여론이 친러시아와 친유럽 사이에서 친유럽으로 다소 기울기 시작했다. 이때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일반적인 여느 정치인과 다르지 않게 재선을 목표로 한 정치적 판단이 실패하였다고 평가해야 한다. 또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가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존재하는 여러 사건을 일으켰다고 평가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위헌, 위법의 요소가 다분하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친유럽 국민에게는 의미가 있는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Daisy Sindelar, "Was Yanukovich's Ouster Constitutional?" Radio Free Europe, February 23, 2014., www.rferl.org/a/was-yanukovichs-ouster-constitutional/25274346.html. (검색일: 2014.11.21).

V 결론

오늘날과 같은 우크라이나 헌법이 제정된 2004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헌법은 2019년 9월 3일까지 6회 개정되었다. 헌법 개정의 주요 근거가 상당수 정권의 필요 또는 의회의 필요에 따른 개정으로서 논리 또는 사상의 근거가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개정이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완벽한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헌법 역시 완벽할 수 없으나 특히 우크라이나는 짧은 기간에 자주 헌법이 개정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혼란의 결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내전을 거쳐 대규모 전쟁까지 치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에 헌법적 한계가 존재했으나 민주제를 채택하는 국가로서 다른 방법으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음에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여 정치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과정을 겪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치 동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최고평의회는 과정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대통령 직무를 더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주제에서 정치적 승자가 정치적 패자를 상대로 어떠한 정책도 마음대로 실행하는 일은 옳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승자인 다수의 생각대로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전반적인 방향을 이끌 수 있으나 패자인 정치적 소수의 생각도 반영하면서 정치적 소수를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민주제의 원리에 따른 정치적 소수를 설득하는 일이 매우 부족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치적 승자를 두려워한 친러시아 크림 자치공화국의 국민은 러시아로의 편입을 지지하였다. 친러시아 돈바스 주민 역시 러시아로의 편입을 지지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승자가 2014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8년간 정치적 패자를 설득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탄핵 사태가 단순한 정권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 사태가 2013년 말부터 물리적인 폭력이 난무하며 급하게 사건이 진행된 때에 존재한 큰 의미 없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참고문헌

- 우크라이나 헌법. (n.d.). Конституція України. csu.gov.ua/sites/default/files/konstytuciya_ukrayiny.pdf (검색일: 2024.11.19).
-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수행에서의 자진 배제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시 선거 일정 지정에 관한 결의. (n.d.). Про самоусунення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від виконання конституційних повноважень та призначення позачергових виборів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zakon.rada.gov.ua/laws/show/757-18%23Text (검색일: 2024.11.19).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Crisis in Ukraine. (2014, February 21). www.auswaertiges-amt.de/resource/blob/260130/db4f5326f21530cad8d351152feb5e26/140221-ukr-erklaerung-data.pdf (검색일: 2024.11.21).
- Sindelar, D. (2014, February 23). Was Yanukovich's ouster constitutional? Radio Free Europe. www.rferl.org/a/was-yanukovichs-ouster-constitutional/25274346.html (검색일: 2024.11.21).
- 박정호. (2011). 우크라이나의 정치권력과 정치체제 변화: 유셴코와 야누코비치 정권을 중심으로. *슬라브 연구*, 27(3), 1-20.
- 박정호. (2014). 우크라이나의 유로 마йдान 운동과 지역주의 요인. *동유럽발칸연구*, 38(5), 169-200.
- 연성흠. (2021). 러시아의 유라시아 강대국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정책의 충돌과 반동. *세계지역연구논총*, 39(4), 111-148. <https://doi.org/10.29159/KJAS.39.4.4>
- 허승철. (2014).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정권 붕괴의 국내 정치, 경제 요인 분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6(0), 155-178.
- Abelho, S. (2017). Yanukovich's decision to postpone the signature of the agreement with the EU: A poliheuristic analysis. *Janus.net* 8(1), 74-87.
- Ambrosio, T. (2017). The fall of Yanukovich: Structural and political constraints to implementing authoritarian learning. *East European Politics*, 33(2), 184-209. <https://doi.org/10.1080/21599165.2017.1304382>
- Armandon, E. (2013). Popular assessments of Ukraine's relations with Russia and the European Union under Yanukovich. *Demokratizatsiya*, 21(2), 289-308.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popular-assessments-ukraines-relationships-with/docview/1551181249/se-2>
- Chuprya, O. (2015). Civic protest. Version 2.0: Maidan 2013-2014 as a catalyst of Russian-speaking Ukrainian patriotism. *Russian Politics & Law*, 53(3), 86-96. <https://doi.org/10.1080/10611940.2015.1053786>

- Grant, T. D. (2015). The Yanukovych letter: Intervention and authority to invite in international law. *Indone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2(2), 281–328.
- Ishchenko, V. (2020). Insufficiently diverse: The problem of nonviolent leverage and radicalization of Ukraine's Maidan uprising, 2013–2014.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1(2), 201–215. <https://doi.org/10.1177/1879366520928363>
- Koch, J. (2016). The efficacy and impact of interim measures: Ukraine's inter-state application against Russia.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39(1), 163–194.
- Kubicek, P. (2017). Dancing with the devil: Explaining the European Union's engagement with Ukraine under Viktor Yanukovych.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25(2), 143–162. <https://doi.org/10.1080/14782804.2016.1198689>
- Kudelia, S. (2014). The house that Yanukovych built. *Journal of Democracy*, 25(3), 19–34. <https://doi.org/10.1353/jod.2014.0039>
- Kuzio, T. (2010). State-led violence in Ukraine's 2004 elections and orange revolu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3(4), 383–395. <https://www.jstor.org/stable/48610304>
- Kuzio, T. (2012). Ukraine's relations with the West since the Orange Revolution. *European Security*, 21(3), 395–413. <https://doi.org/10.1080/09662839.2012.655272>
- McFaul, M. (2005). Transitions from postcommunism. *Journal of Democracy*, 16(3), 5–19.
- Motyl, A. F. (2010). Ukrainian blues: Yanukovych's rise, democracy's fall. *Foreign Affairs*, 89(4), 125–137.
- Onuch, O. (2014). Who were the protesters?. *Journal of Democracy*, 25(3), 44–51.
- Osipian, A., & Osipian, A. (2006). Why Donbass votes for Yanukovych: Confronting the Ukrainian orange revolution.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14(4), 495–517. <https://doi.org/10.3200/DEMO.14.4.495-517>
- Poltorakov, A. (2015). The functional dynamic of Ukraine's Maidan (November 2013–January 2014). *Russian Politics and Law*, 53(3), 28–36.
- Portnov, A. (2015). Ukraine's eurorevolution: Chronology and interpretations. *Russian Politics and Law*, 53(3), 6–27.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으로서 신유라시아주의 강화에 관한 분석: 나치주의 미화 방지 결의안을 중심으로

문승원(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I 서론

- 1.1. "유라시아"는 일반적으로 소비에트 이후의 공간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러시아 내에서 유라시아주의는 주로 반서구적 성격의 이데올로기로 간주¹⁾
- 국가의 정체성은 대내외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밀접하게 연관됨²⁾
 - 기존의 유라시아 연구는 사회정치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³⁾,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다자주의적 거버넌스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
 -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극적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부족
 - 러시아 엘리트와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 실체와 기술주의적 접근을 보완해야 함⁴⁾
 - 유라시아주의는 일반적으로 차르 시대 말기의 고전적 유라시아주의, 소비에트의 구밀료프를 필두로 하는 유라시아주의, 러시아 연방의 민족주의 운동의 현대 신유라시아주의의 세 가지 역사적 갈래로 유형화⁵⁾
 - 신유라시아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두긴은 우크라이나의 "나치 정권"이 러시아인 및 러시아어 사용자에게 대한 대량학살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⁶⁾, 동일한 계열로 분류되는 이들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
 - 러시아 외무부는 신나치즘의 부상이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유럽,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경고⁷⁾

1) Smirnov, Nikolay. "Left-Wing Eurasianism and Postcolonial Theory." (2019). p.92

2) Johnson, Matthew Raphael. "Russian Nationalism and Eurasianism: The Ideology of Russian Regional Power and the Rejection of Western Values.'" Center for Syncretic Studies 2 (2014).

3) Bassin, Mark, Sergey Glebov, and Marlene Laruelle, eds. Between Europe and Asia: The origins, theories, and legacies of Russian eurasianism.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5. p.114

4) Smirnov, Nikolay. "Left-Wing Eurasianism and Postcolonial Theory." (2019). p87

5) Kenderdine, Tristan. "Eurasianism and post-soviet political geography." Вестник МГИМО Университета 4 (73) (2020): 258-268. p259

6) Shekhovtsov, Anton. "Aleksandr Dugin's neo-Eurasianism and the Russian-Ukrainian war." The Politics of Eurasianism.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Russia's Foreign Policy (2017): 181-200. p.196

7) https://mid.ru/en/foreign_policy/historical_materials/1920326/

- 러시아 유라시아주의는 국가 내 다양한 민족 집단의 근본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각 집단은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서방의 안보 경제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제3세계 상황 개선과 민족국가의 독립에 기반한 글로벌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비동맹 운동을 강력히 지지⁸⁾

II 러시아 대외 정책에서 신유라시아주의 경향 강화

2.1. [푸틴 집권2기]

2.1.1.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친서방 성향의 서부 지역과 친러 성향의 동부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

- 루스키 미르 개념은 '모스크바, 제3의 로마', '정통, 독재, 민족' 등 러시아에 존재했던 잘 알려진 특수 경로 이념과 슬라브주의, 서구화주의, 범슬라브주의, 유라시아주의, 신유라시아주의 같은 철학적 운동이 결합된 개념⁹⁾
- 동일한 명칭의 루스키 미르 재단이 2007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법령에 따라 설립¹⁰⁾

2.2. [푸틴 집권3기]

2.2.1. 러시아가 나치즘 미화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러시아는 보수주의로 돌아섰고, 러시아의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문화의 일부라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¹¹⁾

2.2.2. 러시아 국가주의자들의 이념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이즈보르스크 클럽이 2012년에 설립¹²⁾

- 우크라이나의 주권 국가 지위와는 별개로 러시아 국민에게 우크라이나와 명확한 경계가 실제로 희미한 것으로 보임

8) Johnson, Matthew Raphael. "Russian Nationalism and Eurasianism: The Ideology of Russian Regional Power and the Rejection of Western Values'." Center for Syncretic Studies 2 (2014) p.5

9) Meienberger, Alexander. "The concept of the " Russkiy Mir": History of the Concept and Ukraine." p.16 Euxeinos: Governance & Culture in the Black Sea Region 13.35 (2023).

10) <https://ruskiymir.ru/en/fund/index.php>

11) Meienberger, Alexander. "The concept of the " Russkiy Mir": History of the Concept and Ukraine." Euxeinos: Governance & Culture in the Black Sea Region 13.35 (2023). p.22

12) <https://izborsk-club.ru/about>

2.2.3. EU 가입 계획은 철회되면서, 2013년 11월 유로마이단 혁명이라는 대규모 유혈 시위로 이어짐

- 2014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탄핵당했고¹³⁾, 친서방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적 관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임
- 2014년 러시아는 약 2,000명의 무장 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
-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 크림반도 합병을 거치면서 노보로시야 개념이 부상
- 푸틴은 해당 하르키우, 루한스크, 도네츠크, 오데사를 차르 통치 시절인 19세기에 불렀던 “노보로시야(Novorossiia, 신러시아)”라는 명칭으로 언급하며, 이를 1920년 우크라이나에 넘긴 것은 역사적 실수라고 주장¹⁴⁾
- 두마에서 라브로프와 질문자는 “노보로시야(Novorossiia)”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¹⁵⁾,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키예프의 러시아 혐오적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2.3. [푸틴 집권4기]

- 2019년 4월 25일 우크라이나어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공무원에게 의무적인 언어로 지정하기로 도입하는 법률을 채택¹⁶⁾

2.3.1. 2022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본격화되자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전면전을 개시

-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소위 특별군사작전의 선포 당시,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는 나치 점령자들과 싸웠으며, 오늘날 신나치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권력을 장악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장
- 러시아는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적으로 '나치'를 설정함으로써 제국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명분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 '홀리 루스'(Holy Rus)는 탈소련 공간에서 국민 국가를 넘어서는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모델로,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초국가적이고 탈중양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을 시도¹⁷⁾

13) <https://www.aljazeera.com/news/2014/2/22/ukraine-president-yanukovich-impeached>

1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apr/17/vladimir-putin-denies-russian-forces-eastern-ukraine-kiev>

15) Remarks by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during the Government Hour in the State Duma of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19 November 2014, in Moscow p.5

16)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ukraine-passes-language-law-irritating-president-elect-and-russia-idUSKCN1S110Y/>

17) Suslov, Mikhail D. "' Holy Rus": The Geopolitical Imagination in the Contemporary Russian Orthodox Church." Russian Politics & Law 52.3 (2014): 67-86. p.81

- 이는 메시아주의와 근본주의적 요소를 결합해, 단순한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정체성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평가
- 헌팅턴은 문명의 공통성이 갈등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슬라브족이라는 민족적 연대와 동방 정교회라는 종교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폭력적 갈등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¹⁸⁾
- 헌팅턴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교회의 분리는 문명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갈등을 억제하던 통합적 요인의 약화를 의미
-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정치적·경제적 차원을 넘어 언어적 제약, 종교적 분리, 역사적 인식의 차이와 같은 비물질적 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NATO와 EU의 동진으로 러시아의 경제적·안보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러시아는 문화, 언어, 종교, 정체성과 같은 상징적 요소를 갈등의 명분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NATO와 EU가 주도하는 다자기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¹⁹⁾, 기존의 경제·안보적 도구로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새로운 방식의 영향력 확대를 꾀했다는 점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체성 유사성에 대한 담론이 갈등의 형성과 대외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교회의 분리는 단순히 종교적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정치적·민족적 정체성 갈등의 파생 결과로 이해해야 함

III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표결

3.1. [2012년]

3.1.1. 러시아는 2012년부터 나치즘과 신나치즘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해 자국의 민족주의적 정책과 역사적 정당성을 국제 제도를 활용

- 이는 유라시아 중심의 서사를 제도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반파시즘과 문명 수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신유라시아주의적 전략의 일환
- “나치즘 미화: 현대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불관용의 형태를 부추기는 특정 관행의 용납 불가성” 초안은 찬성 120표, 반대 3표(캐나다,

18)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amuel P. Huntington p.167

19) Global Governance and Eurasi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ssons Learned and Future Agenda p.11

마셜 제도 및 미국), 기권 57표로 승인되었으며²⁰⁾, 나치에 대항한 국가들은 주로 기권에 표를 행사

- 본 결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3표(캐나다, 팔라우, 미국), 기권 54표(부록 II)로 채택²¹⁾

3.2. [2013]

- 찬성 126표, 반대 3표(캐나다, 팔라우, 미국), 기권 50표로 위원회는 “나치즘, 신나치즘의 미화 및 현대의 인종차별, 인종적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형태를 조장하는 기타 관행에 대한 대응” 초안을 승인했다.²²⁾
- 미국, 유럽 연합을 대표하여 발언한 리투아니아 대표는 대체적으로 나치 미화 반대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일부 문단에는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²³⁾
- 총회는 찬성 135표, 반대 4표(캐나다, 키리바시, 팔라우, 미국), 기권 51표로 결의안을 채택²⁴⁾

3.3. [2014]

- 투표 전 우크라이나 측 대표는 히틀러와 스탈린을 국제 범죄자로 비난하고 러시아 연방이 크림반도의 네오나치 집단과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벨라루스 측 대표는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자국 주민의 희생을 근거로 회원국에 이를 지지할 것을 촉구, 본 결의안의 초안이 찬성 115표, 반대 3표(캐나다, 우크라이나, 미국), 기권 55표로 승인²⁵⁾
- 이후 결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4표(캐나다, 팔라우, 우크라이나, 미국) 기권 51표로 채택²⁶⁾
-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이 결의안에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나치즘 반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하고 자국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결의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우크라이나는 이를 자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과 충돌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러시아의 결의안이 국제적 담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정치적 동기를 강화

20) <https://press.un.org/en/2012/gashc4061.doc.htm>

21)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740171?ln=en>

22) <https://press.un.org/en/2013/gashc4092.doc.htm>

23) <https://press.un.org/en/2013/gashc4092.doc.htm>

24) <https://press.un.org/en/2013/ga11475.doc.htm>

25) <https://press.un.org/en/2014/gashc4124.doc.htm>

26)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20132?ln=en>

- 2014년 러시아가 크림 합병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 ‘네오나치 척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국제 무대에서 오히려 나치 미화를 반대하는 표결을 한 것은 역설적인데, 우크라이나는 과거 실제로 나치와 협력한 전례가 있음

3.4. [2021]

- 유엔 제3위원회는 찬성 121표, 반대 2표(우크라이나, 미국)로 “나치즘, 신나치즘의 미화 및 현대의 인종차별, 인종적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형태를 조장하는 기타 관행에 대한 대응”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고, 기권은 53표였다. 이 결의안은 의회가 나치 운동, 신나치즘, 무장친위대 조직의 전 구성원을 미화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도록 했다.²⁷⁾
- 러시아 연방 대표는 본문에는 작년에 악화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여러 대표가 발언에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 대표는 텍스트에 러시아 연방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조장하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우크라이나 대표는 텍스트의 "역사적 서사에 대한 명백한 조작"을 비난했는데, 여기에는 스탈린 정권의 미화와 관련된 것도 포함되며, 논의 끝에 총회 본 결의안을 찬성 130표, 반대 2표(우크라이나, 미국) 기권49표로 채택²⁸⁾

IV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표결

4.1. [2022]

- 4.1.1. 2022년 이후, 다수의 서방 국가들은 기존의 기권 입장에서 반대로 선회하며, 러시아의 결의안을 더 이상 중립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고, 다극 체제를 추진하며 서방 중심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도구로 간주하기 시작
- 유엔 제3위원회는 나치즘 미화를 방지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찬성 105표, 반대 52표, 기권 15표로 승인²⁹⁾
 - 해당 결의안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및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역사적 관점을 반영하고, 이슬람 혐오증, 기독교 혐오증, 반유대주의, 민족적 및 종교적 편견에 대한 우려를 표명³⁰⁾

27) <https://press.un.org/en/2021/gashc4337.doc.htm>

2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51466?ln=en>

29) <https://press.un.org/en/2022/gashc4365.doc.htm>

3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2693?ln=en&v=pdf> p.2

- 2문단의 뒤에 결의안 76/149에 포함된 요청에 따라 작성된,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관련 편협성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주목하기로 하는 문구를 추가³¹⁾
- 호주, 일본, 라이베리아, 북마케도니아가 제안한 이 수정안은 찬성 63표, 반대 23표, 기권 65표로 통과³²⁾ (수정안의 투표에서는 기권으로 많은 표가 이탈)
- 나치즘 미화 방지에 관한 결의안은 120표 찬성, 50표 반대, 기권 10표 (아프가니스탄, 에콰도르, 미얀마,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스위스, 대한민국, 튀르키예)으로 채택³³⁾
- 이는 과거 서방 국가들이 주로 기권했던 점과 비교해 현저히 달라진 결과로, 서방의 입장이 기존의 중립적 태도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대로 명확히 변화했음을 보여줌³⁴⁾
-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체코 대표는 러시아의 "탈나치화" 용어가 불법 침략을 정당화하며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주장³⁵⁾
- 영국, 호주, 미국 대표는 러시아가 결의안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거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도구로 활용한다고 비판³⁶⁾
- 우크라이나 전쟁과 결의안 논의는 단순한 역사적 담론을 넘어 서구 중심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신유라시아주의적 전략의 일환으로 발전
- 러시아는 자신을 반파시즘의 전통적 수호자로 강조하며, 나치즘 미화에 대항하는 국제적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함
- world majority³⁷⁾는 단일한 실체나 블록이 아니지만³⁸⁾ 러시아는 UN의 표결 결과를 통하여 연대를 구체화

4.2. [2023]

- 유엔 제3위원회는 "나치즘, 신나치즘의 미화 및 현대의 인종차별, 인종적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형태를 조장하는 기타 관행에 대한 대응"라는 초안을 찬성 112표, 반대 50표, 기권 14표로 기록 투표에서 승인³⁹⁾

31)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3196?ln=en&v=pdf>

32) <https://press.un.org/en/2022/gashc4365.doc.htm>

33)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7769?ln=en>

34) <https://press.un.org/en/2022/ga12483.doc.htm>

35) <https://press.un.org/en/2022/ga12483.doc.htm>

36) <https://press.un.org/en/2022/gashc4365.doc.htm>

37) Russia's Policy Towards World Majority에서 언급된 '세계 다수(World Majority)'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구속력 있는 관계를 맺지 않은 비서구 국가들의 연대를 지칭한다. 본 발표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

38) Russia's Policy Towards World Majority p.10

39) <https://press.un.org/en/2023/gashc4397.doc.htm>

-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러시아 연방이 신나치즘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적 침략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영토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나치즘을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신나치즘에 맞서려는 진정한 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새로운 효력 있는 단락을 삽입⁴⁰⁾
- 알바니아 대표는 초안 결의안에 대해 나치즘에 맞서는 것을 명분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찬성 66표, 반대 26표, 기권 67표로 개정안이 승인된 후, 인도네시아와 이집트 대표는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기준'을 비판⁴¹⁾
- 호주는 과거 몇 년 동안 본 결의안에 대해 기권했으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결의안이 오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표를 행사
- 논란 속에서도 결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49표 기권 14표로 채택⁴²⁾

4.3. [2024]

- 유엔 제3위원회는 "나치즘, 신나치즘의 미화 및 현대의 인종차별, 인종적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형태를 조장하는 기타 관행에 대한 대응" 결의안 초안을 찬성 116표, 반대 54표, 기권 11표로 수정된 내용으로 승인⁴³⁾
- 결의안 초안 채택 이전, 위원회는 "러시아 연방이 신나치즘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토적 침략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지적하며, 영토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나치즘을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신나치즘에 맞서려는 진정한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새로운 효력 문단을 포함한 수정안을 찬성 66표, 반대 43표, 기권 51표로 승인⁴⁴⁾
- 2023년 수정안은 러시아의 행위를 명확히 지적하며 초안의 정치화를 경계했으나, 2024년 초안에는 이러한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⁴⁵⁾
- 다수의 의원은 러시아가 신나치주의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초안을 오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일부 대의원들은 초안을 지지하며, 수정안과 거리를 두고 이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들은 "이 결의안은 주제별 결의안이 아닌 국가별 결의안이다"고 강조⁴⁶⁾

4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25888?ln=en&v=pdf>

41) <https://press.un.org/en/2023/gashc4397.doc.htm>

4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30705?ln=en>

43) <https://press.un.org/en/2024/gashc4428.doc.htm>

44) <https://press.un.org/en/2024/gashc4428.doc.htm>

45)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65544?ln=en&v=pdf>

46) <https://press.un.org/en/2024/gashc4428.doc.htm>

- 한국은 2024년 표결에서 기존의 기권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서방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며, 러시아의 결의안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패권적 의도를 드러낸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

V 결론

5.1. 러시아는 국제 제도를 자국 중심의 이익과 정체성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나치 미화 반대 결의안을 발의

- 이러한 결의안은 소련의 반과시즘 유산을 계승하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신유라시아주의 담론의 핵심과 긴밀히 연결
-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러시아의 결의안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러시아가 나치즘 반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하고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결의안을 이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결의안을 자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과 충돌하는 행위로 간주했으며, 이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결의안을 더 이상 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를 러시아의 다극 체제 추진과 서방 중심 질서 약화를 위한 신유라시아주의적 행보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기존에 기권하던 입장에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 러시아는 결의안을 교묘히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서방 국가들은 결의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권하거나, 결의안이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이러한 입장을 나치 옹호로 해석하는 프레임 구성하여 국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 이러한 프레임 전환은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게 서구 중심 질서에 정당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양측 간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
- 러시아와 협력하는 국가들은 이념적 공통 기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질서가 자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
- 이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아프리카와 중동 등 서구와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서구의 '이중기준'을 비판하는 계기를 제공
- 역사적 관점에서 찬성 입장을 취하던 일부 국가들조차, 찬성을 함으로써 러시아 측을 두둔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킴

- 2024년,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기권에서 반대 입장으로 전환하며 반대 행렬에 동참
- 한국의 입장은 상징적 복합성을 보여주는데, 한때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국이었던 한국은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축을 단죄하는 데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에 휘말리게 됨
- 이러한 투표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향후 한국의 對 일본 정책을 수립하는데 또 다른 딜레마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나치 미화 반대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를 자국의 가치관에 맞게 재구성하려 했으며, 이를 러시아 정체성 강화와 다극질서 형성의 도구로 삼음
- 반면,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이를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과 침략적 행위의 정당화 수단으로 간주하며 대응
- 결과적으로 나치 미화 방지 결의안을 둘러싼 갈등은 러시아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신유라시아주의가 추구하는 다극적 세계질서를 부각시키는 데 일조

참고문헌

- Smirnov, Nikolay. "Left–Wing Eurasianism and Postcolonial Theory." (2019)
- Johnson, Matthew Raphael. "Russian Nationalism and Eurasianism: The Ideology of Russian Regional Power and the Rejection of Western Values'." Center for Syncretic Studies 2 (2014)
- Bassin, Mark, Sergey Glebov, and Marlene Laruelle, eds. *Between Europe and Asia: The origins, theories, and legacies of Russian eurasianism.*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5)
- Kenderdine, Tristan. "Eurasianism and post–soviet political geography." *Вестник МГИМО Университета* 4 (73) (2020)
- Shekhovtsov, Anton. "Aleksandr Dugin’s neo–Eurasianism and the Russian–Ukrainian war." *The Politics of Eurasianism.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Russia’s Foreign Policy* (2017)
- Johnson, Matthew Raphael. "Russian Nationalism and Eurasianism: The Ideology of Russian Regional Power and the Rejection of Western Values'." Center for Syncretic Studies 2 (2014)
- Meienberger, Alexander. "The concept of the " Russkiy Mir": History of the Concept and Ukraine." *Euxeinos: Governance & Culture in the Black Sea Region* 13.35 (2023).
- Remarks by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 during the Government Hour in the State Duma of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19 November 2014, in Moscow (2014)
- Suslov, Mikhail D. "' Holy Rus": The Geopolitical Imagination in the Contemporary Russian Orthodox Church." *Russian Politics & Law* 52.3 (2014)
-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amuel P. Huntington
- Libman, Alexander, and Anastassia V. Obydenkova. "Global governance and Eurasia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Lessons learned and future agenda. " *Global Governance and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Institutions.* Routledge, (2023)
- Russia’s Policy Towards World Majority
“Ukrainian Nazism today: origin and ideological and political typology”, Th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3. 12.21.), https://mid.ru/en/foreign_policy/historical_materials/1920326/ (검색일: 2024.12.03).
- “ABOUT RUSSKIY MIR FOUNDATION”, RUSSKIY MIR FOUNDATION, <https://russkiymir.ru/en/fund/index.php>, (검색일: 2024.12.03).
- “О клубе”, Изборский клуб, <https://izborsk-club.ru/about> (검색일: 2024.12.03).
- “Ukraine President Yanukovich impeached”, ALJAZEERA, (2014.02.22.), <https://www.aljazeera.com/news/2014/2/22/ukraine-president-yanukovich-impeached> (검색일: 2024.12.03).
- “Putin asserts right to use force in east Ukraine”, The Guardian, (2014.04.1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apr/17/vladimir-putin-denies-russian-forces-eastern-ukraine-kiev> (검색일: 2024.12.03).
- “Ukraine passes language law, irritating president-elect and Russia”, Reuters, (2019.04.26.),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ukraine-passes-language-law-irritating-president-elect-and-russia-idUSKCN1S110Y/> (검색일: 2024.12.03).
- “Third Committee Approves Draft Resolution Aimed at Intensifying Global Effort to Eliminate Female Genital Mutilation”, United Nations, (2012.11.26.), <https://press.un.org/en/2012/gashc4061.doc.htm> (검색일: 2024.12.03).
- “Third Committee Approves Text on Human Right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10 Other Draft Resolutions”, United Nations, (2013.11.21.), <https://press.un.org/en/2013/gashc4092.doc.htm> (검색일: 2024.12.03).
- “General Assembly Adopts 68 Resolutions, 7 Decisions as It Takes Action on Reports of Its Third Committee”, United Nations, (2013.12.18.), <https://press.un.org/en/2013/ga11475.doc.htm> (검색일: 2024.12.03).
- “Heatedly Debating Girls' Rights, Third Committee Sends 10 Drafts, Including New Text on Children, to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2014.11.21.), <https://press.un.org/en/2014/gashc4124.doc.htm> (검색일: 2024.12.03).
- “Third Committee Approves 10 Drafts on Refugees, Indigenous Peoples, Women Migrant Workers as Delegates Denounce Attempts to Exploit Crises for Political Gain”, (2021.11.12.), United Nations, <https://press.un.org/en/2021/gashc4337.doc.htm> (검색일: 2024.12.03).

- “Third Committee Approves Eight Draft Resolutions, including Texts on Indigenous Peoples’ Rights, Privacy in Digital Age, Condemning Glorification Of Nazism”, United Nations, (2022.11.04.), <https://press.un.org/en/2022/gashc4365.doc.htm> (검색일: 2024.12.03).
- “General Assembly Adopts 51 Third Committee Drafts on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Refugees, Displaced Persons, Protecting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United Nations, (2022.12.15.) <https://press.un.org/en/2022/ga12483.doc.htm> (검색일: 2024.12.03).
- “Third Committee Approves 10 Draft Resolutions, Including Texts on Glorification of Nazism and Other Heinous Practices, Homelessness, Equal Access to Justice”, United Nations, (2023.11.03.), <https://press.un.org/en/2023/gashc4397.doc.htm> (검색일: 2024.12.03).
- “Third Committee Submits 8 Draft Resolutions to General Assembly, Including Ones on Establishing Cybercrime Treaty, Combating Nazi Glorification”, United Nations, (2024.11.11.) <https://press.un.org/en/2024/gashc4428.doc.htm> (검색일: 2024.12.03).
- “Glorification of Nazism : inadmissibility of certain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12.12.2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740171?ln=en> (검색일:2024.12.03).
-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neo-Nazism and other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14.12.1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20132?ln=en> (검색일:2024.12.03).
-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neo-Nazism and other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21.12.16.),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51466?ln=en> (검색일:2024.12.03).
-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neo-Nazism and other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22.09.29.),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2693?ln=en> (검색일:2024.12.03).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neo-Nazism and other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amendment to draft resolution”,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22.11.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3196?ln=en> (검색일:2024.12.03).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neo-Nazism and other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resolution”,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22.12.15.),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997769?ln=en> (검색일:2024.12.03).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neo-Nazism and other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amendment to draft resolution”,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23.10.31.),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25888?ln=en> (검색일:2024.12.03).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neo-Nazism and other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resolution”,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23.12.19.),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30705?ln=en> (검색일:2024.12.03).

“Combating glorification of Nazism, neo-Nazism and other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fuelling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amendment to draft resolution”,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2024.11.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065544?ln=en> (검색일:2024.12.0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입장과 대응

장전(한양대 국제학대학원)

I 서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당사국이 서로 다른 견해와 해석을 두고 있다. 서방 세계는 침공에 대한 정의와 대응에서 대체로 통일됐다.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에 대한 최대 규모의 침공으로 특징지어져 대규모 민간 및 군사적 사상자,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 이주,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초래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및 주요 민주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는 러시아를 완전히 보이콧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세계인구가 더 많다.¹⁾ 예를 들어, 중국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또는 “우크라이나 위기”라고 부르며 갈등 당사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인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략적 중립을 보여준다.²⁾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태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 등 크게 세 가지 진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같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EU는 이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초에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동시에 폴란드는 항상 우크라이나의 가장 확고한 동맹국 중 하나였으며, 막대한 양의 무기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무기 지원을 위한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둘째, 인도와 같이 중립을 유지해 온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입장 변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석유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인도의 최대 무기 수입국인

1) 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적이거나 러시아에 편향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Russia can count on support from many developing countries,” EIU, March 30, 2022, www.eiu.com/n/russia-can-count-on-support-from-many-developing-countries/.

2) “What’s behind India’s strategic neutrality o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BC News, Mar 30, 2023. <https://abcnews.go.com/Politics/india-remaining-neutral-russias-invasion-ukraine/story?id=97891228>.

러시아는 인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는 2023년 10월 총선에서 친(親)러시아 정치적 추세를 보였다.³⁾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전쟁 기간 동안 모스크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반대했다.⁴⁾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여러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 회담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적인 중립 역할은 국제사회의 질의를 더 받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유라시아 대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은 러시아를 비밀리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적인 입장과 대응 그리고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중국의 전략적 조정을 분석하기 위해 유라시아에서의 외교 관계, 경제 참여 및 지정학적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대러시아 태도의 변화도 주목을 받고 있다. 왜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지, 또 왜 중국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서방의 비판을 받는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양자관계 접근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 주요 분석 내용이다.

전쟁은 국제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장 분명한 것은 대 러시아 제재이다. 러시아 제재 여부를 향한 이 세 진영의 형성은 각 국가의 다른 국익과 지정학적 고려를 반영한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중립 국가는 경제적 이해관계, 안보 우려, 역사적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들어 두 가지 변화가 크게 생겼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종단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계속되는 전쟁 자체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둘째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급격히 심화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은 유라시아 국제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북한과 동맹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평가받던 중국도 북-러 관계가 깊어지면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3) "Pro-Russian Politician Wins Slovakia's Parliamentary Election," CNN, October 2, 2023. <https://edition.cnn.com/2023/10/01/world/slovakia-election-pro-russia-robert-fico-win-intl-hnk/index.html>.

4) "Hungary's Orbán Vows to Maintain Russia Ties." Euractiv.Com. February 20. <https://www.euractiv.com/section/global-europe/news/hungarys-orban-vows-to-maintain-russia-ties/>.

이러한 시스템 간 영향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복잡한 인과 체인의 여러 세계적인 위기를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폭력적인 갈등의 위험과 국제 질서의 붕괴를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인류의 복지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이 특별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II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사회에 일련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식량 가격, 에너지 가격 등의 급격한 폭발로 인해 공급망 중단 등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했다. 전쟁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동유럽 및 기타 관련 핫스팟 지역의 변화된 지정학적 현상을 먼저 평가하고 나토를 확대 및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카이스라니 등(Qaisrani et. al)⁵⁾은 이 전쟁을 오래된 문제에 근거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전쟁으로만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의 새로운 정체성과 친화력을 추구하고, 나토 가입을 위한 노력, 강대국 경쟁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국과 EU의 고객으로서 새로운 발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나토 확장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가설을 세웠다.

R. 베네딕터(R. Benedikter)⁶⁾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와 국제 시스템에서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한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글로벌 민주주의 동맹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의 '하나의 세계화'에서 '두 개의 세계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하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여러 권위주의 국가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믿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반응은 정확히 세계 패권의 지정학적 변화의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기꺼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이유의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으로 인해 러시아의 핵심 안보 이익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 핀란드는 2022년 5월에 나토에 가입하기로 하여 수년간의 군사적 비동맹을 뒤집었다. 이제 핀란드는 2023년 4월 4일에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스웨덴의 신청 승인이 논의 중이다.⁷⁾ 이러한 움직임은 핀란드의 오랜 군사적 비동맹 또는 "핀란드화(Finlandization)" 정책의 종말을 의미했다.

5) Dr. Irfan Hasnain, Qaisrani, Qazi Mr. Bilal Habib, and Abbas Dr. Hussain, "A Geopolitical War in Europ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European Studies (JES)* 39, no. 1 (2023).

6) Benedikter Roland, "The New Global Direction: From 'One Globalization' to 'Two Globalizations'? Russia's War in Ukraine in Global Perspective," *New Global Studies* 17, no. 1 (2023): 71-104.

7) NATO, "Finland joins NATO as 31st ally," April 4, 2023,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13448.htm; 그리고 스웨덴은 2024년 3월 7일에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Sweden officially joins NATO," March 7, 2024,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223446.htm.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중대한 전략적, 정치적 타격으로 간주된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오랫동안 국경으로 나토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장기적인 핀란드화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는 북서쪽의 안보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제 핀란드는 주로 러시아의 공세를 격퇴하기 위해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징집군을 포함하여 강력한 방어 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의 가입은 나토에 중요한 군사 역량을 제공한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에 따라 안보가 추구된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스웨덴의 편입과 함께 자체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지역 안보 역학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기도 한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보 우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예비군과 첨단 군사 역량을 포함한 핀란드의 강력한 국방 태세는 핀란드를 나토의 집단 안보에 순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국방 및 안보 유지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내 국방비 증가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국방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잠재적 이익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유럽 역량 조정의 어려움, 상호 운용성 문제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 기존 프레임워크와 이니셔티브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비 조달을 보다 전략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2022년 국방 예산을 GDP의 2.4%로 설정하고 2023년에는 GDP의 3%로 대폭 인상하여 2024년에는 GDP의 4% 이상으로 더 늘릴 수 있다.⁸⁾ EU 내부의 압력에 따라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책을 돌파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또한 전쟁 발발 직후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방위 기금을 약속하고 있었는데, 이는 GDP의 2% 이상이 될 것이다.⁹⁾ 이 특별 기금으로 독일의 군사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2022년 국방 예산은 6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2023년 국방 예산은 500억 유로로 책정되었다. 2024년에는 8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예산 575억 달러에서

8) "Poland's 2024 budget to see big spending on defence, social benefits," Reuters, August 24,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lands-2024-budget-see-big-spending-defence-social-benefits-2023-08-24/>.

9) "Germany announces major defense policy shift in face of Russia's Ukraine invasion," CNBC, Feb 27, 2022, <https://www.cnbc.com/2022/02/27/scholz-germany-pledges-defense-spending-increase-in-shift-in-strategy.html>; 그러나 독일 국내의 정치적 환경영향 때문에 군비 방위비 결정이 빨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비 증가에 대한 비난보다는 독일 자체의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45%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로 독일의 군사 예산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현 EU 의장이 독일 국방부 장관이었던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 특별 군사 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했으며, 회원국이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나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일 정부가 이 나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방 자금의 일부는 F-35 제트기와 같은 전투용 차량을 구매하고 더 많은 보안 통신 채널을 만드는 데도 사용될 예정이다.¹⁰⁾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의 안보 및 국방 정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냉전이 종식된 후 유럽은 이른바 평화 배당금을 누렸다. 그리고 안보 및 국방 정책은 유럽 정치의 변두리로 밀려났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와 국방은 다시 한 번 유럽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억제와 영토 방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나토의 부흥에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도전과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대륙이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억제력과 준비성을 통해 평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토나 미군 전력에 대한 독립을 희생시키면서 말이다.

유럽의 지정학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국제 질서의 경우, 더 큰 변화는 서유럽 및 대서양 지역부터 동반구에 멀리 떨어진 국가 들까지 군사적 통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발발 이후 두 차례의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두 정상회의 모두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도록 초청했다. 미군 동맹국이 나토에 통합되면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통합된 군사 캠프가 열릴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및 러시아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을 벌여 왔다. 2024년 12월 22일, 일본 내각은 2024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기록적인 7조 9,500억 엔(559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승인한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일본 국내총생산의 2%를 충당할 예정이다.¹¹⁾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긴장 고조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 지역의 침략에 대한 일본의 '반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0) "German budget 2024: Record funding for defence and cuts to Elterngeld," IamExpat, July 5, 2023, <https://www.iamexpat.de/expat-info/german-expat-news/german-budget-2024-record-funding-defence-and-cuts-elterngeld#:~:text=Up%20from%2050%20billion%20in%202023%2C%20the%20German,t hat%20the%20German%20government%20will%20meet%20this%20target.>

11) Takahashi Kosuke, "Japan Approves 16.5%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for FY2024," The Diplomat, December 22, 2023. [https://thediplomat.com/2023/12/japan-approves-16-5-increase-in-defense-spending-for-fy2024/.](https://thediplomat.com/2023/12/japan-approves-16-5-increase-in-defense-spending-for-fy2024/)

동시에 한국 윤석열 행정부의 지도 아래 한국은 방위 산업을 차세대 한국의 기동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폴란드 및 기타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포탄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¹²⁾

한국의 나토 군사협력 참여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연구소의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2022년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¹³⁾ 이 글은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를 초청한 배경에 대한 전략적 근거를 파헤치며,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한다. 이 글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나토의 집단 방어에 대한 논의와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예측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질서의 미래, 중국의 위협,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이 외교적 입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상업 선박이 북한과 러시아를 오가는 이미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 것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¹⁴⁾ 미국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진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 이미지는 북한 항구 도시 나진에서 러시아의 두나이(Dunay)로 컨테이너 여러 개를 운송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런 다음 두나에서 이 컨테이너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티코레츠크(Tikhoretsk) 인근의 남서부 러시아 탄약고로 기차로 이동했다. 북한은 이러한 무기 운송에 대한 대가로 이 지역의 기술이 덜 발전함에 따라 지대공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정교한 미사일 시스템을 러시아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푸틴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맥락을 넘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기술 및 우주 탐사 협력도 확인되었다. 두 지도자 모두 이러한 파트너십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분쟁 중에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

12) "Korea indirectly supplied more 155-mm shells for Ukraine than all European countries combined: WP," Korea Times, December 5, 2023, https://www.koreatimes.co.kr/www/world/2023/12/501_364468.html.

13) "[EAI 이슈브리핑] 2022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한국의 참여가 우리 외교에 주는 함의," EAI 동아시아연구원, June 27, 2022,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132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14) "North Korea may be sending arms to Russia for Ukraine war, images suggest," The Washington Post, October 16, 2023,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10/16/north-korea-russia-weapons-ukraine-war/>.

이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국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¹⁵⁾ 한반도뿐 아니라 나토와 미국의 반응도 대만 문제와 지정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쟁에 대응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성과와 경제적 영향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의 실패로 인해 목표가 빠르게 달성되고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심각한 경제 제재로 인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PLA)은 러시아군의 반면에 최근 40년 간의 대규모 분쟁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군사적 실패는 중국 당-정부-군대 체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군사 행동에 따른 가혹한 제재로 인한 잠재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 문제를 자국의 공정한 문제로 간주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 경제, 외교, 전략적 차원을 아우르는 복잡한 교훈과 고려 사항을 제공할 때 외부 국가들은 중국과 갈등하고 대만, 특히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 대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중국의 계산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태평양 지역도 나토와 미국 동맹국들이 통합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나토 회원국의 협력이 강화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가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장악한 패권체제에 대한 공통의 반대 입장에서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냉전 종식 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간에 더욱 긴밀한 전략적 동맹관계로 이어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대만과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해 왔다.

2025년 트럼프의 리더십 귀환은 QUAD나 AUKUS와 다자주의에 대한 경멸과 불규칙한 정책 변화로 이러한 노력을 약화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고, 결국 국제질서에서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15) "Kim Jong Un: North Korea Leader Enters Russia to Visit Putin," BBC News, September 12, 2023. <https://www.bbc.com/news/world-asia-66771568>.

III 중국의 입장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후 국제질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필수적이다. 이는 오늘날 중국과 세계가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 전략적 이익, 외교적 야망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방향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이 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러시아, 비판 서방의 행동과 지역 내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더 넓은 외교 정책 목표와 국제 질서에서 역할을 주장하려는 열망에 부합하는 미묘한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중국은 2023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문서를 발표했다.¹⁶⁾ 중국 정부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냉전 사고방식 거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한다.

이 보고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균형 있고 효과적인 유럽 안보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비난했다. 특히 2023년 10월 31일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에 따라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⁷⁾ "분할할 수 없는 안보" 개념을 지지하는 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현대 국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중국 외교부는 평화회담 촉진이라는 핵심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외교적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발전과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인 안정과 평화. 이 계획의 원칙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반영되었으며, 유럽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일치하고 미국과 동맹국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2023년 4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는 중국-우크라이나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의 주목할 만한 발전을 나타낸다.¹⁸⁾ 러시아 침공 이후 첫 통화에서 시진핑은 호소했다. 시진핑은 "대화과 협상이 전쟁에서

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ina's Position on the Political Settlement of the Ukraine Crisis," February 24, 2023, https://www.mfa.gov.cn/mfa_eng/zxxx_662805/202302/t20230224_11030713.html.

1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ointly Implementing the Global Security Initiative For Lasting Peace and Security of the World," October 31, 2023. www.mfa.gov.cn/eng/wjbxw/202311/t20231102_11172214.html.

18) "Xi Tells Zelenskyy: China Won't Add 'fuel to the Fire' in Ukraine," POLITICO. April 26, 2023. <https://www.politico.eu/article/china-xi-jinping-volodymyr-zelenskyy-ukraine-finally-called-zelenskyy-first-since-russia-waged-war/>.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창시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에게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을 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영토 타협 없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토 보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지를 강조한다.

중국은 또 리후이(Li Hui) 유라시아 사무특사를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5개국에 파견해 분쟁 관련 모든 당사자들과 회담을 갖는 것도 중국의 노력의 일환이다.¹⁹⁾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세계 강국으로 보이려는 중국의 열망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 대표 파견 조치는 자신을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중국은 책임 있는 글로벌 강대국이자 국제 분쟁의 잠재적 중재자이지만, 특히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부족하여 중국이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입장 문서는 위기 상황에서 긴장 완화와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그것의 갈등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인식된 거리다.

중국은 중립을 주장하며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고 분쟁 중재에 도움이 되는 위치에 섰지만,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 회복을 주장하는 가운데, 리후이의 임무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다양한 입장과 분쟁에서 중국의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사실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는 양측의 영토 분쟁 때문이었다. 그러나 루샤예(卢沙野) 주프랑스 중국 대사는 2023년 4월 21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²⁰⁾ 그는 역사적으로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소련 시절 흐루쇼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은 국제법상 '효과적인' 주권적 지위를 갖지 못한

19) "China's Xi Holds Call with Zelenskyy: Beijing to Send Special Envoy to Ukraine," CNA, April 26, 2023.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china-xi-jinping-calls-ukraine-president-zelenskyy-peace-plan-conflict-russia-3445676>.

20) "Fury in Europe after Chinese Ambassador Suggests Ex-Soviet States Aren't Sovereign," NBC News, April 24, 2023. <https://www.nbcnews.com/news/world/china-europe-anger-sovereignty-ex-soviet-states-ukraine-russia-rcna81072>.

다고 믿었다. 루 대사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에 대한 시진핑과 젤렌스키 간의 이전 대화와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와는 거리가 멀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즉각적인 강력한 반대 외에도 이러한 발언은 전쟁의 방향에 대해 중국이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루 대사의 발언은 중국 외교부가 개인적으로 고려한 것이지만 유라시아 분쟁에 대한 중국 외교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모순은 중국이 해결되지 않은 영토 및 주권적 청렴성과 관련된 핵심 이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거듭 주장해 왔지만, 대만 문제는 중국 외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유라시아 문제에서 상대방과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은 종종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을 상대방과 협상하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 현재 세계의 역사적 단계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통일과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²¹⁾ 중국 외교관들은 항상 중국이 국제 질서를 바꿀 의도가 없으며 현재 질서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든 전쟁을 통해 해결하든 현재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현재 국제 질서의 또 다른 큰 변화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가 BRICS+로 확장되어 다른 신흥 경제국들이 다양한 역량으로 이 그룹에 합류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²²⁾ 중국이 추진하는 이러한 확장은 BRICS 국가들이 종종 서방 국가들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BRICS+ 모델은 신흥 경제국이 국제 문제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는 다극적 세계 질서를 조성하여 서방 주도 기관이 확립한 기존 규범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은 폐쇄적인 파벌이나 몇몇 국가의 권한이 없는 것이다.

중국의 리더십 하에 BRICS는 패권적 지배보다는 공정성, 상호 존중,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국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²³⁾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은 폐쇄적인 파벌이나 몇몇 국가의 권위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에게 있어서 그것은 각 국가가 일반적으로 서구 패권이 이끄는 단극적 세계 질서에 의해 부과되는 제약 없이 개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 세상이다.²⁴⁾

21) "China Releases White Paper on Taiwan Question, Reunification in New Era," Xinhua, August 10, 2022, https://english.www.gov.cn/archive/whitepaper/202208/10/content_WS62f34f46c6d02e533532f0ac.html.

22) 개발 도상국을 대표하는 브릭스(BRICS) 블록은 2023년 8월 24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를 가입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자신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BRICS welcomes new members in push to reshuffle world order." Reuters, August 25, 2023. www.reuters.com/world/brics-poised-invite-new-members-join-bloc-sources-2023-08-24/.

23) "Xinhua Headlines: Xi Jinping-Leading CPC to Strive for a Better World," Xinhua, July 1, 2021. http://www.xinhuanet.com/english/special/2021-07/01/c_1310037048.htm.

24) Acharya, Amitav, "After liberal hegemony: The advent of a multiplex world order," Ethics &

BRICS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의 32.1%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은 약 29.9%를 기여할 것이다.²⁵⁾ 국제 통화 기금(IMF)의 예측에 따르면 2028년까지 BRICS는 세계 경제 성장의 33.6%를 차지할 것이고 G7은 27.8%로 떨어질 것이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계산한 경제 총합 측면에서 BRICS 국가의 GDP는 세계 경제의 31.5%를 차지하며 G7의 30.8%를 넘어섰다. 2028년까지 BRICS는 세계 GDP의 35-40%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G7의 점유율은 27.8%로 줄어들 것이다. G7이 설립되었을 때 GDP가 세계 총 GDP의 62%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BRICS 국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BRICS 국가의 부상은 국제 규칙과 법치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국가들은 다자주의와 공정한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동시에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한다. BRICS 국가의 세계 경제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문제에 대한 영향력도 커져 기존의 국제 규칙과 규범이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핵심 리더십 하에서 국제 무역, 금융 규제, 기후 변화와 같은 분야에서 BRICS 국가의 입장과 정책 선택은 기존 국제법과 규칙의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은 이 메커니즘의 강화와 회원국 간의 협력 심화를 촉진하고 다극 세계 건설을 지지해 왔다. 중국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패권주의와 위협 이론에 반대하고 평화적 발전을 강조하며 개발도상국의 협력 파트너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BRICS 국가와의 협력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요약하자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한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중국 특별 대표의 개입은 스스로를 책임 있는 세계적 강대국이자 국제 갈등에서 잠재적 중재자로 묘사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반영한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섬세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촉구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 원칙을 반영한다. 중국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선호하는 국가로 자리 매김했으며, 잠재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립적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은 불분명하다. 전쟁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2022년 2월 4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

international affairs 31.3 (2017): 271-285.

25) "BRICS Surpasses G7 in Economic Growth Contribution, IMF Says," Sputnik, August 3, 2023. <http://en.sputniknews.africa/20230418/brics-surpasses-g7-in-economic-growth-contribution-imf-says-1058680481.html>.

명을 발표했다.²⁶⁾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러시아 지지에 대한 외부의 비판도 주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성명은 중·러 신형 국가 간 관계는 냉전시대의 군사정치적 동맹관계를 넘어 양국 간 '우호에는 끝이 없고 협력에는 한계가 없다'며 전략적 협력 강화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제3국과 국제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에 서로를 방문했고 전쟁 중에 많은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 세계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잠재적인 동맹의 환상을 “무제한”파트너십의 슬로건으로 전달했다.²⁷⁾

IV 중국과 유라시아 국가의 경제 관계와 전략적 이해관계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러한 동맹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BRICS의 확장으로 시진핑은 푸틴과 협력하여 한 세기 동안 보이지 않는 소위 주요 변화를 촉진하고 공유된 미래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서방 여론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 농산물 공급 업체 중 하나이며, 많은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최고 거래 파트너가 되었지만, 전체 우크라이나 시장은 소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외교 전략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실라드 보로스(Szilard Boros)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외교 정책이 여전히 경제성장 과제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⁸⁾ 유럽의 입구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역사적 이견으로 인해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군사 기술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수행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현 001형 라오닝호 항공모함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중국 기업에 매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러시아 침공 이전까지 중국은 2000년대부터 우크라이나와 다양한 부문의 무역과 투자를 포함하여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26) 러위청(乐玉成) 외교부 부부장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시기 열리는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 관영 매체에 정상회담을 소개하며 "중러 관계는 상한선이 없고 종착역이 없고 주유소만 있다"고 말했다. "Russia-China Joint Statement on International Relations, February 4, 2022," <https://china.usc.edu/russia-china-joint-statement-international-relations-february-4-2022>.

27) 그런데 2024년에 가면서 중·러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2년 전 성명과 비교해 양국 우호에 끝이 없고 협력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28) Boros Szilárd, "The Role and Effects of the Russian-Ukrainian War in the Geopolitical Rivalry of the US and China: The Unfolding Thucydides Trap," *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8.3 (2022): 725-753.

유지해 왔다. 전쟁의 맥락에서 중국은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중재하고 잠재적으로 형성하여 글로벌 리더십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다. 이 전략은 세계 경제, 이념, 군사적 지배라는 중국의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특히 인프라와 농업에 집중되는 등 다양화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했으며, 2018년에는 키예프(Київ)에 BRI 무역 및 투자 센터를 설립했다. 중국 기업들은 농업 환적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COFCO(중국 국가 곡물, 석유 및 식료품 공사)가 마리우폴(Маріуполь)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우크라이나 항구에 투자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우크라이나 우라늄 부문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21년 우크라이나와 중국은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차입했다. 중국은 2019년 우크라이나의 최고 무역 파트너로 러시아를 대체했으며, 우크라이나 수출의 12%가 약 8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무역에는 2019년 중국 옥수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우크라이나 곡물이 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 초 기준 중국 본토로부터 약 4,700만 달러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수송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비교적 제한적이었다.²⁹⁾

이에 비해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무역 등 다방면 교류가 전쟁인해서 부정적 영향이 크고, 2024년 이후 무역액이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쌍방이 휴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전쟁 시작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리적 인접성 덕분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 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90% 이상을 중국 국영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여 총 16억 달러에 달했다.³⁰⁾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농업, 에너지, 광산 및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 급증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에 개방하는 등 전례 없는 협력 방식도 중국에 이 지역에서 전략적 발판을 제공한다. 이 항구 덕분에 중국 지린성(吉林)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은 항구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이 동북 지역의 옛 산업 기반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

29) "What role will China play in Ukraine's post-war transformation?" Middle East Institute, December 21, 2022, <https://www.mei.edu/publications/what-role-will-china-play-ukraines-post-war-transformation>.

30) "China's steadily expanding investments in Russia since the Ukraine conflic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July 26, 2023,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chinas-steadily-expanding-investments-in-russia-since-the-ukraine-conflict>.

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³¹⁾ 특히 서방의 제재가 유지된다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관계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출입 측면에서도 이득을 얻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에너지 시장, 특히 러시아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많은 EU 국가들이 러시아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며, 러시아의 대규모 긴급 에너지 공급 중단은 의심할 여지없이 향후 1~2년 내 유럽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유럽 에너지 시장, 자본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러시아-EU 에너지 관계의 단절은 러시아에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비유럽 지역, 특히 중국과 인도로 에너지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중국은 에너지 및 기술 무역 증가를 포함한 경제 및 외교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경제 관계의 핵심 요소는 2019년 12월부터 러시아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 시작한 ‘파워 오브 시베리아 (Power of Siberia)’ 가스관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양국 간의 에너지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³²⁾ 제안된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파이프라인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확장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유럽 시장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출을 다각화하고 중국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해 할인된 요금의 혜택을 받으며 러시아 석유 및 가스 구매를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최대 소비국 중 하나가 되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풍부한 국가이며 이 자원을 동부 이웃 국가들과 기꺼이 공유할 의향이 있다. 2025년 시베리아의 힘을 통한 연간 가스 공급량은 380억 m³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중국의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장기적인 영향은 중요성이 부각한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무역 관계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세계 경제 및 정치 역학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또한 에너지를 다각화하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1) “China approves Russia’s Vladivostok as cross-border transit port, in show of high-level strategic mutual trust,” Global Times, May 15, 2023,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5/1290736.shtml>.

32) “‘Сила Сибири’ - Сила Прогресса и Развития,” Vostokmedia, November 26, 2019. <https://vostokmedia.com/news/2019-11-26/sila-sibiri-sila-progressa-i-razvitiya-501980>.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력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양국 간의 미래 이해 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은 글로벌 포지셔닝에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러한 자율성이 약화되면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과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가 항상 러시아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극과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열망은 중국의 존재감과 관심 증가로 인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사이에서 점점 더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새로운 역학 관계를 만들어냈다. 러시아에게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러시아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 수출은 인프라 자재, 건설 장비, 기술에 중점을 둔 BRI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출은 BRI 프레임워크에 따른 도로, 철도 및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한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의 특정 상품 및 기술 접근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은 소형 원자재부터 차량이나 인터넷 통신 및 기술과 같은 중요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및 나머지 CIS 국가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화웨이, ZTE와 같은 중국 기업은 중앙아시아의 통신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확장됨에 따라 이 시장은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의해 방해받았던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의 예비 시작과 함께 중국 표준이 구소련 권내에서 러시아 표준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경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를 보장하는 '이중 순환(双循环)'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 전략에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잠재적인 국제 제재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 사용을 교훈 삼아 핵무기를 빠르게 늘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우라늄 광석과 같은 중요 자원이 풍부하고 러시아를 대체할 중국과 유럽 간 최단 경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의 역할은 점점 더 중국에게 중요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5월 19일 오전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제1차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의 미래를 가진 중국-중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력하라"는 연설을 했다.³³⁾ 이 회의는 중국 지도자가 러시아의 초청 없이 중앙아시아 5개국 지도자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은 이 회의에서 "중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개발 전략을 조율하고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지도자들의 이번 회의는 중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전통적 지배 세력인 러시아의 영향력 쇠퇴를 은유하는 역할도 한다.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불황과 지역 안보 혼란이라는 이중 타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증가와 안보 협력 확대는 다자 공동의 이익과 일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시안(西安) 선언'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³⁴⁾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정치 및 안보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인 공유된 미래를 통해 더 긴밀한 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한다. 이러한 약속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는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지지하는 공동의 미래를 가진 더 긴밀한 중국-중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정렬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전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집단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시안 선언'은 인프라, 무역,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 성장과 현대화 노력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벤처의 문을 열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중앙아시아협력대화 등 중앙아시아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중국과 협력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고 도전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33) "Full Text of Xi Jinping's Keynote Speech at China-Central Asia Summit," Xinhua, May 19, 2023, https://english.www.gov.cn/news/202305/19/content_WS6467059dc6d03ffcca6ed305.html.

34) "China-Central Asia Summit Xi'an Declaration (full text)," Xinhua, May 19, 2023.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05/content_6875138.htm.

결론적으로, '시안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 강화는 유라시아의 진화하는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에 전략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지역 발전과 연결성을 위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민감성, 규제 조화, 재정 관리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신중한 탐색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제 질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외교적 지원, 경제 참여,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특징지어지는 유라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전쟁은 서방 국가,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을 악화시켰다. 경제 제재, 군사 배치, 외교적 노력은 러시아에 대한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사용되는 도구 중 일부였다. 전쟁은 동맹과 파트너십에 변화를 가져오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모색해 왔으며, 러시아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동맹을 강화했다.

중국은 전쟁의 중재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중국의 외교는 전쟁발생 이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옹호하는 불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중국은 서방 및 러시아 기업과 무역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BRICS의 BRICS+로의 확장은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중국의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광범위한 지정학적 환경의 맥락에서 국제 관계와 안보의 역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글로벌 및 지역 지정학도 재편하고 있다. 이들의 협력은 나토와 서방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그 존재감을 크게 높인 중앙아시아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지난 몇 년 동안 군사적 관계를 심화 시키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이다. 그러나 중-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모두 겪어 왔다. 냉전 시대에는 이념적 유사성으로 인해 두 나라가 하나로 모였지만 심각한 균열이 뒤따랐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 오랫동안 러시아는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이 분쟁의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에 기여한다.

국제 환경,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적인 영향과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 러중 관계는 여전히 글로벌 지정학의 핵심적이고 복잡한 요소로 남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파트너십의 균형을 맞추고 내재된 긴장과 역사적 불신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관계의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역학 관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및 그 밖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새로운 시대의 맥락에서 이 협력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과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는 것은 보다 총체적이고 포용적인 형태의 지역 협력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호 존중, 공동 이익 및 공동 개발 목표에 기반한 국제 파트너십을 육성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외교 정책 목표와 일치한다. 이는 이 지역에 안정, 번영, 발전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다 균형 있고 다극적인 글로벌 질서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 운명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중국의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부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립은 서구 강대국과 글로벌 남부 간의 관계를 긴장시켰으며, 특히 중국의 입장은 주요 국가 간의 여러 힘의 중심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단일 국가나 동맹이 지배적이지 않은 보다 균형 잡힌 글로벌 질서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 평화적으로 종식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가자, 홍해의 분쟁은 지구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전반적인 국력과 군사수준이 상승하면서 중국은 안보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외부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화 제재가 더 많다.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는 난처 해졌다. 중국이 일대일로와 러시아에 접근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강제적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제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3년 11월부터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포함한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제 전략을 반영한 다각적인 움직임이다.³⁵⁾ 즉각적인 목표에는 관광 및 무역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 전력 역학 관계의 변화 속에서 유라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참여와 일치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대한 일방적인 30일 입국 비자 면제를 전격 발표했다. 동시에 더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체결에도 박차

35) "China tries out unilateral visa-free policy for six countries," Xinhua, November 24, 2023, http://g.y.china-embassy.gov.cn/eng/lswf/lswf/202311/t20231128_11188664.htm.

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중에서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쌍방향 30일 입국비자 면제를 허용했고, 올해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유형의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와 유사한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립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국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추측, 서방 제재에 대한 반대에 대한 추측으로 인해 시진핑이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지 않고 서구 제재에 대한 반대에 의해 촉진된다. 국가가 전쟁에서 보여준 정치적 입장이 반드시 국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적인 위기를 악화시키면서 새로운 국제 규범과 권력 구조의 형성, 특히 유라시아의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전쟁 이후 시대에 글로벌 거버넌스와 중국의 역할 추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